

# 박종철 열사 관련 자료모음 2 : 1987. 03-06

## 목차

번호	일시	제목	생산처	페이지
1	1987. 03. 03	고문 추방 민주화 국민평화 대행진	고 박종철군 범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	3
2	1987. 03. 15	민중선교 87-2	한국교회사회 선교협의회	6
3	1987. 03. 18	민주가족 제 5호 - 고 박종철군 추모특집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12
4	1987. 05. 18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30
5	1987. 06. 05	민주화를 위한 공동전선 제 1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전남본부	32
6	1987. 06. 22	진실이 밝혀지기 보다는 은폐되고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34



# 고문 추방 민주화 국민평화 대행진



- 박종철군 49제를 맞아 3월 3일 12:00 ~ 1:00 까지 전국에서 고문추방과 민주화를 위한 국민평화 대행진을 거행합니다.
- 고문추방과 민주화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은 이 행진에 동참합시다.

고박종철군 범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

## 우리는 왜 행진하는가!

1. 길거리에서의 검문·검색, 불법연금, 강제연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2. 구류, 단기구금, 압수수색영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3. 모든 고문수사를 근절하기 위하여
4. 고문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삼는 재판을 없애기 위하여
5. 고문살인사건(우종원, 김성수, 신호수 등)과 고문·용공조작사건(백기완, 이태복, 김근태, 김문수, 권양 등)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하여

## 국민평화대행진에 이렇게 동참합시다!

1. 모든 국민은 3월 3일(화요일) 12:00~1:00까지 1시간동안 3·1 독립운동의 진원지였던 파고다공원을 향하여 도보로 행진합니다. (승차중인 시민은 손을 흔들며 행진을 격려합니다)
2. 전국 각 도시·마을에서도 모든 민주단체·국민이 적절한 장소를 정하여 행진하거나 또는 똑같은 취지의 행동을 합니다.
3. 모든 행진에는 어린이, 노약자를 포함하여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화적인 방법으로 참여합니다.
4. 시민의 생업을 방해하는 모든 행동(최루탄 발사, 무장전경 배치 등)은 평화와 민주화에 대한 공적으로 간주하고 완전히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5. 모든 경찰관, 전투경찰도 방패, 방망이, 투구를 땅에 내려놓고 국민평화대행진에 참가하도록 권유합니다.

준비위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은 발족식에 참석하여 의사를 표시하시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위원회에 가입 연락처

- 개신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 위원회  
전화 764-0203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742-3746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763-8776
- 가톨릭 :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332-9866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464-0385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  
민주화운동청년연합 730-9452  
민주언론운동협의회 719-1064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844-8896  
민중문화운동협의회 312-5393  
자유실천문인협의회 718-7153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730-9452
- 여성평우회 717-1060
- 신한민주당 742-4233·745-8011~20
- 민주화추진협의회 757-6407~9

## 협의회소식

###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사선 총회가 지난 2월27일 오후 2시 명동 전진상 가톨릭여학생회관 1층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총회는 1부 기도회와 2부 총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1부 기도회는 본회 부회장 정진동목사(청주도시산업선교회)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김동완목사(NCC 인권위)의 개회선언과 이명준서기(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의 회원소개, 이근복목사(영등포도 시산업선교회)의 동의로 회선이 채택되었다. 이어 이병철감사(가톨릭농민회)의 감사보고, 그리고 이길재총무(사선)의 86년도 사선사업보고 및 결산보고가 있었다. 한편 사선 이길재총무의 임기가 완료됨에 따라 총무선출이 있었다. 이날 총무선출은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임기서기 황인성총무(기독교학생회총연맹)의 건의로 이길재 총무의 유임안이 총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통과, 앞

으로 2년간 총무직에 유임되었다. 그밖에 임원개편에서는 그동안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던 황상근 신부(가톨릭노동청년회), 이창복 씨(현 구속중) 정진동목사(청주도시산업선교회)가 사임하시고 새로운 부회장에 인명진목사, 호인수 신부, 가톨릭농민회지도신부가 선임되었다.(김동완부회장 유임)·한편 회계에 이근복목사, 감사에 유동우회장(기노련)이 보선되었다. 또한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상정된 울산사회선교 실천협의회(회장 전재식신부) 회원단체가입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전재식신부의 폐회기도로 막을 내렸다.

### 동 정

○3월16일부터 21일까지 아시아 지역실무자 40명이 참가하는 CCA-URM(아시아 지역 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훈련이 서울에서 개최된다.  
○ACPO(아시아지역에큐메니칼 사회선교협의회)회의가 3월22일부터 25일 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 감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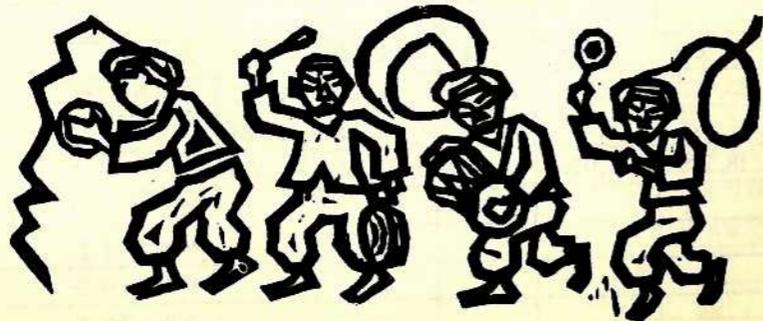
지난 2월1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사선 사무실에서 이병철, 이근복 감사를 모시고 86년 사선 사업 및 결산 감사가 실시되었다.

### 총회 준비위원회 모임가져

지난2월20일 12시 사선 각분과위원장과 부회장단으로 구성된 총회 준비위원회가 열려 총회를 앞두고 87년 활동과 예산안 심의, 임원 개편안 및 기타 총회 부의 안건조정이 있었다.

### 가톨릭 노동사목전국협의회, 86년 임금 및 의식조사보고서 출판

노동사목은 지난 7월부터 구로, 영등포, 성수, 중구, 인천, 성남, 부천, 안양, 부산, 대구, 구미, 마산, 전주, 이리, 광주 등지에서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거쳐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동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민중선교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적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신·구교 선교단체의 협의체입니다.

## 추모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종철이의 추모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하나뿐인 사랑하는 동생의 추모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누나의 안쓰러운 마음을 여러분께서는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씩씩하던 종철이가 고문으로 일찌기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그런 고문으로 단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민주주의국가, 정의사회구현을 외치는 저들의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 나라의 인재들을,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갈 인재들을 그들은 그렇게 죽여도 된다는 말입니까? 저들이 반성을 합니까? 저들이 뉘우칩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싸우십시오! 우리 종철이는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읍니다. 싸웠읍니다. 저도 싸울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하여 말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987. 2. 22. 박은숙

— 위의 글은 개신교 8개단체가 주최한 고문추방을 위한 기도회에 보내온 고 박종철군의 누나 박은숙양의 메시지 전문이다. —

한편 당일 경찰은 기도회장을 원천봉쇄하고 목회자 및 평신도 약 130여명을 난지도 쓰레기장, 경기도 미사리, 남한산성, 잠실, 창경원 부근, 서빙고동, 한남동, 사당동 등지에 강제 분산하였으며 기독교회관 앞에서 김해성목사(성남 산자교회)등 신학생 2명을 삼양사 주차장에 있는 경찰 버스로 강제연행, 집단구타하여 김해성 목사는 한양대학병원(1205호)에 입원 가료를 받았다.

##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주소/ 서울·종로구 연지동 136-46기독교회관 901호 ☎ 763-9563

# 3·3 고문추방민주화국민평화대행진

## 시내곳곳에서 산발적으로 거행

### 서울, 부산, 광주 등지에서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준비위원회가 3월3일 개최한 '고문추방민주화국민평화대행진'이 6만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거행되었다. 당일 오전 11시 40분 종로 5가 한일극장앞에서 출발한 행군 대열은 갑자기 500여명으로 불어 12시경 세운상가에 집결한 1000여명과 합세하여 종묘주차장 근처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계속되었으나 경찰의 집중적인 최류탄 발사로 일부는 청계천으로 빠지고 하오3시경에야 종로 3가에 재집결한 일부는 도로를 점거한 채 500여명이 3분간 행진하였다. 또한 청계천4가에서는 1시30분경 '고문살인강간정권타도를 위한 노동자 투쟁위원회' 등 2000여명이 아세아극장앞 도로를 차단하여 40분간 시위를 계속하였다. 그중 일부는 을지로 4가로 빠지고 일부는 청계천 2가에 900여명이 재집결하여 파고다공원으로 5분간 행진을 하여 연도의 많은 시민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 한편 을지로 4가에서도 2시10분경 300여명이 10분간 차도를 차단하는 등 인도를 중심으로 2000여명이 오후 4시까지 산발적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밖에 부산에서도 대각사 주변에서 1만여명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산발적인 시위가 계속되어 오후 7시에나 해산하였고 광

주에서는 총장로, 금남로 등지에서 오후 9시까지 시위를 계속하였다. 한편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준비위원회는 3월4일 오전 10시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비위는 오늘로서 소임을 마치고 모금된 고문추방기금은 고문용공조작 저지공동대책위원회에서 관리, 고 박종철군 추모 및 고문추방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준비할 것"을 선언하고 당일 저녁 6시부터 3월 5일 아침까지 국민평화대행진구금자전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NCC 인권위에서 철야농성을 하였다.

### NCC 고문폭력대책위, 김용권군의 문사사건과 관련 성명서 발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고문폭력대책위원회는 2월25일 '서울대경영학과 재학중 카슈샤로 입대하여 군복무중 김용권군이 1986년 8월경보안대에서 고문수사를 받아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림을 받던 중 20일 변사체로 발견되는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는 가족들의 진정을 접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성명서를 유언비어유포혐의로 몰아 고문폭력대책위원장 김상근(기장 총회총무)목사와 김동완 목사(NCC 인권위사무국장)에 각각 구류 7일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사건에 접한 기장총회소속목회자 30여명은 지난 3월 1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총회본부에서 항의철

야기도회를 갖고 3월 8일 전국 교회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기로 결의하였다.

### 제일교회 고문추방을 위한 기도회, 경찰탄압으로 무산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기노련, EYC, KSCF 등 개신교 8개단체는 2월22일 오후3시 제일교회에서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가혹한 탄압으로 무산되었다. 이날 경찰은 기도회가 순수한 종교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회를 봉쇄하고 장성룡목사(목협회장), 김세진열사부모를 비롯한 120명의 교인을 닭장차에 실어 경기도 미사리, 난지도 쓰레기장, 남한산성 등지에 짐짝처럼 내버려 기도회를 무산시켰다.

### 천사철, 고문추방과 민주화를 위한 미사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는 지난2월 18일 명동성당 소성당에서 500여명의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월례미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추영호 신부(청량리성당)가 집전한 미사 후 2부 고문사례보고대회에서는 최근 제헌의회그룹사건가족들의 고문폭로와 80년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관련자의 증언 그리고 특별히 86년 8월 광화문거리에서 분신으로 독재에 항거했던 노동자 백종수씨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나와 미사에

참여하였다. 한편 미사가 끝난후 상계동을 비롯한 철거지역주민등 300여명이 성당 입구로 나와 '도시빈민 압살하는 철거고문 중단하라', '박종철을 살려내라'는 구호를 외치며 30분간 연좌농성을 하였다.

### 2·7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전국에서 경찰과 충돌

서울 등 17개도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추도회가 경찰의 원천봉쇄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국곳곳 거리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추도회에 참여한 48개민중민주운동단체와 시민들은 을지로, 광교, 남대문시장, 조선히otel 등지에서 각각 2천-3천명씩 모여 즉석 추도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부산시내에서는 흰머리머리를 두른 학생과 부민협이 중심이 되어 부산극장, 미문화원등지에서 평화시위를 전개하여 연도의 시민 1만여명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

다. 광주 역시 YWCA에서 열기로 했던 추도대회가 무산되자 5천여명의 시민들은 금남로, 총장로 등 도심에서 산발적인 가두시위를 벌였다.

### 술츠방한반대'소내투쟁가열

3월 5일 현재 이미 7일째 단식투쟁을하고 있는 허병섭 목사를 비롯한 서울 구치소내 전 양심수들은 '술츠방한반대'소내단식투쟁에 들어갔다.



## 언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현장의 함성

### 성수동 제일피복노동자 200여명, 파업농성으로 일당 1000원 인상, 보너스 200% 쟁취

성수동소재 청바지 배방 생산업체인 제일피복노동자들은 지난 2월13일 식당을 점거하고 '일당 1000원 인상', '보너스 400%지급', '도급제폐지', '식대지급' 등 10개항을 요구하며 파업농성에 들어갔다. 경찰 200명과 노동부근로감독관의 농성을 해산시키려는 음모에도 불구하고 철야농성에 들어간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유명노사협의회로 존재해왔던 노사협의회에 파업대표 3인을 파견하는 한편 노조결성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가올 탄압에 조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 부평 서우주식회사 노동자 300명, 40분간의 파업으로 상여금 쟁취

수출용 오리털잠바 생산업체인 서우노동자 300명은 지난 1월24일 공장내 모타가동을 중지시키고 40분간 작업을 거부, 보너스 50% 인상을 관철시켰다. 경찰이

파업을 무산시키기 위해 파업지도자 2명을 연행하는 등의 방해책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굳센 단결로 '구정보너스 100%제때지급', '대치근무없이 구정휴가 5일 유급처리', '6개월미만자에 50% 보너스 지급'을 요구하여 일부가 관철된 것이다.

### 대전 제일지침, 노조결성대회

지난 2월2일 대전 제 2공단에 위치한 제일지침(주)노동자들은 대전 가톨릭문화회관에서 노조결성대회를 가졌다. 제일지침은 공단내에서도 임금이 적기로 유명하여 남자초임 3000원도 안되는 악덕기업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되 결근횟수에 따라 2%씩 공제하고 국경일, 추석휴가시에도 무급처리하여 또한 연월차수당도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이상태 지부장을 중심으로 노조를 결성한 것이다. 이에 회사측은 이상태 지부장을 불법해고하고 노조 가입자에게 탈퇴서를 강요하는 한편 공장 폐쇄협박등 예외 상투적인 수법으로 노조파괴행위를 일삼고 있다.

# 성서, 최저생계비 주장! 최저생계비는 하나님의 명령

(기노련신문 6호)

##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늘 나라에 대한 비유로 포도원 농부의 품삯(임금)을 들어 설명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야기의 내용은 대강 이렇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가 사람을 모아 하루 한 데나리온 당시 이스라엘의 화폐단위 씩 주기로 하고 포도원으로 보내 일을 시켰다. 점심때쯤 주인이 다시 장터에 나가 보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고 있었다. 포도원 주인은 늘고있는 그들을 포도원으로 일하러 보냈다. 그런데 오후 5시쯤 다시 주인이 나가 보니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 있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으로 일하러 보냈다.

날이 저물어 일을 끝마친 뒤, 포도원주인은 품삯(임금)을 주는데, 점심때 일하러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한시간 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를 보고 아침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한시간 밖에 일을 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어찌서 하루 종일 퇴약 별아래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 주느냐?"고 항의를 했다.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 하루종일 일한 사람과 한시간 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대우한다는 것은 지극히 불평등한 처우이다. 그런데도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똑같이 대우해 주었고, 예수께서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와 같다고 말한다.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노동자는 노동력을 팔아 그 댓가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노동력을 팔 곳이 없다면 굶어 죽을 수 밖에 없다. 또한 하루의 생활비가 한 데나리온 드는데 만나질 밖에 일을 못해서 반 데나리온 밖에 받지 못하거나 한시간 밖에 일을 할 수 없어 10분의 1데나

리온만 받는다면 그 노동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게 된다.

하루종일 일하고싶어도 한시간 밖에 일할 자리가 없다면 그것은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노동자가 밥을 굶어야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자리가 없어 논다고 해서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다. 만나질 밖에 일하지 못한다고 생활비가 절반 밖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시간 밖에 일을 못한다고 해서 생활비가 10분의 1밖에 안드는 것도 아니다. 하루종일 일한 사람이나 만나질 일한 사람이나, 한시간 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이나 하루 세끼 밥먹고 생활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당연히 노동자는 누구에게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포도원 농부의 품삯은 바로 노동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일자리를 구한 사람만이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일을 조금밖에 할 수 없는 노동자는 절반쯤 굶주리고 일자리를 전혀 구할 수 없는 노동자는 굶어 죽어야 한다면 그런 사회처럼 불평등하고 비인간적인 사회는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철야 잔업까지 하면서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있는 한편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를 걱정하며 거리를 방황하는 노동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적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모든 노동자에게 일할 자리가 주어지고 그러면서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 생계비가 어느 누구에게라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도원농부의 품삯을 통해 가르쳐 주는 성서의 임금사상인 것이다. 예수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와 같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있다.

# 운동권소식

## 87서울 노동자 임금투쟁 공동실천위원회 발족

지난 2월 15일 영등포 산업선교회관에서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한국기독교노동자서울지역연맹, 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발족되었다. 이날3개단체는 발족성명서를 통해 '무역흑자, 3저호황이라는 귀따가운 소리는 군부독재와 독점제벌에나 해당되는 것일뿐, 우리 노동자는 상관없는 헛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절감한다'고 전제하고 지금의 상황을 '전민족민주세력과 현군부독재타도투쟁으로 연대함에 있어서 전 민족적 이해를 구체적으로 관철할 수 있도록 우리 노동자 계급이 전체운동속에서의 역사적 자기위치를 분명히 확보하고 정치투쟁의 주역을 담당 해야할 때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87년 임투가 대중투쟁을 통하여 대중조직건설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울 지역외각공개노동운동단체가 모여 87년 서울 노동자 임금투쟁 공동실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또한 '아울러 전국단위의 더욱 광범위한 임투 공동실천기구를 제안하며 서울지역공동임투위에 참여하고자하는 모든 단체를 환영할 것'을 천명하였다.

## 인천지역 노동자들, 박군 추모제 무산되자 가두시위로

살인강간고문정권타도를 위한 인천노동자투쟁위원회는 지난 3월 1일 부천 석왕사(부천 원미아파트뒤)에서 고 박종철군 추모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완전 봉쇄로 부천역근처에서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철이를 살려내라', '용권을 살려내라'고 외치며 가두추모시위를 전개하였다.

## 대한 변협, 고문근절대책 공청회

고문대책을 마련키위한 공청회가 변협주최로 1월27일 변화사회관에서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공청회 1부에서는 이왕준군등 4명의 고문피해자의 폭로가 있었고 이어열린 2부에서는 이우정교수, 채광석씨, 김상철변호사등 각계인사 7명의 토론자가 고문근절대책을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변협은 이날 공청회를 토대로 1월30일 '고문방지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고문추방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문신고센터가 설치된 직후 처음으로 '여성노동자 집단윤간사태'가 신고되어 조사중에 있다.

## 한신대, 덕성여대, 서울대 교수들 박군사건에 대한 항의표시

한신대 정대위학장을 비롯한 교원 54명 전원은 2월 3일 '고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에 즈음한 우리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성명을 통해 교수들은 '고문의 종식은 근원적으로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운동이며 정통성있는 권력을 창출하려는 운동'이라고 밝혔다. 또한 덕성여대교수 10명 역시 2월 6일 '우리의 견해'를 발표하여 박군 사건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명했

며 서울대 인문대, 사회대교수 등 160여명은 박종철군의 죽음에 대한 추도 의사 표시로 2월 5일 하오 5시부터 9시까지 퇴근하지 않고 각자 연구실에 남아있다가 귀가하였다. 교수들은 알리는 말씀에서 '젊은 제자의 목숨을 애도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는 민주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민가협, 고문사례보고대회 개최

지난 2월19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구속자가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주최 고문사례보고회가 열렸다. 회장인사와 계훈제교문의 격려사에 이어 고문사례보고에서는 YWCA 사건과 관련 고문을 당했던 김병걸 교수, 인혁당 하재완씨가족고문사례, 재일교포유학생이철씨고문사례, 부림사건, 서노련사건, 반계동맹당사건, 제헌의회그룹사건과 관련하여 가족들의 보고와 최근 자행된 여성노동자집단윤간사건에 관한 사례보고 및 피해자들의 호소문이 발표되었다.

## 8개 노동단체, 고 박종철동지 추모식 및 노동자대회 개최

박영진열사추모회등 9개노동단체 근로자 500여명은 지난 1월25일 오후 6시 영등포 산업선교회관에서 고문항의집회를 가진뒤 박군의 영정과 '죽음이 두려우라, 노동 해방쟁취하자'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가두추모시위를 전개하였다. 근로자들은 이날 발표된 결의문을 통해 '고문의 종식은 민중스스로의 민족자

주화와 민주화투쟁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고문에 대응하여 전 민중이 참여할 수 있는 신고체제, 선전체제, 공동대응체제로 기존의 고문중식투쟁기구를 정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구속학생 (이 기정군) 어머니 석방 촉구 농성

지난 2월2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던 부천시 성고문사건 권양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에서 재판부에 항의했던 민가협회원 이종주어머니가 3

월1일 서울지점 공안 2부의 지휘하에 법정모욕과 공부집행방해 혐의로 전격구속되었다. 이에 민가협회원 50여명은 3월5일 2시부터 NCC 인권위사무실에서 구속학생 어머니 구속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 현장의소리

# “간첩이 죽이기전에 내가 스스로 죽으려고 그랬다”

박종철군이 군부독재의 모진 고문에 시달려 비극의 죽음을 맞이한지 한달도 채 되지 않는 2월달에 들어서만도 우리는 4개의 충격적인 사건에 접하였다.

하나는 지난 2월 19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고문사례보고대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자리에 나온 한 여성노동자는 자신들이 힘없는 노동자이기에 더욱 쉽게 야만적 고문에 노출되어 있음을 호소하면서 '로사의 3인의 명의'로 여성노동자집단 윤간 사건을 폭로하였다. 이 나이 어린 여성노동자들은 현정권의 하수인들로 추정되는 7명의 무리한 들로부터 계획적으로 유인되어 끔찍한 집단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이들은 여자로서의 최후의 수치심마저도 당당하게 벗어던지고 자신들이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당일 북부경찰서에 이들강간범들을 고발하였으나 오히려 노동자라는 이유로 경찰들로부터 갖은 모욕을 당하였다 한다.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노동자들은 이 사건을 변형 고문신고센터에 신고하는 한편 고문사례보고대회에 나와 호소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또 하나의 사건은 전민청련 사업부장 윤여현씨에 대한 구치소폭력

사태이다. 작년 11월6일 구속된 윤씨의 경우 교도관들에 의한 계속적인 집단폭행으로 급기야는 2개월만에 정신이상증세를 일으켰다고 한다. 2월13일 면회한 부인에 따르면 치안본부에서 고문받다 죽은 박종철군의 이야기를 듣고 윤씨는 너무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더니 자살을 하기위해 창틀에 줄을 매어 자신의 목을 조르려 했으며 이 말을 듣고 부인씨는 눈물을 흘리며 '왜 죽으려 했느냐? 했더니 "간첩이 죽이기전에 내가 스스로 죽으려고 그랬다"는 것이다. 또한 면회끝에 윤씨는 부인에게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이제 죽으러간다"는 유언까지 했으니 매사에 의연하던 남편의 고문·폭력에 대한 처절한 항변 앞에서 부인씨는 오열을 하였다 한다.

세번째 사건은 지난 2월25일 부천시성고문사건 권양에 대한 항소심판에서 일어났다. 이날 방정객으로 참석한 서울대구속학생 이기정군의 모친은 재판부가 권양사건에 대한 본질을 계속 호도하자 이를 지적, 담당검사를 질책하였으나 담당검사의 계속적인 업포에 분을 참지 못해 교도관의 모자를 벗겨 검사쪽으로 던져버렸다는 것이다. 서울지검공안부는 이를 법정모욕과 공부

집행방해혐의로 몰아 이군의 어머니를 구속시켰다. 그러나 이군의 어머니가 이에 굴하지 않고 구치소내에서도 계속 항의농성을 벌이자 이번에는 '금치'까지 시켰다는 것이다.

네번째 사건은 2월20일 군부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김용권 상병이다. 보안대의 집요한 관제프락치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끝내 인간적 양심을 지키다 죽은 김상병 앞에서 우리는 그가 자살했던 타살당했던간에 그의 고귀한 성품을 보아야한다. 지난 84년 밝혀졌던 6명의 강제징집 학생사망사건이 아직도 기억에 선한데 3년도 채 못되어 이와같은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 네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박종철군 고문살인사건이후에도 현군부독재정권의 말로는 고문근절이니 인권보장이니 하면서도 고문철폐를 외치는 양심적 민주인사들에게는 더욱 더 고문폭력에 의지하여 탄압할 수밖에 없는 자가당착에 빠진 초라한 모습을 본다. 한편 고문폭력속에서도 심지어는 정신이상증세와 죽음에까지 이르면서도 당당하게 인간적 양심을 선언하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 청년, 학생, 어린 여성노동자들 앞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언자적 모습을 본다.

## 회원단체소식

### EYC 총회 및 정책협의회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는 2월26일부터 28일까지 선교교육원에서 '민중과 더불어 해방의 그날까지'라는 주제로 14개 지구 및 직능별가맹단체 총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및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진보적 기독교 대중운동건설을 위해 총 매진하자'는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메시지에서 총회참석자들은 '현재의 치열한 정치적 공방의 본질이, 우리 민중의 민족자주와 민주화와의 후퇴할 수 없는 요구와 더이상의 이러한 민중각성의 온상을 스스로 제공하는 강압적 군부세력으로서 자신의 안정적 한반도지배가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의 한국정치권력재편 시나리오사이의 대립과 갈등'이라고 보며 기독교청년운동은 '기독교대중에 광범하게 뿌리박은 진보적 대중운동으로 시급히 변신되어야 함'을 고백하였다.

### JOC 25주년사 출판기념회 가져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25주년사 출판기념회가 지난 2월22일 JOC 선배투사 및 현회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동 전진상여학생관에서 열렸다.

### 천도민 총회

지난 2월23일 오전11시부터 소래읍 작은자리회관에서 회원 50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장제정구, 부회장 김혜경, 총무 김영준씨등이 작년과 같이 유임되었다.

### 범가톨릭청년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

지난 2월28일 오후4시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명청주최 제1지구청년연합회 주관으로 150명의 청년신도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친북괴반미 공산혁명사건관련 김영환씨 어머니, 제현의 회그룹사건가족, 민청련 윤여현씨 부인, 서노련사건 최한배씨부인의 고문 사례보고가 있었다. 기도회후 제1지구청년신도들은 성명서를 통해 3월 3일 고문추방민주화국민 평화대행진에 적극 참여할 것 등 5개 항에 걸쳐 결의사항을 낭독하였다.

### KSCF, 87기독교학생 겨울대회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은 지난2월 2일부터 5일까지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힘모아 자주, 뜻모아 민주, 마침내 통일울!!'이란 주제로 하에 기독교학생겨울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기간동안 매일아침 오층일 목

사의 성서연구와 이영희교수의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박영호 교수의 '한미무역마찰과 3저시대의 한국경제', 그리고 기독교 각부분 운동단체와의 만남 등 알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기노련, 사무실 이전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은 그동안 사용하던 영등포사무실에서 종로 5가 기독교회관 8층 810호(EYC 옆)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이전한 사무실의 전화번호는 744 - 2035이다.

### 기독교빈민선교협의회 사무실 안내

지난해 12월에 창립한 기독교빈민선교협의회는 2월부터 종로 5가 기독교회관8층 810호에 사무실을 개설하였다(전화번호 744 - 7445)

### 가톨릭농민회 제18차총회

지난 2월16일부터 18일까지 전주가톨릭센터에서 '민중에게 통일을, 농민에게 해방을!'이란 주제로 120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농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기존의 대의원총회와 이사회를 해체하고 매2년에 1번씩 열리는 대의원대회와 매년 열리는 중앙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현장, 강령채택, 회원수칙이 공표되었다.

# 김용권 상병 의문사 사건조사보고서(1차)

— 서울지방변호사회 —

질문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 변호사 김 상철  
 답변자 박명선(朴命先) 망 김용권의 모  
 주민등록번호 440507-2055312  
 주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6가 47  
 문답일시 1987. 2. 28, 16:30  
 장 소 변호사 김상철법률사무소내

위 조사위원은 박명선씨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아래 망인의 이모 박명옥(1947. 5. 7생), 동생 김용우(1966. 5. 5생), 이종사촌 추성엽(1955. 1. 6생)의 입회 아래 다음과 같이 문답하고, 위 문답요지를 위 조사위원 변호사 사무장 윤수남이 진술서를 작성하다.

## 다 음

문 그간의 관계기록, 관계인의 진술을 검토하였는데 몇가지 의문점과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1986. 8. 3망 김용권이 포천소재 8사단 보안대내에 갔다는 이야기를 어머니께서 들은 때가 언제입니까.  
 답 그 이후(화요일) 또는 3일후(수요일) 용권이 의정부에서 전화로 날 만나자고 하면서 종로 5가의 버스종점으로 나오라고 하여 바로 약속장소로 나가 부근의 공원벚취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 그때 들으신 이야기를 가급적 그대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답 네, 그대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용권이 "엄마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엄마가 아저씨한테 무엇을 부탁한 적이 있어요"라고 하기에 "아니다"라고 하니 갑자기 흥분하면서 "그 새끼가 글썽 내가 찾아 갔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시키는대로만 하면 너는 이제 옷을 벗고 집에 가서 편히 지낼 수 있고, 너의 집이 가난하여 동생학비 대기도 어려운데 너와 너의 동생 등록금도 대주고, 네 용돈과 너희집 생활비도 대주고 빚도 갚아준다"하면서 "이것은 너희 어머니도 원한 것이다"라고 말

을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달라느냐고 물었더니 "글썽 학생앞잡이를 하겠다"고 대답하면서 분해서 벌벌 떨면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그런 부탁을 한적이 있는냐고 물어 보아 나는 절대로 그런적이 없다고 펄쩍 뛰면서 분노에 못이겨

"됐어요. 우리 엄마는 그럴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분노에 못이겨 벌벌 떨면서 "개새끼", "쇠새끼"라고 욕설을 마구 퍼부으면서 "출세에 미친 놈"이라고 말하면서 복수를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문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용권에게 보안부대에서 맞은 일이 있는냐고 물어 보았습니까.

답 그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중풍기가 있어서 몸이 편치를 앓아 그랬던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분을 못참아 말할 때마다 부들 부들 떨기만 하였습니다.

문 추봉엽과 그의 집안과는 어떤 관계가 되는가요.  
 답 저희 언니 박 경선의 시집 칠촌조카뻘 되는데 추봉엽이 대구 경북고등학교를 다니고 저는 대구에 살던 언니집 살림을 돌보아줄때 앞뒤집에서 살아서 당시 추봉엽이 저의 밥도 얻어 먹었고 동갑인 사돈관계로 가까운 처지였습니다.

문 그러면 용권이 포천 보안부대에 만나러 간것은 추봉엽이가 만나자고 해서 간것인가요.

답 당시 추봉엽이는 서오능에 있는 보안부대에 근무하다가 포천으로 전속된지 얼마 안될 때인데 자기 부인이 면회를 가니 금촌아줌마(바로 저를 가르침) 조카를 저한테 한번 오게 하라고 하였다는데 전화가 왔는데 마침 그날 저녁 용권이 왔길래 전해준 일이 있습니다.

문 그러면 용권이 어머니는 추상사가 용권을 왜 보자고 한것으로 알았나요.

답 그전에 제가 추봉엽이한테 용권이는 경영학과를 다녔는데 공병으로 막일을 하여 고생이 많은것 같으니 좀 편한데로 보직을 바꾸어 줄수 없느냐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일로 잘 봐주려고 오라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문 그런데 용권이 그때 보안부대에 가서 두드러 맞았다는 말은 언제 들었나요.

답 용권의 친할머니 상례식이 음력 9. 18일(1986. 10. 21) 이었는데 상례후인 10. 25경 용권이 휴가를 받아 경북 청도에 내려와 그곳 이종사촌들한테 매맞은 이야기를 하여 저희 언니가 그말을 듣고 저에게 전화로 알려와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용권이 서울 올라 왔을때 물어보니 그때 맞게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었습니다.

문 그래서 들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답 그날 추상사가 그런 제의를 하길래 "아저씨 말씀다 하셨습니까" "제 임무는 다했으니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정문까지 걸어나오는데 추상사가 사무실에서 나와서 "저새끼 잡아"하고 고함을 지르자 정문 위병이 총을 등어리에 대고 가자고 하여 다시 끌려 갔는데 그때 추상사는 "개새끼 너하고 나는 인척도 아니야 남남이다"라고 하며 욕설을 하였고 그 옆에는 추상사의 상관 두사람이 듣고 있었는데 추상사가 자기 부하에게 "이 새끼 데리고 가"라고 하며 손짓을 하자 그 사람이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두드러 뺏다고 하였습니다.

문 추상사가 용권이한테 자기들 요구대로 해주면 어떻게 해주겠노라고 할때도 추상사의 상관으로 보이는 두사람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하던가요.

답 네, 그사람들도 그자리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는것 같이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문 그 다른방으로 데리고 간곳은 지하실이라고 하던가요.

답 지하실인지 어딘지 분명히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문 어떻게 맞았다고 하던가요.

답 사정없이 때려서 나중에는 탈진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부인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문 무엇이냐고 하면서 두드러 패던가요.

답 민민부대를 가르쳐 내라고 하면서 때렸는데 제가 너도 민민부대고 물으니 사기는 아니라고 하였는데 아마도 민민부중에 83학번이 있었던 모양이어서 용권이 83학번이니 알것으로 판단하여 때렸다고 하였습니다.

문 용권이 맞고 난 다음 추봉엽이는 용권에게 무어라고 말하였다고 하던가요.

답 돈 5,000원을 차비하라고 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문 그때 추봉엽이가 저녁을 사주었다고 말하지 않던가요.

답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문 그때 때릴때 옷을 벌거벗겼다고 말하지는 않던가요.

답 수도 없이 맞았다고만 하였지 옷을 벗긴지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신경을 쓸까 보아 구체적으로 매맞은 표현은 않은것 같습니다.

문 그후에도 용권이 추상사나 다른 보안대 사람을 자기를 괴롭힌다는 말을 한적이 있습니까.

답 저에게 직접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나 용권이 죽고 난 다음 허병화(중학교 1년 전배이고 대학동창이며 카츄샤로 근무하고 제대한 친구)가 찾아와서 말하여 그 후에도 용권이 의정부 보안대에 자주 붙들려가 들락날락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 허병화는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던가요.

답 그는 용권이 면회도 가고 용권이 외출나오면 만나기도 하였는데 그때 용권이 자기에게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문 용권이 포천 보안부대에 가서 맞아서 그 휴우증이 어떻다고 하던가요.

답 항상 허리에 아프고 또 고막이 터져서 수술도 받는등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문 고막도 그때 맞아 터졌다고 하던가요.

답 처음에는 술을 먹고 꽤 싸움하다 그랬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으나 나중에는 "엄마 내가 왜 허리가 아프고 고막도 터졌는지 알아요? 다 보안대에 가서 매맞아 그랬어요"라고 노래같이 말하였습니다.

문 그러면 왜 처음에는 술먹고 그랬다고 했느냐고 따져 물어 보지는 않았나요.

답 네, 그렇게 물어 보니까 엄마가 걱정을 할까 보아 그랬다고 하였습니다.

문 그러면 용권이 고막을 다치기 전에는 신경정신병치료를 계속 써 왔던가요.

답 그렇지는 않고 고막을 치료하는 도중에 신경정신병치료를 하였다고 합니다.

문 기록에 의하면 용권이 1986. 11. 4용산 121 미군 병원으로 정신병 치료를 위해 후송된 것으로 되었는데 그때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답 원래 매우 차분한 아이인데 그때 제가 보기에도 매우 불안해하고 임빙님빙하는 등 안정을 취해야 하는 것이었지 중증은 아니었습니다.

문 그때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요.

문 그 이야기 말고 추상사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는 없었나요.

답 용권이가 입원한 즉시 인편으로 쪽지였다 “어머니 추상사 여기 와 있어요, 시계 찾아 주세요” 라고 말을 써보낸 일이 있습니다.

문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요.

답 저는 처음에 직감으로 우리 용권이를 감시하려고 온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으나 바로 추상사집으로 전화를 했더니 그집 딸이 자기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면회하러 갔다고 하길래 언제 입원했느냐고 물으니 한달쯤 되었다고 하여 아, 감시하러 온것이 아니고 그놈 천벌을 받아서 제가 먼저 들어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문 추상사가 지금도 수도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 왜 그사람이 입원해 있다고 하던가요.

답 제 생각으로는 자기가 출세를 위해서 용권이를 이용하려던 것이 용권이한테는 수모만 당하고 공연히 매만 때려 내보냈는데 이일로 옷상관한테는 야단만 맞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열한 인간으로 소문이 나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용권이는 1986. 11. 4부터 1987. 1. 9까지 계속 입원을 한 셈인데 대구에서 퇴원하고 집에 들렀던가요.

답 네, 그때 하룻밤을 자고 갔는데 얼굴이 약간 험색하고 허해보이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기분은 좋아보였습니다.

문 그후에도 용권이를 몇번이나 만났는가요.

답 거의 토요일마다 외출하여 집에와서 자고갔습니다.

문 그러면 용권이 사망전에 특별한 이상증세는 없었나요.

답 오히려 얼굴에 통통하게 살도오르고 그랬으나 사망 직전 무렵 우울증이 다시온것 같습니다.

문 용권이가 자살까지하게된 정서적충동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되나요.

답 항상 추상사 생각을하고 몸을 부르르떨듯 분해하고 추상사 옷벗으면 복수한다고 별러왔는데 수도 종합병원에서도 같은입원실에서 추상사를 만났으니 너무충격이 컸던 것이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문 달리 특별히 더 할말이 있는가요.

답 용권이가 포천 보안부대에서 두들겨 맞고 나온 다음 추상사가 돈 5,000원을 출때에 그곳에 있던 상관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어려운일이나 상의할 일이 있으면 자기를 찾아오면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위 작성자 윤 수 남  
확인자 박 명 선  
변호사 김 상 철

## 87년 도시재개발지역 실태(서울)

구	동	총인구수	총세대수	영세민 세대수	총건물수	무허가 건물수	비 고
관악구	신림2	24,458	5,170	2,550			시공회사-현대건설. 조합승인됨.
	신림6	15,447	3,672	290	1,751	815	
	신림7	28,837	6,536	966	3,540	2,765	재개발추진위와 반대추진위가 양존
	신림10	18,517	4,025		2,589	1,780	재개발추진위 구성 87년3월 개발예정
	봉천3	24,705	5,577		3,110	1,801	
	봉천5	23,500	5,421	960	2,702	2,301	
	봉천6	31,969	7,729	474	3,728	1,020	
	봉천9	20,480	4,550	526	2,454	1,368	
구로구	시흥2	26,000	5,713	600	3,135	2,612	재개발추진위 구성. 시공회사 롯데건설
도봉구	상 계				3,801	2,370	개 발 중
	중 계	32,782	7,217	534			택지개발예정지구
	하 계	15,120	3,524	301	1,189	649	계획입안, 택지개발 예정지구 시공: 한일개발
	미아2	27,000	6,800	253	2,732	820	계획입안
	미아6	23,864	5,394	375	2,492	1,548	계획입안

구	동	총인구수	총세대수	영세민 세대수	총건물수	무허가 건물수	비 고
도봉구	미아7	22,272	5,321	399	2,691	1,015	재개발추진위와 반대추진위구성됨 특별한 활동없음
	도봉2	22,410	5,333	299	2,993	2,287	계획안 입안
동대문구	답십2	18,371	4,366	104	2,018	360	추진위 구성 시공: 쌍용 건설 규모: 5동490세대 24,32,38평짜리
	사당3						개 발 중
동작구	사당2	19,865	4,731	146	2,183	1,627	
	상도1	35,089	7,586	250	4,171	1,732	계획입안, 시공: 현대건설 재개발추진위와 반대추진위간의 알력으로 모두 해체됨
	상도2	28,156	7,000	160	3,447		
	혹 석	1,586	3,465	86	1,645	632	추진위구성, 시공: 현대, 한라건설 20평, 15평짜리 8동
마포구	공 덕	16,376	4,279	380	2,112	154	86.7.1-87.12.31까지 아파트 총 건평 9,200평. 시공: 풍림산업
	신공덕	18,437	4,496	126	1,943	647	계획안 입안
	아현3	18,259	4,646	125	2,308	270	
성동구	옥 수	33,578	8,049	240	2,483	573	24-50평 공사중
	근호1	22,354	5,141	136	2,414	787	추진위구성
	근호3	21,575	5,924	119	2,379	1,085	
	응 봉	14,390	3,393	137	1,603	594	추진위구성: 12-15평 20평규모 20동
	행당1	21,542	5,418	100	2,093	654	추진위 구성
	행당2	24,593	6,091	188	2,785	1,563	추진위구성
성북구	돈암1	15,758	3,901	249	1,856	943	추진위 구성중 시공: 한국도시개발
	종암1	27,233	6,460	177	2,688	257	
	동소문	13,434	3,600	99	1,953	506	추진위구성 시공: 한신공영
	정릉1	23,085	5,685	150	2,628	173	
	길음1	17,382	4,598	196	2,399	450	추진위구성 시공: 삼부토건
	하월곡3	16,081	3,677	326	1,529	612	
영등포구	하월곡4	15,791	3,619	268	1,529	388	
	신길5	25,808	5,992	98	2,346	816	계획입안
용산구	청과1	20,090	5,075	41	2,254	262	
종로구	승인2	16,000	3,830	75	2,063	700	계획입안
은평구	응 암						
중 구	신당2	16,999	4,169	116	2,048	375	계획입안
	신당3	25,672	5,506	217	2,612	1,547	추진위구성
	신당4	17,076	4,302	162	2,199	1,088	
강동구	만 리	18,769	5,016	316	2,072	539	
	신당6						개 발 중
강서구	오금동						개발 진행중
	암사동						개발 진행중
강서구	목 동						개발 진행중
	신정동						개발 진행중

우리의 주장

살인정권과 타협없다 | 침묵하는 국민속에  
한뜻으로 투쟁하자! | 군부독재 번식한다

모든 양심수를 당장 석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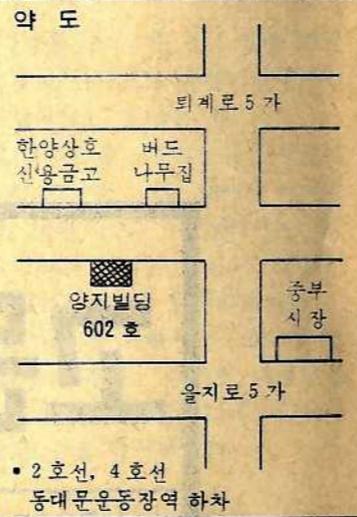
민주인사 압살하는  
고문정권 물러가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각 현장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사람들의 가족 모임입니다.  
또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 땅의 민주화와 민족통일, 민중생존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함께 일하는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비로소 국민적 각성을 불러일으킨 「고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독재정권의 상습적 범죄행위입니다.

그동안 은폐되어 왔던 각 고문사례를 신고 해주시면 성의껏 대처하겠습니다.

우리모두 「고문」을 고발하고 고문자를 처단하여 「고문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서울특별시 중구 삼립동 34-5, 양지빌딩 602호>



전화 269-2653

민가 보관용

제5호 고 박종철군 추모특집호

민주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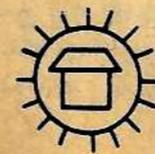
1987. 3. 18. 발행

발행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269-2653)



독재의 살인죄상, 폭로되다

독재정권의 상습적 범죄행위인 고문. 그 움직일 수 있는 명백한 물증을 드디어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그들은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이 어찌 어제 오늘의 일인가. 그동안 은폐되어 왔던 모든 고문은 이제 온 국민의 감시하에 그 전모가 드러나야 한다. 2월 19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고문사례보고대회 모습. 온 국민이 독재의 실상을 들을 수 없었음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이간책동 분쇄하고 하나되어 투쟁하자!

민중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추구했던 한 순결한 젊은이는 가장 추악하고 야만적인 독재의 하수인들의 피물은 손에 의해 이제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고 없다. 그의 육신은 가고 없지만 그의 아름다운 넋은 남아 세속적 안일과 두려운 정치적 무관심속에 갈아 앉아 있던 수많은 민중의 혼을 흔들어 깨웠다. 그는 애써 이웃의 불행에 외면하려 했던 무수한 이들의 꿈속으로, 익숙한 일상결로 다가가 속삭였다. 「침묵하지 말라. 불의를 보고 비켜가지 말라」고 그 젊은 영혼의 목소리는 방방곡곡을 메웠고 드디어 2.7 추도회와 3.3대행진의 물결을 이루었다. 고층빌딩의 옥상에서 최루탄가스에 눈물흘리는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휴지몽치와 손수건을 던져주는 시민의 모습에서, 광고·종로에서 일제히 경적을 울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일찌기 느낄 수 없었던 민중적 일체감을 흔쾌히 맛보았다. 물론 이러한 민중적 열기를 통합하여 살인고문정권타도를 위한 일대전기로 조직할 수 없었던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기회 또는 아울러 가질 수 있었다.

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이 뻔뻔스럽게 법집행을 하겠노라며 수사를 하는 이 뒤집힌 현실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것이지만 그나마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실정법조차도 그 절차를 깰지 못하니 무시한 채 영장없이 불법체포, 장기구금, 살인고문을 행하기를 능사로 앞더니 결국은 박군을 살해해 놓고도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추모회를 원천봉쇄하고 열사들이 모여 있기만 해도 독가스를 발사하는 저 가증스런 군사독재의 작태가 금세기 어느 땅에 또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다름아닌, 강간범 문귀동을 비호하고 고문살인범 조한경과 강진규를 비호해주기 위해 갖은 촌극을 일삼는 독재의 일그러진 모습일 뿐이다.

그러나 어찌 이뿐인가. 박종철 군의 원혼이 아직 이 땅을 맴돌고 있을 지금에도 젊은 피의 끓어오름은 그치지 않고 있다. 의정부 카투사복무중 자신의 내무반 침상에 목을 매단, 시체로 발견된 김용권(24세 서울대 경영학과 2년 휴학중) 군의 의문의 죽음은 부검결과 자살이라고 하나 그가 민민투수배자 수사와 프락치활동 권유공작과 관련하여 포천보안대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2월 18일 19시 영등포 전철역에서 귀대한다며 차를 탄후 시체발견시까지의 사흘동안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80년 이후 강제징집후 복무중 시체로 돌아온 6명의 대학생의 죽음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그 의혹을 씻을 수 없는 경우이다. 또한 내각제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세종문화회관 옆길에서 분신한 표정두(호남대 무역학과 1년 중퇴, 노동자) 군 역시 억압과 기만의 군사독재를 향한 치절한 투쟁이 빚은 죽음이다. 86년 한햇동안만도 군사독재의 쇠사슬을 향해 꽃다운 목숨을 스스로 던져버린 생명들이 16명에 이르렀는데 87년 들고도 벌써 이것이 몇번째의 죽음인가? 아, 언제까지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자신의 신념을 부동켜 안은 채 죽어가는 우리 형제의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가.

감옥은 양심수로 가득차고, 자식없고 통곡하는 어미의 소리는 비통하게 메아리치는데 저 파렴치한 군사독재는 무엇을 음모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독재의 산실 청와대로부터 흘러나온 극비문서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연구」는 88년 이후에도 전두환이 계속 지도력을 행사, 최소한 2,000년도까지 민정당 총재직을 맡으며 허수아비 대통령을 지휘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후계자의 요건으로는 첫째 전두환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하고, 둘째 야심이 없고 대인관계가 무난한 인물로서, 셋째 당총재의 군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군부내 인맥이 없는 중산층 출신의 민간인으로 60대 초반의 인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정당을 현재보다 훨씬 강력한 정당으로 육성발전시키되 야당세의 분산약화를 실현시키며 대통령직선제개헌 요구, 재야정치세력의 반체제활동 격화, 상업지 언론의 비판적 논조격화, 후계자 지명을 둘러싼 여권내의 분열, 광주사태와 관련된 사건재발 등의 문제에 대한 정국불안정 요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일사불란한 야욕이 노골화되고 있는 정후는 너무나 명백히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신민당내의 일부 반민주적 세력의 발호는 연초부터 내각제라는 꼬리표가 붙은 민주화 7개 조항으로 파란을 일으키더니 급기야는 내각제 지지가 공공연히 거론되고 당사자는 호사스럽게도 미국에 외유중임에도 그를 열렬히 추종한다는(?)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당사를 강점하여 당의 회의조차 열수 없었다 하니, 구속자가족이나 노동자들의 농성에는 민첩하게도 움직이던 경찰이 사나흘씩이나 그 사태를 방조함은 무슨 연유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 아닌가. 더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일전에 구속자가족의 이름으로 각 단체에(민정당에까지) 배포된 괴문서의 출처이다. 양김씨를 격렬하게 인식공격하면서 그들의 가족사진까지 친절하게 게재해 놓은 유인물의 내용은 '내 자식들이 교도소에서 고생하고 있는 지금도 소위 민주화를 주도한다는 양김씨는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시키며 일정한 수입도 없이 생활비 몇 천만원을 쓰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86년과 같은 엄청난 살인적 탄압국면에 맞서 구속자의 가족까지 일치단결하여 민주화운동의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앞에서 혈육에 대한 사랑이 곧바로 반독재투쟁열기로 고조되는 것을 두려워 하고 시기하여 그마저 와해시키려는 야비한 이간책동으로 발신인의 주소마저 유형으로 해야 하는(몇개 단체가 발신지로 되돌려 보냈으나 주소불명으로 되돌아 왔다) 유치하고 소아병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물론 추호도 야당의 특정인을 비호하고 응원하려는 의도가 없다. 다만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군사독재와 맞서 투쟁하려는 모든이가 우리의 동지임을 확인할 뿐이다. 살인을 하고도 뉘우치기는 커녕 더더욱 장기집권의 음흉한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는 저 군사독재 악귀들을 물리칠 수단 있다면 악마하고라도 동지가 되고 싶은 우리들이다.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법정에서 독재의 하수인인 사법부를 준엄하게 꾸짖었다하여 구속학생 이기정(서울대 국어교육과 4년) 군의 어머니까지 법정모독으로 또다시 구속되게 이르도록 한 것이다.

우리는 다소 안타깝긴 하지만 민주화운동권 내부의 이견과 운동론의 편차를 모두 인정한다. 이는 모두 민중해방과 민주쟁취라는 공통분모위에 서있는 각자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진심으로 당부한다.

우리 자식과 형제들이 군사독재의 폭력앞에 직접 간접으로 죽음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적시하고 우선 살인정권 타도에 총력을 경주할 수 있기를. 군사독재에게 혈육을 빼앗긴 모든 부모 형제 자매들이여, 잡은 손을 더욱 뜨겁게 잡고 저들의 간교한 이간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민주주의 새벽을 향해 달려나가자. 민주통일을 열망하는 이 시대의 모든 양심 세력들이여, 저 탐욕스런 독재의 무리에 맞서 한줄로 대오를 정비하라.

살인 정권과는 타협없다.

한뜻으로 투쟁하자!

〈추모사〉

# 새 세상에 환한 웃음으로 다시 살아라

—에미들이 돌아간 자식에게—

종철아.

너는 정녕 한줌 재로 바람에 날려갔느냐. 네가 정녕 차디찬 강물속에 흔적없이 쓰러졌단 말이나.  
네 맑은 웃음도 이제는 볼 수 없고 네 손도 네 얼굴도 이제는 쓰다듬어 볼 수 없고, 네 젊은 몸뚱아리  
도 이제는 영영 풀어볼 수 없단 말이나!

종철아, 누구냐?

가난하고 억압받는 네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새 세상에 대한 애타는 갈망으로 끓  
어오르던 네 심장을 갈갈이 활쪼고 마침내 시커멓게 죽여버린 자가 누구냐. 진리를 토해내던 네 싱싱한  
목을 누르고 새 나라를 향해 쉬지않고 달려가던 네 강철같은 몸뚱이를 짓밟고 또 짓밟아 차가운 물속에 처  
박아 영원히 감겨버린 그 원수가 대체 누구란 말이나!

종철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 피어린 5월, 아이가진 엄마의 배를 가르고 일곱살 어린애를 군화  
발로 짓밟개 바로 그 자들이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어 2,000여 동족을 서슴없이 학살한 바로 그 피문  
은 손이 아직도 피에 굶주려 이젠 또 너를 죽였구나.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피같은 땀을 흘리며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죽어갈 때 그 피땀을 가  
로채 제 살편 배를 두드리며 추악한 웃음을 흘리던 바로 그 자들이, 강도질 당한 피와 땀을 찾으려고 일  
어선 우리 아들 딸을 각목으로 두들겨 패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딸의 순결한 몸을 농락하던 그놈들이 너  
를 또 죽이고 말았구나.

그러나 종철아. 그놈들 더러운 손아귀로부터 너를 지켜내지 못한 이 에미들이 또한 너를 죽였구나. 그  
놈들이 온 나라의 자취방이란 방은 다 뒤지고, 거리거리마다엔 살기던 눈으로 서서 너희의 가방을 뒤질  
때 왜 우리 에미들은 방패가 되어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그저 내자식만 생각하는 수많은 눈던 에  
미들이 제 아들딸 믿지 못하고 오히려 저놈들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너희를 놈들의 손아귀에 넘겨줄 때  
왜 우리가 나서서 그 에미들의 이기주의와 무관심을 나무라고 눈뜨게 하지 못했을까! 수천명 네 친구  
들이 얼어붙은 감옥으로 저 무서운 고문실로 끌려갈 때 이 에미들은 왜 총탄이 되어 저놈들을 막아내지  
못했을까!

종철아.

너는 죽음으로 이 못난 에미들을 가르치려 했구나. “어머니, 이땅의 모든 민중이 다 어머니의 아들  
딸입니다”고 가르치려 했구나. 악마의 손아귀로부터 제 새끼를 못지킨 이 에미들은 부끄럽고 죄스러워  
소리도 내지 못하고 통곡한다. 소리없이 삼킨 그 통곡이 에미들 가슴에 쇠조각이 되어 박히는구나. 종철  
아!

그래, 종철아. 이 에미들은 이제 안다. 가난과 멸시속에서 골병든 노동자도, 최루탄 연기속에 우뚝서서  
절규하는 학생들도, 빛더미와 돼지·소파등 속에서 농약을 먹고 죽어가는 농민들도, 단속반의 발길질에  
내동댕이쳐진 좌판을 챙기며 통곡하는 빈민들도 다 같은 아들딸임을, 이 에미들이 목숨걸고 지켜내야 할  
자랑스런 아들 딸임을, 너 살때 눈 못뜨고 너 죽어서야 이제 안다 종철아.

종철아. 이제사 온 민중이 다 제 아들딸임을 알고 네 죽음앞에 모여든 이 에미들을 보아라. 온 나라를

울리고 있는 이 통곡소리, 마침내 분노의 함성이 되어 저 흉악한 살인정권을 쳐부술 이 소리를 들어 보  
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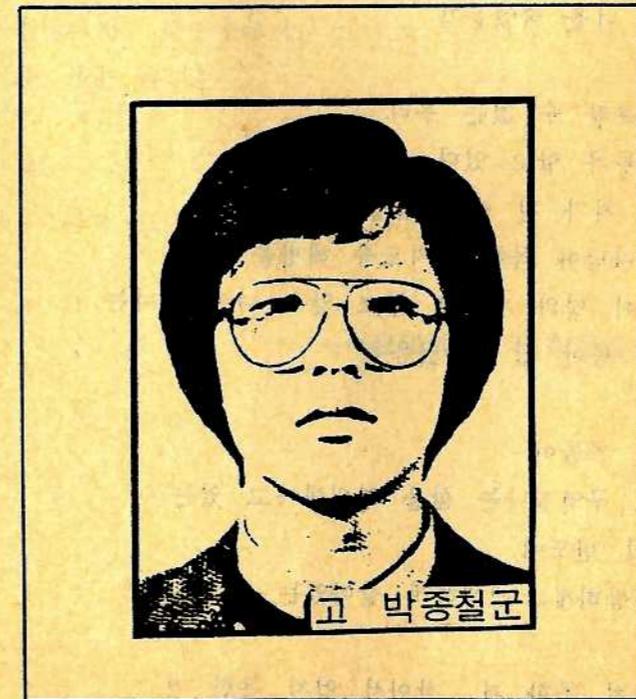
그래. 너는 이 못난 에미들 가슴속에 차가운 쇠조각으로 남아 있거라. 너는 억압과 굴종을, 침묵을 거  
부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거라. 오늘보다 더 혹독한 탄압의 나날이 닥치더  
라도 네 죽음의 피빛 기억만으로도 그 시련과 장벽을 헤쳐나갈 수 있게. 이 응어리진 분노와 원한으로 우  
리들 마음속 모든 이기주의와 패배주의, 무관심, 안일을 뚫고 오직 하나로만 뭉쳐나갈 수 있게.

종철아. 그리하여 이땅의 모든 아들 딸과 에미들이 한덩어리가 되어 더덩실 춤출 해방의 그날, 너는 지  
축을 흔드는 북소리가 되어 드디어 다시 살아라. 증오·고통·착취·절망·눈물뿐인 이 세상을 끝장내  
고 평등·평화·자유·믿음이 넘치는 새 세상을 이루면 그 땅에 태어나 살아갈 우리 손자·손녀 해맑은  
얼굴 위 화안한 웃음으로 부활하여라.

종철아, 죽어서도 우리와 함께 투쟁할 이땅 사천만 민중의 아들 종철아!

우리는 결코 너를 바람으로도 강물로도 한줌 흙으로도 보내지 않겠다. 이 에미들 가슴에 꼭꼭 묻어두  
겠다. 매질도 발길질도 헐박도 물스며든 폐의 고통도 몸서리쳐지는 전기고문의 전율도 모두 잊고 이 에  
미 가슴속에서 편히, 아주 편히 쉬거라.

1987년 2월 27일



〈추모시〉

#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

—고 박종철 군 영전에—

오늘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솟아오르는 분노의 주먹을 쥘다  
 차가운 날  
 한 뼘의 무덤조차 없이  
 언강 눈바람 속으로 날려진  
 너의 죽음을 마주하고  
 죽지않고 살아남아 우리 곁에 맴돌  
 빼앗긴 형제의 넋을 앞에 하고  
 우리는 입술을 깨문다  
 누가 너를 앓아눕는가  
 감히 누가 너를 죽였는가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우리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다  
 너는 밝힌 자가 될 수 없음을  
 끝까지 살아남아 목청 터지도록 해방을 외칠  
 그리하여 이 땅의 사슬을 끊고 앞서 나아갈 너는  
 결코 묶인 몸이 될 수 없음을

너를 삼킨 자들이  
 아직도 그 구역질나는 삶을 영위해가고 있는  
 이 땅, 이 반도에  
 지금도 생생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너  
 철야,  
 살아서 보지 못한 것, 살아서 얻지 못한 것  
 인간자유, 해방  
 죽어서 꿈꾸어 기다릴 너를 생각하며  
 찢어진 가슴으로 약속한다

거짓으로 점철된 이 땅  
 너의 죽음마저 거짓으로 묻히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말하리라  
 빼앗긴 너를 으스스하게 껴안으며 일어서서 말하리라  
 오늘의 분노 오늘의 증오를 모아  
 이 땅의 착취  
 끝날줄 모르는 억압,  
 숨쉬는 것조차 틀어막는 모순덩어리들  
 그 모든 썩어빠진 것들을  
 이제는 끝내주리라  
 이제는 끝장내리라  
 철야,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동지여,  
 마침내 그날  
 우리 모두가 해방춤을 추게 될 그날  
 척박한 이 땅 마른 줄기에서 피어나는  
 눈물뿐인 이 나라의 꽃이 되어라  
 그리하여 무진벌에서, 북만주에서, 그리고 무등에서 배어난  
 너의 목소리를 듣는 우리는  
 그 날,  
 비로소 그날에야  
 뜨거운 눈물을 네게 보내주리라

—서울대언어학과 학우일동—

〈추모시〉

# 무등의 햇불

문병란 (시인)

—고 이재호 군 영전에—

스스로 몸을녹여 어둔밤 밝히고자  
온몸에 불을당겨 낙화가 되었는데  
오 그대 무등의 별 이재호 열사여.

이리때 에워싼 한반도의 캄캄한 밤  
로스케 장굴라 쪽바리 양피늬  
한입에 삼키려 으르렁거리는가.

뉘라서 방관하리, 제국주의 발톱밑에  
갈갈이 찢기운 이 땅의 이 현실  
잠깨라 외치면서 불꽃된 햇불이여.

눈물도 말라붙은 이 나라 이 형제  
쪽바리 그 상처 상기도 저리는데  
더할손, 양피늬와 그 주구의 아픈발톱.

이 상처 이 눈물 어디에 통곡할까  
쫓겨나며 떨어진 그 죽음 부여안고  
이 민족 앞날에 바쳐진 청춘이여.

비록 짧다하나 그 값진 그 삶이  
한반도의 캄캄한 밤 별이 되었나  
보아라, 등터오는 통일애의 저빛살!

못다한 그 청춘 민중에 정을 쏟고  
6천만을 애인으로 그정열 불태웠네  
강산에 뒤덮은꽃 진달래로 타올랐네.

그 짧은 스물 두해 일순에 피어난 꽃  
내일의 통일조국 민족살길 그뿐이라  
절절히 외치는 소리 죽어서도 절규인가.

1987년 2월

〈옥중에서〉

# 사랑의 실천위한 위대한 거부

—전태일 추모시—

장기표 (안양교도소)

먼저 70년내 벽두 경제성장의 허구성과 유신 정권을 폭로·규탄하면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노동자 자신의 각성된 투쟁에 의해서만 쟁취할 수 있음을 밝히기 위해 자기 온몸을 불사른 노동자의 각성된 “위대한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태일 동지의 위대한 힘은 바로 동료 노동자에 대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걸으로!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걸으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고 한 것은 노동자 권리쟁취를 위해, 인간해방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웃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의 삶을 지혜에 충만케 하고, 그의 죽음이 새로운 불길이 되게 했습니다. 전태일동지의 위대한 힘은 빈곤과 질병, 소외와 서러움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의 인간승려였기에 더욱 값집니다. 자기의 배고픔에서 타인의 배고픔을 보았고, 타인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모든 인간은 하나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태일 동지의 삶과 죽음은 투쟁, 사랑의 인간선언입니다.

세상 모든 부귀로부터, 배움으로부터 그리고 다방에서 열차에서 길거리에서 직장에서 모든 곳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거부하는, 고귀한 삶을 거부하는 잘못된 사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전태일 동지의 삶과 죽음은 바로 〈위대한 거부〉였습니다.

이 모든 인간양심과 사랑의 철학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쳐 육신을 불살랐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거부의 불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주체, 인간해방을 선언하는 위대한 창조의 불길입니다. 혹사와 착취, 기만과 억압을 배격하는 거부의 불길입니다. 노동자의 각성된 투쟁만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할 수 있음을 밝히는 투쟁

(노동주체, 인간해방)의 불길입니다. 이 사랑의 불길, 거부의 불길, 창조의 불길은 이 땅의 민주노동운동의 새출발이 되었습니다. 평화시장 골방에서 터져나온 이 노동의 불꽃은 청계천을 가로질러 이화동으로, 동승동으로, 등대문으로, 남대문으로, 신촌으로 마포로, 안암골로 홍릉으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갔습니다. 학원으로, 교회로, 이 땅의 모든 양심을 뒤흔들었습니다.

경제개발과 조국근대화 70년대의 풍요라는 환상 속에서 기만과 억압만이 판을 치고 있을 때에 서울 한복판에서 청계천 하바리 노동인생의 참상을 고발하고 노동자 주체, 인간해방을 선언한 전태일 동지, 우리 양심 가진 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그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는 바로 이것을 선언하기 위해 그의 육신을 불살랐으니,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으로서 대접하라”고 한 〈인간 선언〉이 그 첫째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일요일을 쉬게하라”고 한 〈권리선언〉이 그 둘째요,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고 하면서 노동자의 각성된 투쟁을 호소한 〈투쟁선언〉이 그 셋째입니다. 바로 이 인간선언과 권리선언과 투쟁선언에 기초하여 청계노조가 수립되었으며, 청계노조는 이 땅의 민주노동운동의 상징적 존재로서, 노동운동의 발전은 물론 학생운동을 비롯하여 민주·통일운동의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동지의 분신이 한때의 유명한 사건의 결과가 아님을 더욱 아픈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아들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음을 넘는 고난을 겪으시며, 싸우고, 또 싸우시는 어머니의 불굴의 투쟁을 기억합니다. 청계천 피복노조를 세우고, 지키고, 키워온 선배 노동자들로부터 지금 감옥의 안팎에서 줄기차게 싸우고 있는 청계 노동자들의 〈생명을 건 투쟁〉이 오늘의 청계를 만들어 왔음

을 우리는 눈물과 환희, 분노와 투지로써 되새기고 자 합니다. 아! 저 어린 무학의 소녀에게서 어떻게 저런 투쟁의 힘이 솟아난다는 말인가? 바로 청계의 전통에서 솟아나는 힘이지요, 지혜요, 용기이리라! 어찌 생명을 걸고, 죽음을 각오한 청계노동자의 투쟁의 역사를 일일이 기록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또 다시, 폐쇄의 한파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노를 부채질하고 투쟁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될 뿐이리라. 이미 청계는 복구선언에서 밝혔으니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루리라” 했으니, 누가 청계를 없앨 수 있으랴. 부활의 상징 청계는 깨지면서 더욱 확산되리라!

전태일 동지의 뜻을 이루었고, 생명을 건 투쟁으로 청계를 세우고, 지키고, 키웠으니, 더 큰 부활만이 탄압의 결과이리라!

결국 반노동자적인 정치권력이 존속하는 한,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안 노동자들은 이제 반노동자적, 반민중적인 것의 종식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각국의 노동운동의 발전사는 바로 노동운동의 불법성을 가르칩니다. 노동운동은 현재 노동자를 혹사, 착취,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체의 법률을 거부하고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법을 창조해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은 본질적으로 불법운동이며, 법을 창조, 개정, 폐지해

가는 운동입니다. 창개폐운동이지요, 공교롭게도 내 이름과 비슷해서, 나아말로 본질적으로 불법운동을 하게 되어있는 사람이고, 따라서 노동운동을 해야 하는 사람같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전태일 동지가 근로기준법의 화형식과 함께 자기 몸을 불태운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지키지도 않는 유명무실한 법, 기만하기 위한 법 따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나는 전태일 동지와 그 어머니(그리고 그 형제와), 청계노동자들을 대하면서 <위대한 발견>을 하고, <위대한 철학>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은 사물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지식이 없어도 사물은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을 청계천 노동자들에게서 <발견>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내 삶(투쟁·운동)을 일관하는 사랑의 철학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건 투쟁에서 나는 내 삶의 좌표를 얻었으니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 또한 큼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나 잘 하니, 항상 옆에서 배울 뿐입니다. 바르게 배우는 것도 도우는 것이 될 수 있다 생각할 뿐입니다.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1986. 11. 10.

## <사건일지>

# 오송희, 어떻게 조작되었나

'82년 12월 8일자 동아일보 등 국내 각 신문에 보도돼 알려지게 된 “오송희” 사건은 '80년 이후 발생하게 된 최초의 교사사건으로 세인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지방의, 단일 고교 교사들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80년 이후 주춤하게 된 민중교사운동이 다시 일선교육현장에서 되살아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사건의 발단은 군산지방의 뜻있는 교사들이 교육현실에 대한 부조리한 현실과 비민주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판과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조그마한 몸짓에 불과했다. 그러나 결국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확대되고 관련교사들은 일시에 간첩죄,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명을 쓰고 불법연행,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되어 장기간에 걸친 실형을 언도받고 9명의 관련교사 중 이광용 씨와 박정석씨는 아직도 기나긴 영어의 생활을 하고 있다.

### ☆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참으로 엉뚱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한 대학생이 소지하고 있던 “병든 서울”이라는 월북시인 오장환의 시집이 버스속에서 분실됨으로써 수사자가 착수되고, 관련자 추적중 광주사태 관련 수배자 윤한봉이 거론됨에 따라 사건은 점점 엉뚱한 방향으로 진전되기에 이르렀다. '82년 7월 20일 수사착수에서 '82년 11월 20일 관련자 연행까지 수사당국은 그들의 공명심으로 이 사건을 확대시켜 상부에 보고하게 되고, 헛다리를 짚은 예상 밖의 성과에 상부의 문책이 두려운 나머지 더무니 없는 사건으로 왜곡 조작하게 되었다. 사건발표와 함께 검찰은 공소사실을 유지하기 위해 9명의 관련 피고인에 대한 160개 항목에 걸친 장황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3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과 71점에 달하는 압수물건 등 방대한 증거물들

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방대한 증거서류와 압수물건들은 사건을 구성해내고 조작해내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너무도 미약한 것들이다. 또 경찰이나 검찰이 관련자들로부터 받아낸 자백이라는 것도 '82년 11월 2일 학교에서 수업도중 연행되어 검찰에 송치된 12월 13일까지 불법연행 43일 동안 소위 통닭구이, 비행기 고문, 물고문, 전기고문을 자행하여 받아낸 것들이고 미성년인 학생들과 이웃주민들을 위협하여 받아낸 허위진술을 토대로 한 임의성없는 자백일 따름이었다.

### ☆ 관련자

이광용(군산제일고교 교사)  
 박정석(군산제일고교 교사)  
 전성원( " )  
 이옥렬( " )  
 황윤태( " )  
 조성용(KBS 남원방송국 방송과장, 전교사)  
 김상기(군산제일고교 교사)  
 채규구( " )  
 엄택수( " )

### ☆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첫째, 월북시인의 시집 및 판매금지된 시집을 소지하고 몇명의 교사에게 복사해 준 사실; 검찰은 월북시인 오장환의 “병든 서울”, 임화의 시집 “현해탄” 등을 탐독하고 1959년경부터 전복의 좌경시인 신석정을 직접 접촉하여 영향을 받고 그의 시집 “빙하” “산의 서곡” 등을 탐독하여 부정부패 및 외세의 지배에 대한 저항의식을 새로이 하였고 지적하였다.

소지, 또는 탐독하였다는 서적이라고 증거물로 압수되어 제시된 서적들은 황명걸 시집 “한국의 아

## 학살정권 지원하는

# 미국을 추방하자!

이들”, 백기완저 “자주고름 입에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 송건호등저 “해방전후사의 인식”, C·밀즈의 “들어라 양키들아”, 사르트르의 “지식인을 위한 변명” 김학준의 “러시아 혁명사” 백석의 “여우난 골목 북방에서” 등이다.

둘째, 이북의 방송을 듣고 노래가사 및 통일방안과 시정방침등을 메모해 둔 사실; 이는 민족분단의 깊은 인식을 통해 분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승화하여 분단의 비극을 주제로한 작품을 써보고 싶은 마음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셋째, 정부비판 및 반미적 발언과 월남·중공에 대하여 책을 읽은 소감이나 견해를 동료간에 화제로 삼은 사실

네째, 동료 교사들과 4·19 기념행사가 없어진 것을 개탄하고 학교 뒷산에 올라 4·19 위령제를 지낸 사실; 경찰은 '82년 4월 19일 오후 5시 30분 이광웅, 박정석, 전성원, 이옥렬, 황운태등 5명이 4·19 위령제를 지내며 “오송회”를 조직했다고 했으나 그 시간 황운태씨는 방과 후 3학년 5개반 300여명의 학생을 강당에 모아 놓고 영어특강을 하고 있었으며, 이 사실은 수업일지에 근거로 기재돼 있다(그러나 이 수업일지는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았음)

“오송회”라는 이적단체는 그 이름부터가 경찰의 조작에 의한 것이며 뒤늦게 반증이 밝혀지자 이에 당황한 검찰은 법률용어에도 없는 “평면적 단체구성”이라며 이광웅, 박정석만이 단체를 조직할 의사가 있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단체를 구성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변조하여 기소했다.

“오송회” 관련자들은 경찰과 검찰에 이어 또한번 재판부에 의한 시련을 겪게 되었다.

관련자들은 전주지법의 1심 판결에서 이광웅 징역 5년; 박정석 징역 3년, 전성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밖의 사람들은 선고유예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무죄를 주장한 광주고법의 항소심에서 담당 재판부는 추가로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진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원칙을 무시한 대한민국 사법사상 그 유례가 없는 가중된 형량과 법정구속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렸다. 이광웅은 7년으로, 박정석은 5년으로, 전성원은 3년으로 가중되었으며, 선고유예로 석방되었던 6명은 전원 법정구속되었다.

## ☆ 변호인 변론

황인철 변호사; “오송회” 조직에 관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이광웅, 박정석, 전성원, 이옥렬 황운태는 4·19 위령제를 구실삼아 복귀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고 1982년 4·19, 17:30경 근산제일고교 뒷산에 올라가 4·19 위령제를 지내고 자아비판 등을 한 뒤 모임의 이름을 “오송회”라 정하고 오른손을 포개는 등의 의식을 거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또는 고무동조하는 등 동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오송회”라는 명칭의 단체를 구성하였다고 되어 있기에 대하여 검사는 이 공소사실을 피고인 이광웅 박정석 두 사람에게만 해당한다면서 다른 사람이 기소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부인하기 때문에 이른바 “평면적 공범의 이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송회”가 어떤 성격이던 간에 조직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이미 보아온 증거론에 비추어 명백한 결론이기 때문에 검사의 법률론에 대하여는 따져 볼 필요도 없다. 다만 5명이 사전에 공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의 단체를 구성하였고, 그 명칭도 “오송회”가 되면서 그에 가담한 두사람만이 기소되고 나머지 3사람은 범의를 부인하므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논리의 모순이어서 검찰 스스로가 “오송회” 조직사실 자체에 대해 자신이 없고, 오히려 의심뿐이라는 솔직한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돈명 변호사; 꿈을 적은 일기내용이 처형의 증거로 쓰여진다면 이제 우리나라 형사소송제도는 꿈도 범죄의 증거가 된다는 전세기적 암흑시대로의 환원을 결과하게 될 것이다. 유신말기에 정부비판의 성향을 가진 교직자가 교직에서 추방되고 교사의 유죄판결을 위해 동료교사와 제자가 동원되는 현실이 되살아 있으니 이 오송회 사건 판결의 결과는 이나라 교육의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광웅이 직접 접촉하고 영향을 받았다는 돌아가신 “신석정” 시인을 좌경시인으로 몰아치고 있다. 이고장이 낳았고 문학상까지 수상한 신석정 시인을 좌경으로 매도하는 일은 전주와 전라북도, 그리고 이나라 문화인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월남과 장개석 정권이 비민주성과 부정부패로 망했다고 말한 것이 국의공산계열을 찬양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유신시대의 논리이다. 광주사태

에 대한 토론이 복귀의 선전활동에 동조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 1982년 7월 6일자 미국의 뉴욕타임스 사설도 “~여기에 미국이 개입했다. 위کم장군은 그의 지휘하에 있는 한국군대를 광주작전을 위해 출동시켰으며 미국대사관은 사태의 중재를 요구하는 반체제 인사들의 말을 거절했으며 그 이후로 미국은 전대통령을 완전히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4·19의 의로운 정신을 본받아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때까지 의로운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때까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갑시다”는 것이 어떻게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것이며 복귀를 이롭게 할 목적이 된단 말인가?

## ☆ 최후진술

이광웅; 나는 분단시대에 사는 통일을 기원하는 시인으로서 통일을 주제로 하는 시 한 편을 쓰고 싶었던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나에게 고문과 치욕의 고통만을 안겨주고 “너는 도마위에 고기니 요리만 하면 된다”는 무시무시한 말로 위협하던 형사가 광주사태에 관해서는 경찰도 의문을 금치 못한다고 실토했 때는 감사의 생각까지 했다. 진실된 인간으로 말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정의는 한 부품인 형사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에 존중심까지 가지게 되었다.

박정석; 나는 자유민주주의 아래에서만 자유와 평화가 있음을 확신한다. 미국에 대한 나의 발언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부패정권을 지지하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다. 나는 현실 안목을 지닌 교사로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밝히고 가르치고 싶었다. 오직 부끄럽지 않는 교사가 되려고 노력하였을 뿐이다.

# 고문사례보고회



# 하나님과 어머니와 아내를 차례로 불렀지만...

김병걸 (해적교수·문학평론가)

해방 이후, 40여년 동안에 우리 나라에서 고문당한 사람은 아마 줄잡아 만명, 적어도 수천명은 될 줄 압니다. 그중 한사람인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몸소 당했던 고문사례를 얘기하게 되었는데, 다른 분보다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우선 먼저 고문을 당했던 경험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면, 이 ○○○정권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땅에서 사라지고 없어도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애초 집권 때부터 폭력과 고문과 야만성을 가지고서 국민을 제압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한 시간이나 두 시간으로 모자라겠지만, 만 분도 계시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문당한 것은 1979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명동의 YWCA에서, 최규하씨 대통령 등과 간선제를 절대 반대한다는, 즉 직선제를 주장하는 군중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그 대회 위원장은 함석헌 선생님이셨고 준비위원이 여섯명 있었는데 저 김병걸, 둘째로 김승훈 신부, 셋째로는 박종태 선생, 넷째로 신민당 부총재 양순직 선생, 다섯째 백기완 선생님, 맨 마지막으로 임채정씨, 이렇게 여섯명이었지요. 그날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 저는 그 대회 다음날 중부경찰서 지하실에서 잡혀온 70명 가운데 10명속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 10명이 누구였는지도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임채정씨예요. 거기서 제가 10명과 함께 끌려나오니까 중부서 후문쪽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읍니다. 그때까지만해도 전 자신만만했어요. 왜냐구요? 제가 대학교에서 정치교수 제 1호로 쫓겨난 것이 74년입니다. 74년부터 79년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보부—즉 지금의 안기부지요—에 수없이 잡혀갔읍니다. 그 이유는 「민중회복 국민연합」의 중앙위원과 소분과위원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하고 함께

웅 신부, 홍성우 변호사, 그밖에 여러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수없이 잡혀갔었지요. 그 뒤에도 얼마나 잡혀갔는지 기억도 없읍니다. 경찰에서는 아예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잡혀가도 저한테는 단 한번도 손끝하나 댄적이 없어요. 깡뚱이 대우해 주었지요. 판사람은 몰라도 제겐 그랬읍니다. ○○○이는 집권하기도 전에 보안사령관으로 있을때—제가 끌려간 곳이 바로 보안사였거든요—저를 고문했던것입니다. 그들은 나하고 임채정씨를 묶고 그런식으로 두 사람씩 밧줄로 묶더니 차에 태웠읍니다. 타자마자 헌병들이 군화발로 머리를 짓밟더군요. 머리를 숙이라는 거예요. 20일만에 초죽음이 되어서 나왔는데 나올때까지 제가 있던곳이 보안사령부인줄 몰랐어요. 단지 육군본부인줄 알았지요.

그곳에 도착한 시간은 낮 12시였읍니다. 입구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는 지하실로 가래서 가 보니까 옷을 벗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옷을 하나씩 벗으니까 소리를 버럭 지르며 옷을 6초내로 벗으라는 거예요. 저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옷을 벗기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동정심이 생기지만 훌쩍 벗으면 개처럼 보이게 되지요. 개로 보이니까 돌아가면서 뺏다방망이로 쓰러질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너무 맞아서 전 그만 실신했는데 나를 일어서서 벽에 세워 놓고 엄살 피운다며 군인들이 두줄로 늘어서 차례로 밧줄로 걸어찼는데 먼저 “김일성한테서 얼마나 받았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김일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단니까 얼굴부터 험상궂게 생긴 놈들이 마구 때리더군요.

요새 신문에서 지나간 고문사건이 많이 있는데 우리 YMCA사건의 고문은 현정권에서 직접 제시한 것이기 때문인지 신문에도 안 나가는 것 같읍니다만, 요새 신문보도에서 고문사례를 폭로하며 어찌어찌 매달았고 어찌해서 물 먹었고 그러니 고문을 추방하자고 하는데 참 고마운 일입니다만 그

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런것이 참 사치스럽고 관념적인 말로 느껴집니다. 정말 그렇읍니다.

고문이란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시골의 어린아이들이 논바닥에 나가서 개구리를 한마리 잡아 땅에다 탁 메치지요. 그러면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파르르 떨다 쭉 뺏어버립니다. 고문은 바로 그런것입니다. 여러말 할 것도 없어요. 고문을 당하는 그 당시, 내몸은 완전히 수천도의 열로 끓었읍니다. 김일성과의 관계를 묻고 조총련과의 관계를 물었는데, 내가 일본에서 공부도 했지만 해방 이후 한번도 일본에 간적이 없읍니다. 조총련을 내가 어찌 압니까? 그렇게 얼토당토않은 질문을 던져 놓고 내가 대답을 못하면 옆구리를 마구 찹니다. 그곳에서 실신을 세번 했읍니다. 그리고 또 비웃어도 ‘나는 민주인사입니다, 라고 말하래요. 그러나 그 상황에선 민주인사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민주인사란 말을 안하면 안한다고 또 때리지요. 그리고 나면 내몸은 완전히 걸레조각이 되지요. 그리고는 얹혀 놓고 각목을 무릎사이에 놓고는 꺾꺾 밟읍니다. 뒤통자—용광로속에 있는 듯 했읍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일으켜요 그 다음엔 연필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비뚤니다. 손가락이 완전히 부러져 나갈 정도가 되지요.

내가 대학에 다닐 때에는 목소리가 참 좋았읍니다만 거기에서 고문받으면서 목소리를 다 버렸읍니다. 너무나 무고함과 비명을 질렀기 때문이지요. 거기서 청력이 상실되었고, 성대를 버렸고 지금까지 15분정도도 제대로 못 걸어요.

'84년에 안기부에서 과장과 계장이 집에 왔어요. 저보고 왜 복직안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직하면 내가 하는건데 왜 당신들이 상관이나 화를 냈지요. 복직하면 봉급이 최소한 백만원에서 150만원 까지 되고 자가용까지 굴립니다. 정부에서 복직하라고 계속 종용해 왔지만 전 계속 안하고 있었지요. “너희들이 안기부에서나 왔기에 그나마 집에 들어온 거지, 만약 보안사에서 왔다면 어렵도 없었다. 이 정부가 직접 날 죽이지 않았느냐! 내가 살아온 것은 기적이다. 내가 지금 가진 이 원한은 내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고 소리를 버럭 질렀지요. 이 원한은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민중의 원한입니다. (박수) 착취당하고 짓밟히고 있는 4천만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서민들 역시 이 정부가 죽이고 있는것 아닙니까?

보안사에 있을때 저는 꼬박 일주일을 한잠도 못

잤읍니다. 그때 내몸은 너무 시커멓게 죽어있어서 그런 내몸을 들여다 보며 독백하였읍니다. “아이구 나는 이제 살아나가도 내 마누라가 날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내몸은 동물이나 다름없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외쳤읍니다. “오,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이 지옥에 두셨읍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 전혀 응답이 없었어요. 소리없는 메아리일 뿐이었지요. 그 다음엔 어머니를 불렀읍니다. “어머니! 어머니!—저의 어머니는 북에 계십니다.—어머니는 이 자식을 구할 수가 없나요?” 어머니 목소리도 없었읍니다. 다음엔 아내를 불렀지만 아내도 말이 없었읍니다. 제가 있던 방에서는 옆방에서의 말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고향을 질러도 옆방과는 마치 서울과 모스크바하교의 거리로 느껴졌읍니다. 밤이 되면 어디서가 두런두런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마치 난리가 난 것같이 느껴졌읍니다. 무언가 앞으로 다가오는 것같이 “앞으로 온다! 앞으로 온다!”고 외치다가 실신해요. 조사가 끝난 뒤로는 아침 6시반부터 밤 11시 반까지 정좌를 하고 있어야 했어요. 조금도 못 움직이고, 굶힐 수가 없으며 굶지면 와서 발로 탁 차요. 전 지금 15분 정도도 정좌하지 못합니다만 극한상황에 처하면 사람에게 무한한 힘이 있다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방은 전체가 하얗습니다. 그 흰벽을 바라보고 있으며 벽에서 말들이 막 달려나와서 나에게 다가와 나를 탁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정신착란증세에 빠지면서도 “내가 미친진 말아야 할 텐데, 미친진 말아야지”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 다음엔 파도가 쳐와요. 그리고는 백사장이 나오고, 내가 국민학교 시절 백사장을 마구 뛰어다니는 광경이 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50평생은 꿈이구나. 이게 바로 현실이구나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것도 꿈! 꿈! / 그래, 꿈이었구나!” 여기 있으면 인격이란건 없어요. 완전히 자기비하의 감정, 이것은 완전히 동물적인 겁니다. 지식이 뭐예요. 민주화가 뭐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루는 한놈이 와서—이놈들은 나보다 나이 어린 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병걸아, 밖에서 삼천만 국민들이 너희를 역적으로 몰아부치고 있다. 네 처자식까지도 너를 버리고 갔

# 미망인에게 기록된 능욕.

이영교 (인혁당사형집행자 하재완의 처)

다.”그말이 어찌나 생생하게 들리던지, 나는 그것을 끈이끈대로 믿었어요. 왜? 나에게 이미 이성적 판단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때그날밤 제 일평생 처음으로, 내가 어릴때부터 그렇게 운 적이 없었는데 평평울었어요. “아, 내 처자식까지도 나를 버렸구나, 그때 내가 살아나갔더라도 내 갈곳이 어디냐? 그래도 나의 어머니만은 나를 자식이라고 반겨 주실지도 모른다. 내 마누라가 자식을 데리고 떠나면 내 갈곳은 어머니 품밖에 없다. 내가 만약 살아서 나간다면 나는 해염을 쳐서라도 원산 바다를 건너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수)

어느날은 조사를 한다고 조사실로 데리고 갔는데 조사실이 철장·벽 할것 없이 일제히 새빨갰습니다. 그것도 아마 고문당할때 핏방울 흔적을 표시 안나게 하기 위한 것 같았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는데 뭐가 위에서 탁 떨어져요 난 기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에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기술자가 윗층에서 일을 하다가 물건을 떨어뜨렸다고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날 공갈 위협하기 위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떨어진 자리에 뭐가 있더군요. 그게 바로 가죽띠가 달린 고문용 의자였어요. 처음엔 난 뭘지를 몰랐지요. 날 때리던 고문자가 들어와서 “병걸아, 네 이게 뭘지 아니?—벽쪽에 커다란 헤드라이트가 환하게 켜 있고 그 속에 빔메리가 있고 거기서 전기가 탁 들어오면 전압이 점점 세어지게 됩니다—이게 뭐냐하면 간첩을 죽이는 것이다” 하더군요. 아마 박종철 군도 그 의자에 앉았을 거예요.

“병걸아, 너 저기 앉아 볼래? 저기 앉으면 끝이다. 끝이니까 너 김일성이나 한번 불러봐라” 그 말을 들은 내몸은 삭풍에 시달리는 나뭇잎새처럼 와들와들 떨려요. 이렇게 이삼일이 지나니까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그 다음부터는 약을 줘요. 난 그 약이 독약인 줄 알고 안먹겠다고 하니까 쇠로 된 책받침 같은 것을 가지고 내 팔을 탁! 탁! 탁! 탁! 치는 거예요. 그러자 순식간에 살이 튀어요. “어이구, 지옥이랑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며 할 수 없이 약도 먹고 바르기도 했어요.

그리고서 저는 20일만에 풀려났어요. 그때 나를 내보내느냐 백기완 선생을 내보내느냐 했는데 백기완 선생도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임채정씨는 그 안에 있을 때 잠깐 마주쳤는데 이마와 귀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그걸 보니 내 아픈 것이 더한 것

같아 온몸이 다 부서져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나오던 날 문인들, 신경림씨, 이호철씨, 백기완씨, 김국태씨—이 분은 김근태씨 형입니다만—등 모두 보고 나왔어요.

그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도 한동안 온몸이 새까맣습니다. 지금도 군데군데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또 나 자신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걸음걸이도 그렇고 행동거지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나오자 제 처가 하는 말이 “당신 없는 사이에 국민들의 격려의 전화가 수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이 정권이 얼마나 지독한 사기술과 기만, 폭력과 공갈로 국민들을 제압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1974년 긴급조치 4호발동 민청학련 관련 소위 인혁당이란 누명을 씌워 대법원 판결 24시간도 되기전 이른새벽부터 한꺼번에 8사람의 목을 밧줄에 매달아 처형시킨 몸서리치던 그날 1975년 4월 9일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제 남편은 재판정에서 말했습니다. 어떠한 목적의식과 정관 정책도 없는 내가 맨주먹으로 어떻게 정부를 타도 정복할 수 있으며 정부가 그렇게 빈약한가.

삼선개헌과 한일수교는 국민 다수가 반대한 것으로 안다.

나도 그중의 한 사람으로서 삼선개헌이 통과된 지금 어떻게 6년전의 일로 자식의 가정교사였던 여정남을 고지 할 수 있겠나...

내가 이자리에 서게됨은 중앙정보부의 과잉 충성으로 본다.

육법전서에 적을 알려면 적 속에 뛰어 들어가라는 말이 있듯이 적을 알고싶은 생각에 병식의 몸으로 무리한 시간에 이복방송을 들었다고 해서 사형이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일이다. 하면서 힘 주어 대던말이 지금도 저의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3일씩이나 지하실에 가두어 두고 잠도 재우지 않고 심한 고문으로 탈장도 되고 항문도 빠졌으며 귀도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

특히 괴로운 것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사람 20명만 이름을 말하라 하면서 수없이 맞았으며 술에 만취되어 전기 고문을 할때 3층에서 떨어져 죽고 싶었지만 간첩이란 누명이 싫어서 간신히 참았다. 진술서의 내용도 읽지 않게하고 손을 비틀어 강제로 지장을 찍었다.

대질신문도 허용치 않았다.

변호사의 변론도 시간제한으로 제지 당하였다.

다음부터 고문에 대한 말도 못하게 검사가 피고의 눈이라도 찌를듯 두 손가락을 휘두르며 두눈을 부릅뜨고 너 덜맞아서 그따위 소리 하는 모양인데 나중에 더 때려주지 각오해 하면서 검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광적인 행동을 보였다.

- 유언.
1. 한사람의 장기집권의 말로이다.
  2. 자녀 교육문제와 가족생계는 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3. 어린것들이 무척 보고싶다.
  4.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 금할길 없다.
- 입회 검사가 원하는 담배 한모금도 외면하고 냉

수 한모금만 달라고 마시고는 이세상을 떠난것입니다.

동네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형사들의 감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급우들의 따돌림, 지긋지긋한 생활의 연속에서 국민학교 2학년짜리 둘째딸 소풍날 아이들이 너희 아빠 간첩이다. 하며 따라오면서 점심시간 도시락속에 개미를 잡아 넣어 괴해 다니는데 어떤 엄마의 만류로 멀리 떨어진 나무뒤에 웅크리고 숨어 울면서 점심을 먹었던 말을 듣고 비열한 수사방법과 각 언론인들은 각성하여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살짜리 막내는 동네 아이들의 짓곳은 장난으로 너의 아빠 간첩이라면서 대문밖 닭나무에 새끼줄로 묶어놓고 장난감총으로 총살시키는 장면을 보고도 동네 어른들은 만류는 커녕 웃고있었다 하니 혀를 깨물어 만천하에 외치고 싶었습니다. 제 어린시절엔 독립운동가인 아버지를 왜경에 빼앗겨도 그런 곤욕은 없었습니다.

하느님 천하를 이기는 힘보다 자신을 이기는 힘을 주십사고 얼마나 간곡히 외쳤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저에게 무엇보다 귀중한 보물인 귀여운 5남매를 소중히 키워야 했습니다. 이웃의 냉대속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고 있던 어느날 '79년 10월 13일 밤 10시경 아이들 가을소풍 준비를 해가지고 골목길을 들어서는데 미리 대기하고있던 형사들이 빨리 서(署)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심상찮은 표정으로 재촉하는데 또한번 놀랐습니다.

아이들의 겁에 질린 얼굴 뼈를 깎는 듯한 아픈 현실. 서에 도착하니 평소 보지못한 네사람이 갖은 욕설을 퍼 부으며 의자에 밀어 앉히더니 발을 의자에 얹어 놓고 한사람은 두팔을 뒤로 비틀고 또 한사람은 머리채를 움켜쥐고 양뺨을 수없이 치더니 다음엔 발바닥을 야구방망이로 수없이 때리면서 남편의 내의를 어떤 놈에게 주었느냐. 소리 소리 지르면서 소금에 고추가루를 섞은 것을 물에 타먹이려고 하면서 건방진년들 너희들이 무엇인데 구명운동, 카터대통령 방한 멧세지등 소란을 피우느냐는 것이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데리고 와서 발가벗겨 놓고 네년앞에서 때려야 알겠냐 하면서 마구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12시가 지나서 짙차에 태워 어디로인가 가더니 독방에 밀어 앉히더니 한잠도 재우지않고 네사람이 교대로 양팔과 허벅지를

# 세 아들을 철창너머로 보내고

황인오 · 인혁 · 인욱의 모

꼬집고 때리기를 꼬박 10일 살갓이 부풀어 하늘 하늘 피멍이 비치고 터질 지경인데도 꼭 그자리만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엔 스텐퍼를 벗어서 머리를 수없이 때리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니 너 왜 맞는지 아느냐

너희 남편 내의 어떤 빨갱이놈에게 주었느냐며 손가락에 볼펜을 끼어서 비틀어 손등과 손가락이 무서울 정도로 부어 쳐다만 보아도 눈물이 쏟아져 흘렀습니다. 무릎에 방망이를 끼어 놓고 구두발로 무지하게 발로 밟았고 머리는 공처럼 때리면 앞으로 맞고 뒤로 밀려 벽에 부딪치고 또 쳐박고 또 쳐박고 수차례 나중에는 얼굴도 먹물 뿌리듯 멍들고 부어 전기불이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상반신과 하반신이 하늘 하늘 터질듯 부은 몸을 속치마 차림으로 이방저방 형사들이 근무하는 방으로 끌고 다니면서 나중엔 실장실에 들고 가더니 속치마 차림의 몸을 얻어 놓고 몽둥이로 엉덩이를 일마나 때렸는지 실신을 했는데도 물도 한모금 주지 않고 끌어다 방에 던져놓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또 깨어나니 꿇어앉아 손들고 있으라 하였다. 나중 저희들 한 사람이 코피를 흘려 닦는 순간 목적인 재털이를 들어 제머리를 쪼개어 죽어 나우려고 드는 순간 빼앗기고는 또 몇 차례 얻어맞고 부라우스 끈까지 뜯어버리더군요. 이젠 어쩔 수 없이 입자없는 공처럼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알이 빠질 것같이 아팠습니다. 10일간 잠도 채 재우지않고 의자에서 시달리고 나니 세상만사가 귀찮으며 13일만에 상처를 보더니 상처가 가라 앉으면 귀가시켜 주겠다고 나가서 매맞았다는 말 하지않기로 약속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시해사건이 나고, 이틀만에 꼬박 15일만에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을 불러 이것 저것 다 물어보며 친구도 자연히 떨어졌습니다.

숨처럼 부풀어진 상처가 아무러질 무렵 두달후 또 형사가 와서 상경해야하니 집단숙과 옷을 많이 입고 가자는 것이었어요 서울에 오니 너 하 재완 처냐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가더니 무조건 옷을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나에게 대구에서 고문을 얼마나 당했나 상처를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흥 비쩍 말랐지만 몇년을 서방맛을 못보았을 터인데 건장한 놈 몇놈 부쳐주지 하면서 쇠로 된 야구방망이로 음

부를 마구 쥐어박는데 음부를 가리면 유방을 쥐어박고 유방을 가리면 음부를 쥐어박고 앉으면 머리채를 끌어 일으켜 세워 놓고 음모를 뜯곤 했습니다. 옷을 입은 뒤 혈압이 높아져 위에서 구토증이 나와 어쩔줄 모르는데 피병한다고 발길로 차는 것이었습니다. 소변에 피가 나왔으며 쇠방망이로 엉치를 맞은것이 엉치가 튀어나와 허리가 아프며 양어깨가 손만 대도 통증이 옵니다. 의사의 진단에 힘줄도 늘어져 염증도 생겼고 근육이 파괴되었다 하며 진통제와 위장약 신경통약을 매일 복용치 않고는 뼈마디 마디가 아파서 못견디는 실정입니다. 이젠 의욕도 욕망도 없는 권태뿐입니다. 계엄령과 긴급조치가 해제되었으며, 민청관련 구속자 전원이형 집행정지로 자유를 찾았으니 처형된 분들에게도 복권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 집권 18년동안 역사적인 오점이라면 인혁당 8명을 처형시킨 것이 크나큰 실수였다고 크게 후회했다는 이야기를 전 대통령 윤 보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으며 이만 물러갑니다.

아들 셋을 다 독재정권에게 빼앗긴 이 에미의 심정을 어떻게 필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큰아들 인오가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안기부·치안본부를 전전하며 생각하기에도 소름끼치는 고문을 당하던 그 시각에 에미는 그것도 모르고 먹고 자고있었으니 이 죄와 원한을 다 어찌합니까 우리 인오와 인혁이, 인욱이는 정말 나에게서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오로지 이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그 애들을 희망으로 살아왔습니다. 인오는 지금도 고문후유증으로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런 인오를 보면서 영등포구치소로 인혁이를 만나러, 서대문구치소로 막내 인욱이를 만나러 나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애들이 어째서 이런 고통속에 있어야 하는가요? 인욱이 또한 그 엄청난 고문을 당했으니 이 에미는 삶이 차라리 죽음만 못합니다. 인오의 상고이유서와 인욱이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미스 유니버스대회에 대해 당시 광주사태에 같은 민족적 비극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때 미인대회를 연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사북탄광 광부 출신으로 당시 통사당 단원이던 황인오씨와 통일사회당 노동국장이던 권운상씨등이 나눈 대화가 문제가 되어 폭발물 사용음모 및 계엄령위반으로 징역 10-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여기의 자료는 황인오씨의 상고이유서 중에서 고문에 관계되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상고인은 1980년 6월 27일 정선 경찰서에 체포된 이래 등년 7월 29일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이후 8월 중순까지 현지 강원도 정선경찰서, 치안본부 특별수사대, 등 대공본실, 수사사 검찰부, 서대문 경찰서등 각종 수사기관을 전전하며 온갖 고문을 당해 보았습니다.

상고인이 당한 내용은 1980년 6월 27일 20:00 경부터 등 28일 06:00 까지 10시간동안 정신 경

찰서장 총경권모의 전화지시와 동서 수사과정의 지휘아래(관용 성명 불상)순경 고연근의 7-8 인이 20 여명되는 홀에서 상고인의 손·발목에 수갑을 채우고 코에 물붓기, 코와 입으로 고추가루 물붓기 비너꽃기, 통타구이, 무릎에 몽둥이를 끼우고 3인이 교대로 뛰어내리기, 발가벗고 겨꾸로 매달려서 소위 비행기 타기, 넓은 홀 한가운데 두고 7-8 인이 몽둥이와 고무호스로 못차별 타격하기, 손뼉밑에 바늘찌르기 등등과 치안본부 특별수사대 제 3반에서 대장 안현상 총경의 직접지시에 의해 윤충훈, 오모, 유모에 의해 6월 28일 23:00시부터 7월 8일경까지 현병 이영호 병장등 7,8명이 교대로 들어와 전술한 정선 경찰서의 고문 내용과 대동소이한 폭행, 고문, 잠안재우기등과 7월 8일 이후 남영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본실에서 경위 이근환에 의해 전기의자에 앉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게도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군검찰 취조 과정에서도 상고인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경찰의 엄청난 고문에 강요된 자백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1980년 5월 1일 하오 2시경 수도 경비사령부 검찰부장 검찰관 대위 신진수는 상고인을 검찰부 변소로 데려가 현병 3인을 불러 집단폭행을 지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신체적 고문이라도 상고인 자신에게만 가해졌다면 이토록 서럽고 한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죄없는 여동생까지 끌어다가 신체적 만행을 자행하고 상고인인 오빠로 하여금 이를 목격하도록 했을 때 상고인은 차라리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았습니다.

1980. 6.30 오전 9:00시경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내의 치안본부 특별수사대(합동 수사본부 수사 제 9국 2지대)대장실에서 대장 총경 인현상이 본인과 동소속 제 3반장 권모 경감에게 “이녀석(상고인을 지칭)의 여동생이란 년을 연행해서 본때를

보여줘"라고 하기에 상고인은 그래도 설마하여 그들에게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며 사실을 전부 말한 것이니 제발 믿어주고 죄없는 여동생은 살려주기를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10:00분경 호텔의 식당종업원으로 고생하는 천한 몸이라고, 강원도 광산의 사흘 굶은 개도 안 물어갈 탄광쟁이의 딸이라고 해서 그들은 건물 1층 좌측 제3반의 압수물 창고에서 상고인과 권운상씨의 앞에서 제3반장 권모경감의 지휘아래 오모, 유모수사관과 특히 윤충훈 수사관에 의해 갖은 고생을 하며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제대로 기 한번 펴보지 못하고 자란 여동생을 23세나 되는 가엾은 여동생을 옷을 발가벗기고 수갑을 뒤로 채우고 코에다 물을 들이붓는 만행을 서슴치 않고 자행했던 것입니다. 상고인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견디기 어려운 치욕과 분노와 수치로운 몸으로 감당하며 정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J.

-황인오 상고이유서 중에서-

나는 비록 19세의 어린 나이지만, 조국과 민주정의를 위해 싸우고자 했던 이 땅의 순수한 학생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조국을 위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나의 동지들과 조국앞에 부끄럽게 느낍니다. 오늘 나는 이 법정에서 서게 되기까지 무수히 은폐되어 왔던 나의 진실만을 말하고자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나의 학문을 탐구하고자 대학에 진학했지만, 대학생활의 많은 시간은 나에게 학문 이상으로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 주었고, 그 진실은 진정한 민주국가를 위한 역사를 이루는데 동참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6년 11월 이후 나의 학업과 진실한 행동은 중단되었습니다. 아니 훨씬 그 이전부터 경찰의 이유없는 감시에서 수배로 이어지는 동안, 이미 나는 학업 또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경찰의 온갖 수단으로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경찰에 의해 수배·검거·조사받는 기간동안 철저하게 조작되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는 그들의 조작을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 짓게 하는 최후의 수단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나는 검거된 후 그들이 이미 꾸며 놓은 조서대로 긍정할 것을 강요받았고, 그들이 무자비하게 가하는 불법의 강제고문수사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나는 마침내 굴복되어 그들의 각본대로 증언거리는 등 그들이 요구하는 타협에 응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의 거짓주장은 끝내 나를 용공범으로 몰아세웠고 나는 경찰의 개인적인 욕망과 수사력 과시, 명예를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매스컴의 편파적인 보도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사받던 남영동 대공본실은 입에 올리기조차 소름끼치는 곳입니다. 구치소에 송치되기까지 내가 받은 강제고문은 살인적인 잔인한 것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지금도 불법으로 무차별고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간 이하의 짐승적인 취급 악랄하기까지 한 경찰의 고문에 대해 비로소 폭로할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나는 두눈이 가려진 채 남영동 조사실 지하계단을 하루에도 수차례 오르내리는 공포를 잊기도 전 온방이 붉은색으로 칠해진 징벌방에 가두어 졌고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 각목으로 무차별 구타당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수갑과 포승으로 온몸을 묶고 목욕타올로 입을 틀어막은 후 코로 숨쉬 수밖에 없는 나를 불결한 오물로 가득한 물로 채워진 욕조 속에 머리를 처박아 발버둥칠 때쯤 물에 적신 고추가루를 코속에 퍼부어 극에 달한 죽음의 고통을 가해왔습니다. 설새없이 나를 괴롭히는 악랄하고도 비정한 경찰의 고문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상한 농담지꺼리, 순결하기만 한 우리 집안을 들먹거리 간첩과의 연관을 다그치는 등, 어머니, 형, 누나등 나의 가족까지 의심했습니다. 열토당토 않은 억지, 살인적인 고문은 마침내 나를 정신적으로, 경찰의 타협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비양심적인 체념상태에 빠지게 하였고, 육체적으로는 근육통, 관절통 등 아픈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의 머리, 왼쪽 무릎에는 아직도 그것을 대면할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문이야기는 더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격에 울부짖고 있는 나의 부모님의 감정과 나 자신의 북바쳐 오르는 감정을 더

이상 자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범정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고문을 당한 이가 아니면 그 고통의 광경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문을 당하는 고통보다는 일순간의 죽음을 택하고 싶었던 절실한 심정을 잊지 못합니다. 나는 한동안 이런 고통속에서 체념하여 끝내 경찰과 타협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 종철이가 나를 고문하던 바로 남영동 조사실에서 그들에 의해 비명에 숨겨간 현실에서, 나는 나의 친구와 조국이 더 이상 괴롭히며 쓰러져가고 있는 것을 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요구하는 더 이상의 타협은 점점더 그들의 날조된 선전에 농락당하는 것이며, 이땅의 자유·민주·정의를 거부하는 자들의 동조자가 되는 길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반성문 한장이면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무죄판결을 받게 해 준다는 허무맹랑한 협조를 시시때때로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그들의 조작된 대본에 마지막 광택제 역할을 하는 반성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친구 종철이의 죽음 이후 지금까지 구치소에서 일체의 음식물을 거부하면서 단식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런 의지는 종철이와 같은 제2의 희생자를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까지도 그들의 잘못을 은폐시키려고 이유없이 추모행사를 저지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거둬지는 모순의 현실을, 결코 나는 체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나의 투쟁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구속상태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결백을 밝혀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나는 진실로 결백한 양심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경찰의 거짓조작에 불과한 나의 공소장에 대해 사실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이 발표했던 구학련 조직부장이 아닙니다. 그와같은 직책은 어느곳에도 없으며 나는 경찰이 완벽하게 꾸며놓은 그 조직부장의 역할을 고문에 의한 체념 끝에 쉽게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개인의 욕망과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나를 검거하는데 총력을 다했고 치안본부 수사력의 과시수단 및 편파적 정치 이용물로서 충분히 사용되어 왔습니다. 700여장의 초기조서가 오늘 74장의 공소장으로 축소되어 이 자리에 놓여 있지만, 나는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청에 출두되어 조사받는 기간동안 검사님의 충분한 인격적 대우에도 불구하고 나는 경찰의 공포,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그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나의 체념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심을 위한 이 부정의 근거는 아직 충분히 있습니다.

나는 더이상 짐승취급, 인격말살 및 조작된 결과가 낳은 이유없는 재판을 거부합니다. 나는 진실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의 무죄선언 및 양심선언과 더불어 더이상 이 시대의 희생물이 되고 싶지 않은 나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황인욱 법정진술 중에서-

**고문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

# 교도소, 그 생지옥의 현장

이창제 (10년 수형후 출소함)

전국 교도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는 양손을 등뒤로 힘껏 당겨서 수갑을 채워 놓으면 체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0분 이내에 고통과 호흡곤란으로 실신하는 대포 수정 양손을 뒤로 채우고 포승으로 팔꿈치를 서로 맞닿게 묶어 놓으면 흉부가 찢어질 듯한 고통과 상체의 마비 등으로 20분 이내에 실신하는 닭쪽지, 앞수갑을 채우고 목뒤로 팔을 쳐올려 수갑이 목뒤로 가게 한 후몽둥이를 손과 목사이에 끼워 놓은 비너뽑기, 손발을 묶은 후 거꾸로 천정에 달아매어 놓은 방법, 양발을 묶어서 뒤로 꺾은 후 뒷 수갑된 손과 힘껏 당겨 묶어 놓으면 찢혀진 상태에서 전신에 마비가 오는 방법 이러한 잔학행위로도 관의 목적 달성을 못하면 1차로 책 걸상에 묶어 눕혀놓고 고개를 낮게 허공으로 내린 뒤 주전자를 코구멍에 계속물을 넣고 실신에서 깨어나면 그 다음 큰 물통에 물을 채우고 거꾸로 들어서 1분-2분쯤 반복적으로 물에 목까지 잠기게 하고 그 다음은 고추가루를 주전자 물에 타서 책상에 눕히고 코구멍에 넣어 목적달성이 어려우면 최근에는 교도소에 지급된 외국제 전자봉으로 사지를 전기고문으로 반복하는 실정이다 (본인은 누차 직접 경험한 사실이다).

고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계구의 결과는 대부분 수갑을 손목에 딱 조이게 채우는 데서 자연 손목에 꺾질이 벗겨 지는데 그 정도가 심하면 살이 끈어지고 심한 출혈이 생겨 그 상처가 몇주만에 아물고 그 상흔은 오랜기간 남아 있으며 (그 흔적을 인멸코저 단기수에게는 미리 손목에 수건이나 붕대를 감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뒷 수갑을 며칠씩 계속 채워 놓으면 생존하는 인간인 이상음적임과 고통을 인내하느라 몸부림치다가 자연 증상이 생기게 마련이고 수갑을 풀은 후에도 몇시간 동안은 팔이 앞으로 잘 돌아오지 않고 며칠간은 어깨에 통증을 계속 느끼게 되는 실정이다.

포승을 사용하는 경우는 수갑이 필수적으로 같

이 사용되는데 수갑의 상처 이외에 포승이 강하게 닿는 팔꿈치는 지점이나 팔뚝은 압박 내지 당김으로 피부가 벗겨짐은 일반적 현상이고 심한 경우 피부와 살이 끊어져 출혈과 진물이 계속 흐르는데에도 아랑곳 없이 2~7일간 고문후에는 밤 낮 그대로 묶어두므로 그 고통은 인간 생존의 극한 상황으로 처음에는 고통에 신음하고 그 단계를 지나 정신없이 광기를 나타내면 고통을 지른다거나 처치수 없이는 이유로 방성구(가죽으로 얼굴을 싸고 가운데 엄지손가락 크기의 흑이 입안에 물려 말을 못하게 하는 도구)를 물려 6시간 내지 9시간 있다다 다시 신음 내지 요구에 불응하면 2~3회 계속 입을 막고 고통에 발버둥치면 포승으로 발목과 무릎을 강하게 묶어서 뒤로 구부러 등허리가 휘게 당겨 뒷 수갑된 손목에 연결해 놓는 것이 전국 교도소의 공공연한 현실이다.

위와 같이 묶어 놓고도 식사때가 되면 밥을 먹겠느냐고 물어서 먹겠다고 하면 소위 개밥이라고 하여 뒤로 묶인 상태에서 마루에 놓인 밥(이른바 가다밥)을 입으로 개마냥 그냥 뜯어 먹도록 방치하고 안 먹으면 반항이라고 치부하며 위와 같은 자세에서 대 소변을 그대로 싸야하는데 처음 대변 소변을 쌀 때는 치욕과 불결함을 느끼지만 2~3일만 지나면 인간의 수치나 의지는 간데 없고 동물적 본능과 생존해야겠다는 욕망만 남다가 4~5일이 지나면 생존보다는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쉽게 죽을 수 있는 길을 생각하는 이외에는 아무런 다른 의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교도소에서는 이런 상태로 자살자가 가끔 발생하는데 이는 자살이 아니라 자살을 유도한 살인인 것이며 본인이 누차 경험한 바와 같이 장기수나 가족이 없는 재소자가 교도소에 불법 불의 부조리를 거론하면 죽여 없애기 위해 자신이 죽도록 이렇게 방치하고 며칠씩 기다리는 경우도 가끔 있다).

어느 교도소를 막론하고 수갑 포승 력수갑(가죽

과 철관으로 육중하게 만들어 양손목을 묶어서 허리에 고정시켜 놓는 것)을 몇달내지 심한 경우 1년 이상 계속해서 묶어놓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때는 앞으로 묶어 놓으므로 식사와 대소변도 묶인 상태에서 계속해야 한다) 세수는 할 수도 없고 잠도 장기간 깊이 들 수 없으며 그 불결함은 극에 달해 여름에는 겨드랑이 짓물러 상하고 력수갑 사용 부분은 상처에서 생긴 벌레가 나와도 당국은 아랑곳하지 않은 상태로 악취속에 생활하게 하는 지옥입니다. 법적으로 계구의 사용에는 소장의 허가와 (긴급시는 사후보고) 감독자와 확인이 있어야 함에도 현실에서는 일선 말단 교도관들이 계구 사용의 법정 사유가 없는 경미한 범칙행위에도 대부분 계구를 사용하고 교도관의 감정여하나 기분에 따라 사용되며 계구 사용의 구실을 잡기 위하여 폭언과 욕설 폭행을 시작하다가 반항하면 그때를 기다렸다가 계구사용의 요건을 조작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도소에서의 계구사용은 제지나 진압의 목적보다는 다른 많은 재소자를 위협하며 심리적으로 경계하기 위한 일반 예방적 수련으로 되도록 가혹하고 비참하게 악용하는 것을 당국은 최대의 효과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선 교도(S급) 교사(8급)들은 우선 재소자를 묶어 놓고 조사하다가 상처가 나면 그들만의 밀실범죄인 고문의 결과를 합리화하고 은폐하기 위하여 계구 사용허가를 받게 상식화 되어 있고 소장들 역시 부하직원들을 옹호함이 말썽의 소지를 합리화 시켜 그 자신에게도 유리하므로 추측하면서도 허가해 주고 상처의 정도가 심하거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하면 그 인멸을 위해 관권을 총동원 시키는 전국 교도소가 유사한 점이다.

일선 직원들도 소장의 허가없이 몇시간 고문내지 며칠씩 계구를 사용하다가 자의로 해제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벌의 도구로 이용되는 계구 그것은 공포의 흉기인 것이다.

행형법 자체도 계구 사용부분 후단에서 "기타 필요한 경우"라는 추상적으로 정해진 것이 악용되지 남용의 근원이 되며 그 사용방법 수단이 전혀 없으니 위와 같은 악랄하고 추악한 고문 방법으로 통용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인간 존엄의 자연 사상은 무시되고 생

존권마저 침해되는 변칙된 계구 사용과 고문방법은 특별한 경우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일제시부터 계속 그 도를 잔인하게 발전시켜 온 법외의 공공연한 불법 제도로서 교정시설에 일반적이고 상습화되어 연일 계속되는 현 실정이다.

재소자의 법칙이나 또는 교도관의 감정, 유발된 반항 등 문제가 생기면 관구실로 무조건 끌고 가고, 그곳에서 다루기가 곤란하면 어느 교도소나 보안과 사무실 부근에 직원 휴게실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이 집단 구타의 공공연한 장소인 것이다.

직원 휴게실에 일단 끌려 들어만 가면 바둑 장기 등을 하며 휴식 및 대기를 하던 10여명의 교도관들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둘러서서 구두발길 교도봉 등으로 완전히 기진할 때까지 구타하는 것은 교도관들의 상호 의리이며 휴게실을 공존의 장소로 선전되어야 근무에 편하다는 것이다.

휴게실에서 반항하거나 문제가 큰 것은 직접 지하실로 연행하여 들어가는 데 어느 교도소를 막론하고 보안과 건물에는 반드시 지하시설이 되어 있다. 평소에는 출입소자 대기 조사실 등으로 사용되지만 사고 재소자가 끌려 들어가면 이곳은 고문의 장소로 항상 이용되는 음침한 곳이고 방음이 어느 정도 되는 조건과 타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위와 같은 극악무도한 폭행, 고문을 자행하고 고문이 끝나지 않거나 퇴근시에는 가끔 지하 반공호에 처 넣어 두는 경우가 있다.

어느 교도소이든 대부분 감시망대 밑에는 반공용 지하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묶어서 며칠 또는 1~3개월을 지하 인공호에 넣어 놓는 경우가 있고 교도소의 부정 부패를 파헤치려는 차나 순열관 등 감독관 면담, 청원을 요청하면 순열, 감사 기간중 눈에 뜨이지 않고 고통소리가 들리지 않는 지하 반공호에 처 넣어 둬서 교도소의 상태이다. 어느 교도소에나 형식상 조사실이라는 곳이 설치되어 있고 담당직원이 있지만 조사실은 고문 후 요구대로의 자술서등을 받기 위한 곳이며 교도관들의 사고방식이 억압과 폭력으로 권위주의적으로 누름이 근무의 편함과 안전을 도모한다는 생각과 교도소의 부정 부패는 폭력과 고문으로 증거인멸 및 무마시킬 수 있다는 경험이 교육형의 목적을 퇴행시키고 있다.

헌법상의 고문금지 및 진술 거부권 조항은 말할 것도 없고 형벌이나 교의 특별법이 법전상의 인권

<29p에 계속>

# 영장없이 60일간 장기구금, 처참한 고문

김성식(서울대 77학번)의 모

제헌의회 그룹사건 김성식의 어머니입니다. 검찰은 2월 3일 제헌의회 그룹사건을 발표하면서 이 사건 관련자들이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혁명을 기도하고, 민민투 배후조종을 했고 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였으며 구체적인 혁명 프로그램을 제시했다며 반국가단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발표를 한 2월 3일은 제헌의회 그룹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날로 면회를 요구하는 가족들에게 검사들은 사건 관련자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택수 부장검사는 안기부의 의견서를 그대로 발표했고 사건 관련자들이 장기 불법구금을 당했다고 항의하는 질문에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뻔뻔스럽게 대답했습니다. 2월 7일 박종철 추도식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얼굴도 한번 보지 않은 검찰이 안기부의 의견서를 그대로 발표한 것은 검찰 스스로가 현 정권과 안기부의 하수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 박종철 군의 사건도 불법 강제연행에서 시작되었듯이 이 사건 관련자 전원도 역시 영장없이 불법연행되어 김성식의 경우 11월 28일 연행되어 1월 28일 신병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될 때까지 60일간을 그 지옥같은 안기부에 장기 구금되어 있었고 윤성규, 김찬은 31일간 최민, 이선희 등 나머지 사람들도 20일 이상 불법감금되어 있었으며 가족면회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소위 국가안전기획부라는 곳은 남산 1호터널 옆에 있습니다. 그 좋은 남산이 전부 안기부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 무시무시한 곳으로 어머니들이 거의 매일 찾아가서 자식들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애원도 하다가 싸움도 하다 못해 안기부 후문 남산 1호터널 앞에서 파켓을 들고 시위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회 시위법 위반이라고 어머니들을 중부경찰서로 연행해 가서 그 다음날에야 풀

어주고 짙은 부인들을 30시간 만에야 풀어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안기부로 찾아가서 싸우는 엄마들에게 협박을 하려고 기동대 차에 전투경찰을 40명 가량을 실어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계속된 싸움과 박종철 군의 죽음 앞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불법 장기 구금이 국회에서 문제가 되자 1월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28일에 서울 구치소로 신병을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또 한달을 면회금지를 시켜서 오늘까지 구치소에서 면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문 사실은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성식의 경우 11월 28일 연행된 후 2일동안 잠을 못자게 하고 3일째 되는 날부터 7일동안 계속 전신을 구타하고 잠깐의 문답시간,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야전 침대봉으로 전신을 구타하였으며 구두끝으로 허벅지 뒤를 계속 걷어차 맞은 다리가 두 배로 부어올랐고 똑바로 눕혀놓고 정강이 위로 각목을 올린채 굴리고 짓밟았고, 두팔·두다리를 묶고 두다리 사이에 봉을 끼워 매달고 구타하는 일명 통닭구이 고문을 가하고 앉혀놓고 봉을 끼운채 짓이기고 굴리는 고문을 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배후에 간첩이 있으니 대라고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너는 당에 소속되었음에 틀림없으니 그 당을 대라고 함으로 결국 김성식은 탈진상태에서 간첩혐의와 당조작을 거부하기 위해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는 안기부의 작본에 무조건 항복했으며 윤성규의 경우 통닭구이 고문을 가하면서 코에 물을 붓고 발바닥을 계속 때리면서 조직원의 피신처 한 곳만 대라고 집중적으로 강요당했으며 발가벗겨 놓고 허벅지 엉덩이를 무차별하게 구타하며 짓이겨서 피가 흥건할 정도였고 이렇게 고문이 너무 심해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김철수의 경우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면서 첫날에는 뜨거운 물, 찬물을 번갈아가며 코에 붓는 것을 5시간 가량했고, 계속 구타하며 민족 민주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임을 자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무조건 항복하기까지 열흘동안 계속 이런 고문을 당했으며 그후에는 안기부에서 조사하는 내용에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진행이 됐습니다. 여자인 이선희의 경우는 벽을 향해 세워놓고 각목으로 전신을 구타하고 통닭구이 고문 자세로 발바닥을 구타하다 발의 감각이 없어지면 손을 구타하는 등 고문을 가했고.

유강근의 경우는 연행된 첫날 완전히 발가벗겨 놓고 각목으로 전신을 구타하고, 매달아 놓고 코에 물을 부으며 강령기초 자료를 쓰라고 협박하고 다음 날에는 심지어 성기를 막대기로 마구 때리면서 성불구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위의 고문을 3일간 걸쳐 당한후 유강근은 이 조직이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했으며, 조직의 목적은 폭력혁명이고 제헌의회 그룹이라는 명칭은 그룹내부에서 사용했다고 허위 자백하게 되었고 강령을 그들이 불러주는 대로 자신의 손으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승권의 경우는 2일동안 완전히 벗겨놓고 벽을 향해 서서 각목으로 전신을 구타했으며 벗은 채로 매달아 놓고, 발바닥을 무수히 구타하면서 코에 물을 계속 부어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깨어나면 다시 구타하고 2일이 지났뒤 다시 매달겠다는 위협속에 항복하고 조사받았습니다.

이호균의 경우 들어서자마자 발가벗겨 놓고 7명이 달려들어 3시간동안 무차별한 구타를 하고, 수갑을 양팔에 채운채 각목을 끼워 매달아 발바닥, 엉덩이를 군용 침대봉으로 때렸으며 발바닥의 감각이 없어지면 양다리를 앞으로 뻗게한 다음, 정강이에 각목을 얹어놓고 밟고 굴리는 등 고문을 했습니다.

또한 다리를 구부리고 그 사이에 각목을 넣고 허벅지를 밟았으며 무릎꿇고 앉힌 자세로 허벅지를 때고 고문한 뒤에는 따뜻하게 목욕을 시켜 상처를 풀고 다시 때렸습니다.

그리고 애인 조경숙을 데려다 벗겨놓고 고문하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현재도 이호균은 정강이에 흉터가 나있어 이제야 겨우 딱정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호균이 안기부 유치장에서 잠때 3일 동안 줄곧 밤 9시에서 12시까지 물호르는 소리, 패는 소리, 비명소리 고향과 욕설이 들렸고 아수라장 같았는데 민병두가 당한듯 합니다.

다른 8명도 위와 같은 악랄한 물고문과 계속되는 구타속에서 제헌의회 그룹사건은 조작된 것입니다.

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땅에서 불법변행으로부터 시작하여 불법감금, 고문수사에 의한 용공조작이 진행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80년 전민학련 사건이후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혐의가 씌워져 있습니다. 이 법은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악랄한 법조문입니다.

이렇게 현 정권의 말기적 작태는 최근들어 ML당사건·반제동맹당사건과 같은 용공조작사건에 이어 제헌의회 그룹사건으로 그 극을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사건관련 가족들은 국가안전기획부장 장세동을 불법연행, 불법감금과 고문사실을 들어 2월 12일자로 서울지검에 고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이번 사건이 조작극이라는 것을 계속 선전하며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제국주의 세력과 현 군사독재정권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 중산층 등 다수의 국민이 자유롭게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의침입니다.

우리는 이땅의 정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개인적인 안락함조차 거부하고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싸운 이들 민주투사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악법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의 즉각 철폐와 고문수사와 폭력을 행하는 살인마 정권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며, 우리 가족들은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1. 민주인사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하라!
1. 제헌의회 그룹에 대한 반국가단체 조작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모든 정치적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 0.8평 먹방에서의 12일, 그리고 정신이상

고 발 인 : 최 경자  
 본 적 : 전남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1-126  
 주민등록번호 : 52052-2057621  
 피 고 발 인 : 황용하 (서대문구치소 보안1계  
 감주임), 유병렬 (서대문구치소  
 장), 외 성명미상 교도관 3인.

저는 (민청련 사무국장이었던) 윤여연의 처  
 입니다.

저의 남편 윤여연은 1985년 가을 민청련 사건으  
 로 1여년간 수배당해오다가 1986년 11월 4일  
 밤 10시경 남부경찰서로 연행되어 11월 4일  
 남영동 치안본부로 이송, 조사 중 11월 6일 집  
 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약 10여  
 일간 조사를 받고 11월 14일 검찰로 송치되었  
 습니다. (담당검사 서울지검 공안2부 508 안왕  
 선)

11월 14일 구치소로 이감되는 과정에서 시작  
 된 교도관들에 의한 폭행 및 징벌, 이에 항의한  
 단식등으로 남편은 심한 편집증등 정신이상 증  
 세를 보이게 되었고 결국 선고 공판까지도 앞당  
 겨 석방은 되었으나 현재는 한양대학교 정신과  
 병원에 입원중이며 담당의사의 견해로는 3개월  
 입원치료와 3개월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치료 후에도 만성화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으로서서는 석방의 기쁨보다 청천벽력  
 같은 이런 사태에 즈음하여 이러한 가혹한 폭력  
 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저희 남편과 같  
 은 경우가 앞으로도 속출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소내 폭행 중단과 가해자 엄벌 및 응분의 치료  
 및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고발장  
 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여연이 서대문구치소로 송치되어 구  
 치소에서 받았던 가혹행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래 기록중 서대문구치소 내에서 받은 가혹행  
 위 기록은 윤여연의 금치기간(12.8-12.24)중  
 인 12월 15일 10시경 박성민 변호사와 면담도  
 중 폭로된 사실이며 이후 편집증세를 기록한 내  
 용은 서대문구치소 수감당시 저와의 면회도중 들  
 었던 대화내용을 간추려서 기록한 것입니다.

### 고발내용

11월 14일 : 하오 6시 서대문구치소로 송치되  
 는 명적과정에서 집시법과 국가안보법 위반혐의  
 로 구속된자들을 열밖으로 나오라고 하고는 구

속사유를 기록하라고하여 기록중 옆에서 국가보  
 안법 위반혐의 구속 수감중인 신명식씨가 집단  
 구타당하고 있어서 '왜 그러느냐?'고 물으며  
 그옆으로 갔더니 같은 놈이라고 하며 교도관들  
 로부터 머리를 잡히고 흔들리는 수모를 당하는  
 등 구타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식사시간 동안  
 에도 3분전, 1분전, 10초전 등으로 제한당하  
 였으며 봉사대 재소자들로 하여금 욕설을 퍼붓  
 게 하였습니다.

11월 15일 : 아침점점 시간에 교도관들로부터  
 질차에 따라 직급을 받고난 후 구치소장 면담을  
 구두로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11월 16일 : 다시 구치소장 면담을 집필로 신  
 청하려 했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11월 17일 : 사방에 있는 양심수들이 '85년  
 하반기 소내에서 자행된 폭행을 항의하는 단식  
 투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명적과정과 그  
 이후 질차에서 받았던 폭행에 항의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11월 20일 : 오전 관주임이 저를 호출해 내  
 어 단식을 그만두지 않으면 불이익 당할 수 있다  
 고 협박하였으나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였  
 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  
 오니 단식중이던 다른 양심수들이 식사를 하고있  
 어서 단식을 풀었습니다.

12월 8일 : 단식을 풀 후 20일동안 계속 행  
 형법에 따른 구치소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루  
 워지지않아 저는 다른 양심수들과 함께 하오6시  
 저의 명적과정시 폭행사실과 14일 이전 소내에  
 자행되어 왔던 폭행을 항의하며 약 10여분간 구  
 호를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10여명의 교  
 도관들이 사방내까지 들어와 저를 구타하면서  
 팔다리를 업고 보안2계 사무소 앞까지 와서는  
 수갑을 채우고 온몸을 뽀뽀하여 보안과 지하실  
 로 끌고갔습니다. 거기에는 항의관계로 이미 8  
 명의 학생 양심수들이 끌려와 있었습니다.

12월 9일 : 포승 수감한 채 하루를 보내고 점  
 심때쯤 다른 징벌방으로 옮기며 계속 교도관들  
 로부터 욕설을 받아 제가 '교도관님 왜 욕을 하  
 십니까?' 라고 말하니 교도관이 머리를 잡고  
 구타를 하였습니다. 당시 징벌방에는 이종환, 조  
 유식, 이근희등 여러 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앉  
 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목격할 수 있었습  
 니다. 조금 후 이들 학생들을 다른 방으로 옮기  
 게 하고는 따로 혼자만을 무릎을 꿇게하여 거부  
 하였더니 머리를 잡고 수회 구타하였습니다. 그  
 리고는 다른 양심수들과 함께 각각 제 2보호실

독방으로 옮겨져 24시간 내내 포승수감한 채 식  
 사, 수면, 소변, 대변등을 하였습니다. 식사시간  
 만이라도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였으나 폭행당하  
 였습니다.

12월 10일 : 두통이 심하고 뚜렷한 의상은 없  
 었지만 온 전신이 아프며 쑤시니 치료를 요구  
 한다고 했더니 또다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12월 11일 : 오후 1시경 옆방에 있던 학생들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이를 듣고 교도관  
 들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달려가는  
 교도관들을 쳐다보자 한 교도관이 저에게 '왜  
 보느냐? 눈깔을 빼버릴까보다' 라고 폭언을 하  
 길래 저도 화가나서 '빠라' 라고 대들었습니다.  
 이로인해 2,30명 교도관 중 2명의 교도관이 달  
 려들어 머리를 잡고 빙빙 돌리며 무릎을 짓밟고  
 구둑발로 가슴을 차며 땅바닥에 머리를 짓이기  
 고 전신을 재끼며 차고 때리고 밟고 하는등 이  
 루 형언할 수 없을정도의 살인적 가혹행위를 하  
 였습니다.

12월 12일 : 아침에 징벌방에 와있는 양심수  
 들과 함께 특별한 날이므로 단식을 하기로 약속  
 하고 단식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러자 단식을 주  
 동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를 잡고 빙빙돌리다 머  
 리를 땅바닥에 내리쳐 짓이기고 구타를하였습니다.  
 오후 3시 보안1계 사동 징벌방으로 격리  
 감금되었습니다. 격리 징벌방으로 옮기던 중 교  
 도관이 계속 욕설을 가하자 '왜 욕을 하십니까?'  
 라고 항의하자 항의한다고 무릎을 꿇으라고하여  
 거부하였고 관규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라고 하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황용하와 그의 교도관 3인  
 으로부터 4시간동안 머리를 잡고 흔들기, 꿇어  
 앉히고, 무릎을 밟기, 꼬집고 활퀴고 머리를 잡  
 고 끌고다니는등 수모를 당하였으며 구타당하였  
 습니다. 이로인해 머리카락이 4분의 1쯤 빠졌  
 으며 무릎은 시퍼런 멍이 들었고 가슴이 몹시  
 결리며 심한 두통이 오고 전신이 아프며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통  
 증이 너무 심해 엑스레이, 머리진찰과 치료를 요  
 구하였습니다. 제가 이날 감금되었던 지하 감방  
 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기는 0.6평정도 될까하  
 는데 두팔과 다리를 뻗으면 움직일 수 없을 정  
 도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햇빛이라곤 티끌  
 만치도 세어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곳이며 외  
 부의 공기와의 전혀 통풍이 되지않아 공기는 매  
 우 탁합니다. 그 정도가 어느정도 심하냐하면 단  
 1분만 있어도 호흡곤란을 느끼며 질식하여 쓰  
 러질 정도입니다. 더욱더 놀라울 사실은 그 먹  
 방에 취들이 수시로 드나든다는 것입니다. 이처  
 량 비위생적이고 비좁은 먹방에서 저는 12월 12  
 일부터 24일까지 지냈습니다. 이 기간동안 죽  
 음의 그림자가 엄습해 온것을 느끼면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으며 그 와중에서도 보안1  
 계 감주임 황용하는 오물이 가득찬 변기통을  
 향해 숨쉬게 하고 취침을 할때도 변기통에 코  
 를 대게하고 잠시라도 이탈하면 마구 욕설과 구  
 타를 가하였습니다.

12월 15일 : 처음으로 의무관 (구치소내 고정  
 의사)이 찾아와 어디 아프냐고 물기에 가슴이  
 아프니 파스라도 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통증을 호  
 소하면 예전처럼 또다시 응분을 가할까봐 통증  
 에 대한 아무런 호소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이 지난 후에야 그사람이 의무관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피오증을 늘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온 전신을 가눌 수 없을 정  
 도였습니다. 이와같은 폭행과정에서 윤여연은먼  
 저 폭행을 가한다든지 폭언을 한바가 한번도 없  
 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혹한 폭행을 받은 윤  
 여연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으로서도 몹시 불안증세를 일으켰으며 무언가 항  
 상 의심하고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 윤여연과의 면회과정에서 했던 대화  
 내용을 보면 그 증세가 계속 심각해져가고있음  
 을 현격하게 보여줍니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  
 습니다.

1월 27일 : 방을 5사로 옮겼다. 방이 형편없  
 이 좋지않다.

1월 31일 : 주변에 간첩이 뒤따르고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매사에 신경을 써라.

2월 3일 : 내 주변에는 무엇인가 새로운 음모  
 가 시작되고 있다. 내가 만약 출소한다 할지라  
 도 누군가의 음모에 의해서 재수감될 것이다.  
 구치소 내에도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이 있다.

2월 5일 : 나같은 인간이 뭇안다고 날뛰었는  
 지 모르겠다. 나는 한 인간이고 싶다. 조심해라  
 주변이 수상하다.

2월 7일 : 나는 왜이리 불안한지 모르겠다.  
 두렵다. 공포분위기다. 누군가 나의 신변에 커  
 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처인 최경자에  
 게도 가할지 모르니 주변을 조심해라.

2월 9일 : 재판이 있기전에 한 말씀 드리 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간첩을 신고하러 나왔습니다.  
 (이날은 구형공판이 있었던 날임)

2월 11일 : 소내에 간첩이 있다. 그들은 나에  
 대해 많은것을 알고있다. 심지어는 나의 어린시  
 절, 국민학교, 아버지, 처, 주변의 모든 사람에  
 대해 모두 파악하고 있었으며 나를 죽이겠다고  
 수시로 협박하고 있다. 이곳에서 죽이지 못하면  
 출소한 이후라도 죽이겠다고 한다. 불안해서 식  
 사를 할 수도 없다. 그들은 꼭 나를 죽일 것이  
 다. 나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이며 민족주의자이  
 다. 헌데 2,30 여명이 나에게 접근하며 협박한  
 다. 오늘 저녁에 머리를 조를지도 모른다. 죽음  
 이 두렵다. 내가 왜 이렇게 그들에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참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소내 특수요원 2,30여명이 구치소측과 짜고 교도관, 양심수들까지 안패거리가 되어 나를 죽이려고 하기에 나는 그들을 간첩이라고 고소했다. 나의 신변안전보장을 해다오. 나를 다른 방으로 옮기게 해달라. 담당검사와 만나게 해달라. 그러기 전에는 단식을 풀 수 없다. 난 절대로 비겁하게 자살하지 않겠다. 그들은 타살시켜 놓고 자살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나를 정신이상자로 몰고 있다. 나는 극히 정상이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원한은 꼭 갚겠다.

2월 13일 : 구치소 측에서 나를 물고문으로 죽이려고 했다. 목욕을 하러 가자고 하길래 따라가 물에 손을 넣어보니 너무 뜨거웠다. 뜨거운 물에 나를 사형수들과 함께 목욕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그 사형수들로 하여금 나를 목조아 죽이게 하였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섭다. 두렵다.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곤 장영달씨 뿐이다. 1사로 옮겨달라. 나는 저녁에도 잠을 잘 수 없다. 또한 밥을 먹을 수도 없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일 것이다. 다시는 못만날 것이다. 어쩌면 또 매맞을지도 모른다. (이때 처인 제가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이를 보고 윤여연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네 신변에 무슨일이 생겼지? 그렇지?

위의 사실에서 처럼 제가 저의 남편에게 처음으로 이상이 있다고 느끼게 된것은 남편의 구형 공판날인 12월 9일이었습니다. 이날 윤여연은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재판이 있기전에 판사님께 몇말씀 올리겠다' 하고는 '서울구치소에 간첩이 있어서 신고하러 왔다'며 앞뒤가 뒤죽박죽, 횡설수설한 이야기를 늘어놓은걸로 보아 무엇인가 몹시 쫓기는 듯한 공포감이 엿보였으며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2월 11일 면회과정에서 윤여연은 피해망상 증세가 현격하게 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변과의 차단된 생활에서 잠시 야기될 수 있는 단순한 피해의식일거라고 판단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겨버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그렇게 의연하고 건강했던 남편이 단 며칠 사이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남편이 그렇게도 간곡히 바라던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주선해 보기 위해 검찰청으로 향하였습니다. 담당검사를 만났더니 검사는 '그 사람 정신이 이상해 졌던군 법정에 나와 하는 말을 보면 알지'라고 말하며 '시간이 없으니 다음주에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였습니다.

2월 12일 '85년부터 서대문구치소의 짝 홀수 면회제실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불안해서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서대문구치소로 가서 부소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부소장 면담결과 소내에서도 윤여연이 정신이상 증세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신경안정제까지 투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소장은 차단된 생활로 일시적으로 과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며 대수롭지 않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2월 13일 면회 과정에서 저는 남편의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발작증세가 심했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며칠을 굶고 잠을 못 잤으며 세수도 아니하고 방문을 걸어잠그고 잔다고 하는 등 몹시 불안해 하였으며 그 물결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영동 치안본부에서 고문을 받다 죽은 종철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그이야기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소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살을 하기위해서 창틀에 줄을 매어 목을 조울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왜 죽으려고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간첩이 죽이기전에 내가 스스로 죽으려고 그랬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부탁한다.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유언까지 하였습니다. 교도관들이 데리고 가는데도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오늘이 우리가 이승에서 만나는 마지막 날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 무슨 말을 해야합니까? 말을 잃고 오로지 통곡과 오열로 주체할 수 없는몸을 가누며 차라리 내가 미쳐버리고 싶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에 접하고 나서 저는 13일 다시 부소장 면담신청을 했습니다. 부소장 면담 과정에서 '제가 윤여연의 상태가 몹시 심각한데 앞으로 계속 저런 상태로 방치해 둘 생각입니까?'라고 말했더니 부소장은 '그렇지않아도 외래의사가 들어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현재 구치소의 면회과정은 '85년 하반기 이후 짝 홀수제를 채택하여 이틀에 한번 면회를 할 수 있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14, 15, 16일 3일간 면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허나 저는 상황이 너무 긴박하여 서울구치소 민원실장에게 면회를 허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이전에도 홀 짝수를 가리지 않고 면회를 허용해준 예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민원실장이 대뜸 하는 말이 '윤여연 그사람 정신이상자더군 교도관들끼리 이야기만 해도 간첩이 나타났다고 소리치더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민원실장이란 자도 이와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원리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끝까지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현실과 환상속에서 헤매이는 남편의 소식을 조금이라도 알고자 면회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연찮게 집으로 연락해보니 선고 일자 원래 23일로부터 6일이 앞당겨진 17일

로 변경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면회못한 3,4일간 남편의 소내에서 얼마나 심하게 발작을 하였는지 단숨에 짐작할 수 있었으며 선고일자 변경에는 용인병원 정신신경과 의사의 진료결과 정신분열증으로 진단이 큰 작용을 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7일 1시 30분까지 담당검사가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날짜를 당긴 이유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검사는 검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조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며 본인이 직접 관사에게 찾아가 의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정연옥 관사가 '건강이 안좋다는데 어때냐?'라고 질문을 하자 윤여연은 '정상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관사는 '사건이 경미하여 16개월의 징역을 선고해야 하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라는 선고를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출소를 대비하여 구치소에서 기다리던 중 보안과장은 구내방송을 통해 윤여연의 가족은 보안과로 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면담중 보안과장은 '오늘 이처럼 선고 날짜까지 변경시켜 출소하게 해준것은 구치소의 숨은 공로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바로 제가 구치소측의 가혹행위에 대해서 지적했더니 '역시' 짐작대로다'고 하며 '저희 구치소측은 매우 신경을 써서 잘 봐 주었다'라고 회유하고는 '우리 구치소측이 무엇인가 쫓아서 면담을 요청한것이 아니다'는 등의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질 것에 대비하여 협박을 가 하였습니다.

그날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몹시 불안해 하면서도 오랫동안 겨우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한양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정신이상자!!!

이 무슨 청천벼락입니까? 것처럼 의지력이 강하고 의연하던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정신이상자라는 세인의 주목을 받게 되다니!!!

이런 사실이 꿈이길 바랍니다. 아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젠 제 바로 앞에 놓여진 현실입니다. 저의 남편이 정신이상자가 되어 영혼과 육신이 죽어가고 있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차라리 신체적인 불구가 되었다면 더 낳았을걸 하고 못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선방! 이 얼마나 가슴설레이고 얼마나 소망했던 일입니까?

그러나 저에게 이말은 기쁨보다 슬픔을 아니 슬픔보다 치졸한 분노를 용솟음치게 합니다. 건강할 몸이라면 감옥 안과 밖이 다를게 없었어

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남편 윤여연은 고문과 가혹행위의 또다른 희생제단에 바쳐져 정신이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것입니다.

저는 오로지 저의 남편만을 의지하며 살아 왔습니다. 두살된 사내아이와 세살된 여자아이를 업고 걸으면서 이 시련을 감당해 내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대로 거꾸러져 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정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이땅에 다시는 이러한 고문, 폭행, 용공조작행위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고문에 의해서 조작되어 투옥된 많은 양심수들이 하루빨리 석방되고 이 땅의 민주화가 활짝 피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염원하며 저도 그날까지 결코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줄기차게 싸울것입니다. 미약한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함께 힘을 합하여 투쟁해 주실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987년 2월 24일

윤여연의 처 최경자



<23P에서 계속>

이고 국가기관의 밀실 또는 별실에서 공공연히 계속된다면 언제든 법없이 고문 못한 경우가 없듯이 그 제도적 장치보다는 운용면이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감독 제도가 있어야만 재소자인 신체와 정신 생명은 보장될 수 있다. 그외에도 불펜을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넣고 비트는 방법, 추운 겨울에 옷을 훌랑 벗기고 찬물을 끼얹어 시멘트 바닥에 앉혀놓는 방법. 삼복더위에 1평 정도 방에 8~10명 정도 넣어서 앉지도 못하고 더위에 고통받게 하는 방법. 지하실과 조사실 지하 반공호에서 계속 잠을 못자게 하는 방법. 겨울에 옷을 벗기고 묶은 뒤 독방에 넣어서 추위로 고통받게 하는 방법. 독방에 넣고 창문을 메어 버리고 침구를 주지 않는 방법 (대부분 실사와 몸살을 동반하는데 치료를 해주지 않아 더욱 고통을 받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 < 결의문 >

# 만천하에 드러난 살인범죄 행위

이제 전두환 군사독재의 살인고문 범죄행위의 가  
공할 죄상들이 하나하나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다.  
고 박종철군 살인사건은 그동안 민주쟁취와 민족통  
일의 대의에 헌신해온 양심인들을 관재공산주의자  
로 만들어 내기에 혈안이 된 현 정권이 상습적으  
로 자행해온 악랄한 고문수사 관행이 초래한 필연  
적 결과일 뿐이다. 우리는 5.17 이후 강제징집당  
해 군복무 중 갑자기 시체로 돌아온 여섯대학생들  
을 비롯하여 서울대 우종원, 김성수, 대공수사요원  
에 연행된 후 8일만에 야산동굴에서 자살체로 위  
장된 채 발견된 인천연안가스 노동자 신호수 등이  
모든 의문의 죽음들이 현 정권의 잔인무도한 고문  
과 관련되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인간의  
심신을 파괴하여 드디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고문은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 옥중에 가  
두어 놓은 수천 양심수에게도 어김없이 가해되고  
있음을 또한 고발한다. 이제 아리따운 젊은 목숨이  
더러운 고문자의 손에 의해 숨겨간 이 비통한 현  
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자식과 형제자매를 고문  
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그 실체는 무엇이며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것인지 분명  
히 직시하고 이를 모든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절대  
절명의 소명을 부여받았다. 명백한 살인범죄를 저  
지른 자들이 뻔뻔스럽게 인권옹호기구니 제도개선  
이니 하고 떠들어대는 것은 뉘우치기는 커녕 어떻  
게든 숫구치는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려는 간교한  
기만술책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단언하건데  
고문은 저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수사관의 의욕이  
나 개인적 부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이  
천여 광주민중을 무자비하게 살육하고 등장한 전두  
환 정권의 야만적 폭력성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 광주학살의 원흉인 자를 내무장관에 앉  
혀놓은 저의가 무엇인지는 너무나 명백하다.

이제 우리는 도둑이 도둑을 잡아주겠다는 감언  
이설에 속을 어리석은 국민이 될 수 없다. 고문없  
는 세상,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일정한 집단의 투  
쟁에 의해서만 결코 쟁취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  
다.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 서있는 바로 그 위치  
에서 고문을 성토하고 고문자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것이 바로 살인독재의 죄상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의 이 고문사례 보고회는 그동안 저들이 국  
회에서 「고문이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고 온 국민을 대상으로 낯두꺼운 거짓말을 일삼아  
온 것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반증해 보였다. 우리는  
이 보고회에서 드러난 고문사례의 진상이 규명되고  
고문자가 전국민 앞에 공개리에 처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아울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야말로 한 하늘 아  
래 설 수 없는 원수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며 우리  
의 강탈당한 자유와 인간존엄을 쟁취하는 그날까  
지 흔들림없이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

### < 우리의 주장 >

- 고문수사 자행하는 보안사, 치안본부, 안기부 해  
체하라!
- 살인고문 책임자와 고문자를 처단하라!
- 살인고문 사주하는 전두환은 물러가라!
- 살인고문 부르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1987. 2. 19.

고문사례보고회 참석자 일동

## 소식

< 안기부 불법연행사건 관련 가족, 항의 시위 후  
연행 >

안기부 불법연행사건 관련가족 8명이 1월 15  
일 오후 4시경 “불법수사 중지” “연행자 석방”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다 중부  
서로 연행되었다. 이들중 5명은 16일 새벽에 풀  
려났으나 윤성구 씨 부인 천선혜 씨, 김성식 씨 부  
인 김남주 씨, 김철수 씨, 박인순 씨 등 4명은 16  
일. 저녁 10시 30분경에야 석방되었다.

< 민가협회원 70명, 16일 오후 5시 30분 치  
본앞서 농성 >

5시 50분경 15명이 용산서에 연행. 17일 오  
후 4시에 풀려났다. < · 박종철을 살려내라. · 인간  
도살장 치안본부 박살내자. · 불법구금자 전원 석  
방하라. · 고문수사 중단하라. · 고문·살인정권 물  
러가라 등을 주장 >.

한편 연행된 가족들은 인적사항을 쓰고 나가라는 경찰  
측의 요구를 거부하며 맞서다 석방.

경찰서 밖에서 성대 이강백 군 모친 윤인자 씨,  
성대 이상일 군 모친 이석배 씨 등 50여명이 “연  
행자를 석방하지 않으면 우리도 들어가겠다”며 오  
후 6시경부터 전경 30여명과 실랑이를 벌이다 12  
시경 해산되었다.

< 여성단체연합회 23개의 선 가두시위 >

여성평우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등 23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  
연합 생존권대책위원회 회원 50여명이 1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남영동 금성극장 앞  
에서 검은 옷에 배수건을 머리에 쓰고 『우리들의 아  
들 박종철 군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조사를 낭독  
하는 가운데 경찰의 고문살인으로 숨진 박종철 군  
추모시위를 벌였다.

또한 1백여명의 회원은 22일 오전 10시부터 갈  
월동 파리다방앞 골목에서 「모든 경찰의 살인적  
수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박종  
철 군 살려내라』 『폭력정권 물러가라』는 등의 구  
호를 외치며 박종철 군 고문치사건에 항의하는 시  
위를 벌이다 1시간 만에 자진 해산했다.

< 영등포 교도소 양심수들, 고문살인 수사관 송  
치에 항의하다 무자비한 집단폭행 당해 >

영등포교도소 양심수 30여명이 영등포교도소에 구  
속 수감된 고 박종철 군 고문살인 수사관 2명이송  
치 사실을 알고 1월 21일 항의 농성을 벌였다.

교도관들은 양심수 전원을 짓이기고 무차별 구타  
하여 이 교도소에 수감중인 황희수 군 등이 많이 다  
쳤으며 대부분 금치조치를 당했다고 한다.

< 땅들아 통곡하라! 민족이여 울분하라! >

오후 6시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한국기독교청년  
협의회(EYC),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의  
주관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한 고 박종철  
형제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예배가 1월 26일 개최  
되었다.

오충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헌화  
및 분향, 경위보고, 조가, 학생대표, 민가협회원(김  
춘옥), 교수(성내운), 변호사(황산성)의 추모  
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고 박종철 군은 1977년 부산 토성국민학교를 졸  
업하고, 1984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에  
입학하여 과대표와 학회장을 맡았었다. 1985년 5  
월 사당동 가두시위로, 1985년 6월 구로동 가두  
시위로 구류를 살았고, 1986년 4월 신당동 가두  
시위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살았었는데,  
1987년 1월 13일 자정 치안본부 대공분실 요원  
에 의해 연행되어 1월 14일 11시경 치본 대공분  
실에서 고문 살인으로 운명했다.

< 서울 구치소 고문살인항의 단식 >

1월 24일(토),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중인 양  
심수 전원인 1월 22일~23일부터 박종철 군 고  
문살인에 대한 항의와 추모의 shouting, 단식을 시  
작했다. 그러자 9사, 10사의 학생들이 구타당하  
고 손·발을 뽕뽕뽕은채 정벌방에 처넣어졌다. 이에  
구속자 가족들 20여명은 소내 면회대기실에서 “박  
종철 군을 살려내라” “소내고문 철폐하라” “격일  
제를 폐지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40여분간  
항의 농성을 벌였다.

〈천사협, 정평위 추모미사〉

1월 26일(월),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6시 30분 명동성당에서 민가협, 민주협, 여성단체연합 생존권 대책 위소속 재야인사와 신도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수환 추기경 집전으로 「박종철 군 추모 및 고문근절을 위한 인권회복미사」를 가졌다.

김추기경은 강론에서 『박군을 고문치사케 한 수사관은 물론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공권력을 행사한 위장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남의 일처럼 무관심했던 우리 모두가 「우리는 살인죄를 범했다」라고 소리치며 진심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 박군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는 이 정권에 대해 하고 싶은 한마디 말은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는 것이다…… 현 정권은 합의개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론기본법 개폐를 논의하겠다고 구속 자석방도 고려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언론자유와 구속자의 사면 및 복권은 협의대상이 될 수 없는 무조건적이며 원천적인 선결문제』라고 말했다.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박군사건에서 관행을 깨고 현장검증을 실황조사로 대체한 점 등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과정으로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오 8시 30분경 미사를 마친 50여명의 사제단과 신자, 학생 등 3천여명은 대형철제십자가, 10여개의 나무십자가와 「살인고문·강간 자행하는 군부독재 물러가라」「고문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우리 종철이를 두번 죽이지 말라」등의 대형 플래카드와 피켓 1백여개를 들고 정문앞에 나와 5백여명의 전경과 대치하며 1시간여의 침묵시위를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하오부터 명동일대에 2천 5백명의 정사복경찰을 배치, 유인물과 화염병의 반입을 막았으며 하오 6시 30분부터 울지로 입구와 명동입구의 차량통행을 완전 차단했다.

이날 침묵시위 과정에서 「가톨릭대학생연합 제헌의회소집투쟁위원회」 명의로된 성명서,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고문살인의 종식을 위한 우리의 선언」이 낭독됐다.

사제단은 성명을 통해 △ 박군 죽음의 진실을 철저하게 밝혀라. △ 고문사건 책임자 엄단·고문수사기관 해체. △ 전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마음을 비우고 퇴진하라 등 4개항을 주장했다.

맞은편 YWCA건물과 성당주변 빌딩에서는 5백여명의 시민들이 침묵시위 광경을 지켜보며 박수·환호를 보냈다.

3천여명의 학생·신자들은 「산자여 따르라」, 「출정가」 등의 노래와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3차례에 걸쳐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는데 민가협소속회원 50여명도 함께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밤 10시 30분경 성당측의 만류로 자진해산 했다.

〈2·7 고 박종철 군 범국민 추도회〉

2월 7일, 지난 1월 15일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서 경찰의 무자비한 고문에 의해 살해된 고 박종철 군에 대한 국민추도회가 서울을 비롯한 부산·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6만여명 이상 시민이 준비위원이 되었던 전국이래 초유의 범국민추도회인 이번 추도회는 온 국민의 뜨거운 참여와 지지속에서 준비되었고 이땅에서 고문을 비롯한 모든 인권유린 행위를 영원히 추방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기반하여 평화적이고 엄숙하게 거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추도회 준비과정에서부터 군부독재정권의 온갖 중상모략 선전과 방해책동그리고 추도회 자체를 무력으로 원천 봉쇄하는 야만적인 작태로 말미암아 추도회는 최루탄 가스가 자욱한 거리에서 치뤄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민대중은 이러한 군부독재정권의 발악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추도회 참석을 위해 수만의 인파를 이루었고 최루탄 가스가 자욱한 시가지에서 물러섬이 없이 추도목념을 올리고 ‘독재타도 민주쟁취’를 목이 터져라 외쳤으며 오후 2시에는 종소리와 경적소리가 온 시내를 뒤덮었다. 전국 각지에서 있었던 고 박종철 군에 대한 이러한 추도의식은 온 국민 스스로 자신의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여 제2의 박종철이 있게해서는 안된다는 결단의 표현이었고 이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온 국민의 민주화 물결이었다.

본 민가협 어머니들과 회원들은 명동성당 내에서, 조흥은행 본점앞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추도회의 거행을 위해 12시경부터 종로1가 태을당에서 집결. 명동을 향하여 출발 시가행진의 선두에 서서 열심히 참가하는가 하면 소위 ‘88 특공대’라는 깡패놈들의 무자비한 연행과정에서 많은 학생, 젊은이들을 구출해 내었으며, 깡패놈들과의 몸싸움도 서슴치 않고 나서서 실행하였다. 그러한 적극적 참여과정에서 고 박영진 열사 아버지, 김봉환 어머니, 김영옥 어머님께서 각각 북부, 구로경찰서로 연행, 구류처분을 받았다.

〈민가협 고문사례보고회〉

2월 19일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현 정권의 고박종철 군의 고문살인을 계기로 폭압적·야만적 행위를 규탄하고 고 박군의 죽음을 추모하는 뜻을 기리는 일련의 상황과 끊임없이, 여전히 저질러지고 있는 고문과 인권탄압 행위를 뿌리뽑고 우리 국민 모두의 국민적 권리의 쟁취를 위한 계속적인 투쟁의 일환으로 본 민가협은 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수사기관(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과 교도소에서 자행되었던 살인적인 고문사례를 폭로하는 보고회를 가졌다.

인혁당(이영교 고 하재완 처), 재일동포간첩단(민향숙)사건, 80년도 YWCA사건(백기완, 김병걸 씨의 경우), 부산부림사건(김재규 동생 김희숙), 교도소 폭행, 고문(이창제, 윤여연 처), 노동자탄압, 윤간(최한배 처 김종민), 반제동맹당(이민영 모), 제헌의회그룹(김성식 모) 등의 고문사례가 폭로되었다.

이 보고회는 민중의례, 대화사(박용길 장로님), 격려사(계훈제 민가 고문), 보고회, 결의문 채택 위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주교도소 20여명, 교도소측에 의해 집단폭행 당하다〉

전주교도소 양심수 25명 전원이 교도소측의 집단폭행, 금치조치, 일반 재소자를 사주한 양심수 폭행 등에 항의하여 2월 12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하여 7일째인 18일 현재 20명이 계속 단식농성중이며, 가족들도 16일부터 전민협 사무실에서 계속 농성중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12일 「해방전복」이라는 대중정치 신문을 발간 배포했다는 혐의로 국보·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북대생 전용균·신종백·이광재의 1차 재판이 있었는데, 당일 25명의 미결수 학생들은 그들의 출정을 구호로 격려했고 그 과정에서 교도관들과 충돌, 폭행사태가 발발했다. 이로 인해 5명(김순덕·김윤덕·신형우·이정엽·김형근) 등이 포승되어 입에 자갈을 물린 채 징벌방으로 끌려가 1달간의 금치조치를 당했다.

이에 양심수 25명 전원은 △ 인권교도관을 선정, 상담. △ 교도소 폭행 사주한 안주임 파면. △ 금치해제를 주장하며 농성에 돌입했으나 교도소측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확인된 폭

행사태는 교도소측이 사내의 폭력배(수감자) ‘월드컵과’ 이득염이란 자를 사주하여 학생들에게 연탄집게 등으로 폭행하고 얼굴에 침을 뱉게 하였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확인한 전북 인권위는 13일 임원 6명이 교도소장을 면담, 항의하고 금치를 풀것을 요구했으나 교도소측은 이를 거절했다. 16일 오후 1시경 교도소내에서 학생들의 구호·노래소리 합성이 교도소 앞에 몰려간 가족들에게 들렸으며 이후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앰블런스가 들어갔으나 그후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16일, 20여명의 가족들이 보안과장, 주임을 만나 답변을 요구하자 교도소측은 폭행 교도관은 부서이동 등 인책을 하겠다고 하며 폭행부분은 인정하였으나 그의 문제는 답변을 회피하였다고 한다. 한편 가족들은 18일 오전, 단식을 풀었다.

〈대구교도소 수감자 가족들, 교도소접견실서 농성〉

2월 14일, 대구교도소내에서 이형규 군(87. 1. 교내시위 주도 등과 관련하여 구속·영남대)이 교도관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해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 이에 항의하여 18일 현재 구속자 가족들과 대구지역 민주화 운동단체회원 등 40여명이 대구교도소 접견실에서 항의 농성중이다. 이형규 군은 14일 교도관이 일반재소자를 구타하자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건방지다”며 보안과로 끌려가 교도관들에게 심한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이 사실은 16일 미문화원 절거농성사건 항조심 공판을 받으러 법정에 나온 학생들을 통해 가족들에게 알려졌다.

가족들은 공판후 바로 교도소로 가서 소장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교도소측이 일방적으로 거절하여 가족들은 교도소 접견실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17일에는 대구인권위·대구EYC 회원들이 농성에 동참하였는데 교도소측은 17일 밤 가족들을 무차별하게 끌어내어 이 과정에서 많은 가족들이 머리를 심하게 뺨히는 등 부상을 입었으며 이군의 어머니는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 18일현재도 가족들은 교도소에서 계속 농성중이며 소내 양심수들은 전원 단식에 돌입, 일체 면회를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 가족들은 작년 8월 발생한 소내폭행 사건때 고환을 군화발에 차여 소변에 피가 섞여나오고 잠을 제대로 잘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아 국과 물을 먹지 못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최덕희 씨(달구별교회 전 청년회장) 입원문제도 함께 해결해 줄것을 요구.

〈카슈사였던 서울대 경영학과 83 학번 김용권의 죽음〉

◎ 진정서

• 제목: 고문 및 의문의 사망에 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의 처벌.

• 진정인: 김용권 상병의 부-김영두, 모-박명선.

• 사건의 개요: 1985. 10. 18. 카슈사에 입대.

1986년 8경부터 민민투 관련 수배자 소재파악을 구실로 비공식적으로(인척관계; 외 8촌을 빌미 삼아 추봉엽이란 자가 그의 부인을 통하여 전화연락 소환) 보안대에 소환되어 고문을 당한 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중 1987년 2월 20일 사망. 현재 용산 미 8군 병원 영안실에 안치.

• 가정환경: 3남 1녀 중 장남. 1983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 군지원 입대.

◎ 사건의 발생

군복무 약 1년 뒤인 1986년 8경부터 민민투 관련 수배자 소재지 수사를 위하여 추봉엽 상사로부터 군 보안대로 소환되어 수사와 고문을 당함.

상사 추봉엽은 의문의 사망을 당한 김용권 상병과 인척관계에 있는 자로서(외 8촌, 관계 프락치→유학, 생계보장) 비공식적 방법을 이용하여 용권군을 군 보안대로 소환. 구타, 고문하였다. 고문으로 인한 객관적 증상은 7시간의 고문에 의한 고막파열과 장기간의 통원치료로 나타났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고문에 대한 공포증으로 정신질환 증세를 나타내어 미 8군 병원과 국군수도, 대구통합병원에서 86년 11월 초부터 87년 1월 8일까지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본대로 복귀, 부대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87년 2월 18일 미 8군병원 신경과에서 구 중령에게 치료를 받고 집에 들러 19:00경에 부대로 떠났다. 2월 20일에 김용권 군이 근무하는 부대의 한국군 인사계로부터 10시 현재 김군이 실종되었다는 연락받음. 13:00 시경 부모와 친지가 부대에 도착하여 보니 김군이 자신의 막사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됨(한·미군 수사계로부터 현장조사가 마쳐져 있었고 사인의 판정은 자살).

◎ 모순점, 정황의 불일치점

① 미 8군병원 통원치료는 18일 하루였으므로, 19일에는 아침 집합때 출석점검을 하였어야 하는데 점검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군대라는 상황에는 도저히 납득이 갈 수가 없는 점.

② 다음날 20일의 아침점검(집합)에는 김군의 출석을 점검하여 결석(무고)을 확인한 시각이 07:30시 경인데 집에 연락을 취한 시간이 10:00시 이므로 2시간 30분 동안에 김군의 막사를 점검하지도 않고 집에 전화연락을 하였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의 누락이라는 점.

③ 처음 전화연락을 하면서 log in(복귀 Sign)이 되어있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되어 있는 점.

④ 한국군 인사계의 진술로는 김군이 미 8군 병원으로 치료받으러 떠난 이후에 아무도 그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김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은 식사에 준해서 복용하였는데 그 증거는 18일에 미 8군 병원에서 알약 12정과 가루 약 4봉만 남아 있는 점.

⑤ 한국 헌병대와 미CID합동조사에서 사망 추정시간을 발견 전 8시간 전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역산하면 사망시간은 새벽 2시이므로 김군의 방에는 불이 새벽에 켜져 있어야 하는데 이를 본 사람이 없다는 점.

⑥ 목을 매었다고 하는 2층 침대는 1.5m이므로 무릎이 지면에 닿는 곳에서 죽을 수가 없으며 또한 그 자체는 먼저 목을 디밀고 목과 침대를 묶으면서 목을 매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감.

⑦ 김군이 평소 글을 즐겨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서가 없다는 점.

⑧ 신경질환자를 각방을 쓰게 한 점. 비록 퇴원은 하였으나 완치된 것이 아니므로 훈련기간일지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만 했다는 점.

이에 24일 민가협 어머니들 15여분이 사무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김군의 집에 찾아가 어머니를 위로·격려하였다. 한편 김군의 어머니께서는 “너무도 깨끗하셔서 더 이상의 염려는 필요가 없었다”고 어머니들께서 다녀오신 소감을 말씀하셨다.

김군 어머니 열화를 이기지 못하셔서 쓰러져 연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입원. 민가협 어머니들께서 병문안을 가셔서 건강하게, 깨끗하게 이 어려운 생활을 잘 이겨나갈 것을 당부하셨다.

〈구속학생 이기정 군 어머니 이종주 씨 구속〉

2월 25일 권양 항소심이 열렸다. 고문 정권의 폭두각시들이 벌이는 재판에서 이기정 군 어머니은 그 폭두각시들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하여 법정소란과 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목으로 구속, 송치되었다.

고문살인정권은 이제 구속자의 가족까지 구속시키지 않으면 안될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옥중의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우리의 어머니 마저 투옥되어야 하는 이 고통은 불의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 모두의 고통임을 확인하며 그 고통의 근원인 군사독재를 종식시킬 때까지 의연히 투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채삼 다짐하고, 현재 구속되어 계신 구속학생 이기정 군의 어머니, 우리들의 가족의 석방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겠다.

〈표정두군 분신, 사망〉

3월 6일 오후 4:40경 광화문현대빌딩 앞에서 표정두 군이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채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내각제 반대」 구호를 외치며 달려가다 좌측 정문쪽에서 경찰에게 제지당하고 꿈틀대다가 고려병원에 실려갔으나 3도 화상을 입어 중퇴에 빠져 있다가 3월 8일 아침 6시에 숨졌다.

◎ 표정두 군의 약력

1980년 대동고등학교 재학중 5.18 관계 정학처분. 재학중 도서회 가입.

1982년 대동고 졸업.

1983년 호남대 무역학과 입학.

휴학.

방위부대 근무-미국군대에 근무.

1985년 학교복학.

비민주적 학교 운영과 가정형편으로 자퇴.

1986년 무등교회 산하 무등야학 교사(야학 노동자들과 인간관계가 좋았음).

하남공단 내 신흥금속 근무.

1987년 3월 6일 4:40 분신(고려병원입원, 중퇴).

1987년 3월 8일 6:15 영결, 12:40 벽제 서울시립장묘 사업소에서 화장. 유물은 금강하류에 뿌려짐.

고문
추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고문·폭력대책위원회

박 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

1. 박 종철군을 직접 고문하여 죽게 한 하수인은 따로 있다. 박 종철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류중에 있는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5과 2계 학원문화 1반장 조 한경 경위와 5반 반원 강 진규 경사는 진짜 하수인이 아니다. 박 종철군을 직접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진짜 범인은 위 학원문화 1반 소속 경위 황 정웅, 경사 방근근, 경장 이 정오로서 이들 진범들은 현재도 경찰관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고문범인은 결코 두 명일 수 없다. 최초로 고문실에 들어간 외부의사 오 연상씨의 증언에 의하여도 고문실에는 7-8명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종태 있었던 고문사태가 그렇고, 이와 관련된 당시의 신민당 진상 조사보고서, 동아일보 1월 26일자 사설도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 조 한경 경위는 반장으로서 박 종철군에 대한 신문을 담당한 3명(위 황 정웅, 방 근근, 이 정오)에게 "말 안하면 혼내 주라"는 말만 하고서 고문실을 나와 박 종철군의 옆방 하숙생으로 서울대 대학원생인 하 종문군에 대한 연행과 신문 등의 일을 지휘하다가 한 시간쯤 뒤에 박 종철군을 신문하는 방에 들어갔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박 종철군은 늘어져 있었다. 인공호흡 등을 했으나 허사였다. 조 한경 경위에게는 이처럼 반장으로서의 지휘 책임이 있을 뿐인데, 직접적인 고문살인의 주범으로 조작된 것이다.
  - 강 진규 경사는 1반 반원이 아니며, 강 진규 경사가 소속된 반에서 찾고 있는 학생에 대해 박 종철군에게 물어보기 위해 그 방에 갔었을 뿐이다.
2. 범인 조작의 각본은 경찰에 의하여 짜여지고 또 현재도 진행중에 있다. 경찰은 당초 박 종철군이 쇼크에 의한 심장마비로 죽은 것으로 사건을 조작, 고문 사실을 은폐하고 조 한경 경위에게만 지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치려 했다. 그러나 여론의 빗발치는 진상조사 요구에 의해 고문치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인만은 계속 조작, 조 한경 경위와 강 진규 경사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 것이다. 범인조작은 1월 17일 이후 두 경찰관이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가운데서 최초로 이루어지고 같은 상황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조 경위 등은 17일 오후 10시부터 시작된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서의 신문과정에서도 쇼크사라는 계속 같은 입장이었으나 18일 새벽 경찰 고위간부가 직접 찾아가 전체 경찰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부인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다고 가까스로 설득해 고문에 대한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조선일보 1월 22일자)는 당시의 보도는 사실상 이 때 경찰 고위간부에 의해 범인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3. 사건의 조작을 담당하고 연출한 사람들은 고문치사 사건 직후 직위 해제되었다가 4월 8일 벼젓이 복직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 단장 전 석린 경무관, 5과장 유 정방 경정, 5과 2계장 박 원택 경정과 역시 관부 흥 성상 경감 등이다. 특히 5과장 유 정방 경정은 박 종철군 사건 진상은폐와 사후처리를 지휘한 장본인이며 현재까지도 이 각본의 집행을 지휘 담당하고 있다.
4. 경찰은 위와 같은 사건조작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
  - 서울지방 검찰청 특수수사 2부 안 상수 검사는 1월 15일의 박 종철군 시체부검에 입회했을 때에 마땅히 고문 수사 경찰관에 대한 신빙확보를 했다면, 범인조작은 막을 수 있었다.
  - 경찰은 박 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송치 전후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실제적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았으며, 사건의 조작에 협력, 동조하여 경찰 발표대로의 범인을 그대로 인정, 구속 기소 함으로써 범인조작을 은폐,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경찰에 의한 범인조작의 실상을 알고 있다는 믿을만한 증거와 정보가 있다.
5. 이 사건 및 범인의 조작 책임은 현 정권 전체에 있다.
  - 당초의 검찰 수사 방침을 경찰의 자체 수사 방침으로 바꾸게 한 1월 17일의 결정은 진상은폐와 사건조작을 위한 것이었거나, 적어도 경찰로 하여금 사건과 범인조작을 결과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 얼굴없는 사건수사, 범인없는 현장검증, 이유없는 재판지연 등은 모두가 범인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거나, 사건조작을 완벽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이다.
  -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과 분발"이라는 박 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놓고 한 국민과의 약속과 다짐을 사건 조작과 진상은폐로 시작해서 범인조작으로 끝내려 하고 있다.
6. 박 종철군에 대한 고문치사 사건은 처음부터 그 진상이 다시 규명되어야 하며, 진상조사 활동에 방해나 탄압이 없어야 한다. 특히 구속되어 있는 두 경찰관과 그 가족에 대한 탄압이 없어야 함은 물론 자유스런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는 경우, 그것은 사건의 진상과 범인의 조작이 명백히 이루어졌음을 실증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

- 사건조작을 끝까지 완전범죄로 관철하기 위하여 기외의 규판을 조 경위와 강 경사의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가 하면, 감옥에 있는 본인들에게는 월급이 그대로 나가고 있다느니, 나오면 복직이 보장된다느니 하며 무마, 회유 하는 한편, 가족에 대해서는 감시와 미행을 강화하고 있다.
  - 구속된 조 경위와 강 경사에 대한 격리와 차단, 변호인과 가족접견의 제한과 감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건과 범인의 조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 박 종철군을 고문치사케 한 범인이 조작된 이상 이제까지 당국에 의해 발표된 의문투성이의 진상은 모두 허구요 거짓임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박 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은 국회에서의 국정조사권 발동은 물론 공개적으로 재 조사되어야 한다.
7. 조 한경 경위와 강 진규 경사에 대한 재판은 공개되어야 하며, 추호라도 각본에 의한 재판이라는 인상을 주는 일이 없이 모든 의문점이 철저히 밝혀지고, 그 두 사람에 대한 신변의 위협과 보복이 없어야 한다.
-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시인, 다음 공판에서 선고하는 식으로 싱겁게 끝나버릴 가능성이 커요. 또 법정 주변에는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 경찰 병력이 대량 동원돼 철저한 경비를 펴고, 조 경위 등이 사진기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위장작전을 하리라는 예상이 큼니다."(동아일보 1월 26일자)는 보도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국자가 져야 마땅하다.
  - 두 경찰관에 대한 변론은 치안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 의하여 주선된 변호인에 맡겨질 것이 아니라, 본인들과 가족의 희망과 자유의사에 따라 선임되거나, 변호사회 또는 종교계에 의해 선임되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8. 이 사건 조작에 개입한 모든 사람은 처벌되어야 한다.
- 강 민창 전 치안본부장은 사건은폐 및 범인조작에 개입한 흔적이 확실하며, 전·현직 내무부장관, 현 치안본부장의 개입 또는 묵인 여부가 밝혀져야 하며, 검찰 관계자의 개입 또는 묵인도 규명되어야 한다. 또한 당해기관 담당자와 책임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이 추궁되어야 한다.
9. 박 종철군에 대한 고문살인 행위의 범죄와 범인이 조작되어 어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천추의 한(恨)을 안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도덕적 책임 또는 지휘 책임은 직접적 고문살인 범죄의 책임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고문살인 누명을 부모에게는 불효가 되고(조 경위의 부친이 충격으로 목숨을 잃어 버렸다), 역사적으로는 판고의 죄인이 되며, 자식과 그 가족에게는 천추에 원한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10. 박 종철군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아야 하며 그 진실은 낱알이 밝혀져야 한다. 지난 4월 23일 죽은 지 100일이 된 날 박 종철군의 어머니는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히겠다더니 뭐가 어떻게 되어 가는 지 ... "라고 말했다고 한다. 진상은 살아 남아 있는 우리 모두가 규명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 차가운 날 한 뼘의 무덤조차 없던 언 강 눈 바람 속으로 날려진 박 종철군의 영혼이 죽지않고 살아 남아 우리의 곁에 맴돌고 있는 가운데 고문경찰의 핵심들은 복직되었고, 고문 살인자들은 이 땅에 버젓이 폭력경찰로 군림하고 있다. 거짓으로 점철된 이 땅, 박 종철군의 죽음마저 거짓으로 묻히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문범인들은 처벌되어야 하며 고문진상은 밝혀져야 한다.
- 지금 이 순간에도 박 종철군의 어머니의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 "아들의 죽음은 결코 우연한 사고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껏 마음 한 구석에 응어리져 풀리지 않는 것은 종철이가 무슨 이유로 연행됐고, 또 어떤 고문을 받았는 지, 그리고 어떻게 죽게까지 됐는 지 좀 더 확실한 진상이 밝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11. 이 사건 범인조작의 진실이 박 종철군의 고문살인 진상과 함께 명쾌하게 밝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과연 우리나라에서 공권력의 도덕성이 회복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 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진실과 양심, 그리고 인간화와 민주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대한 관건이 이 사건에 걸려 있다.

1987년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독재타도 민주화는

국민의 손으로

# 민주화를 위한 공동전선

민주헌법 쟁취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제 1 호〉

발행일 : 1987년 6월 5일

발행처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전남본부  
연락처 : 광주YWCA 601호 ☎ 56-5525

## 아직도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박종철군 고문살인사건 축소조작! 대검발표에도 여전히 의혹투성이 국민운동본부, 6월 10일 오후 6시 전국에서 규탄대회 갖기로**

지난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고 김승훈 신부를 통해 성명·발표하였다. 고문살인축소조작사실을 인지하고 숨겨온 현정권과 '들쥐'같은 검찰은 몇명의 경찰을 추가 구속하는 선에서 또다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현정권은 5월 26일 허구적 내각 개편을 단행하였고, 대검찰로 승격 원점 재수사된 결과는 여전히 많은 의문점만을 남겼다. 연20여일이상 박종철군 고문살인축소조작사건은 정국을 급변케 하고 있으며 점점 비상정국의 기운을 고조시켜가고 있다.



〈5월 18일, 망월동 묘지에서의 국민운동 전남본부 발족선언 장면〉

현 정권은 내각 대폭 개편과 임시국회를 통해 국민의 분노를 여과하고 폭력적 정치일정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개야와 통일민주당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사인이 밝혀지고 있지 않다. ▲정권이 물러나야 할판에 내각개편만으로는 미흡하다. ▲허수아비 약체 내각 개편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현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도 '인권보호·고문방지공약, 한국정부에 요청, '폭력혐오'운운하며 가시적으로는 살인정권을 비난하면서 현 군사독재정권 지원을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 심정은 의혹과 불신,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차 '이번 기회에 정권이 '확' 무너져 버리길' 기대하고 있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다.  
▲박종철군을 어떻게 고문하고 살해하였는가?  
▲살인은폐조작의 경위와 그 관련범위는?  
▲구속경찰과 가족에 대한 최유협박경위 및 방법은?  
우선 이 모든 은폐조작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살인정권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 퇴진·추방되어야 한다. 또한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있는 수많은 '의혹의 죽음'과 고문사태, 그리고 구조적인 고문방지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따라서 이같은 진상규명과 고문방지대책을 위해 국정조사권이 발동되고, 대한변협이 검찰의 조사권을 넘겨받아 특별조사단을 구성, 진상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박종철군은 젊고 똑똑한 국민의 아들이다. 박종철군의 죽음은 민주의 죽음이요, 정의의 죽음이다. 박종철과 민주를 되찾고, 정의를 되살리고 진실을 밝혀내는 유일한 길은 말이 아닌 행동 뿐이다.

▲장내에서는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투쟁을!  
▲장외에서는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살인은폐규탄 및 호헌철폐국민대회」를 개최하자!

**현정권은 책임지고 퇴진하라!**

## 호헌반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전국으로 확산!

-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전남본부, 전국처음 5월18일 결성! 5월27일에는 전국본부결성! -

반민족 친미정권 통치 7년! 반민주군사쿠데타 정권억압 7년!

황주민중학살만행 어언 7년! 전두환 일당은 4·13조치를 통해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장기집권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전두환일당에 의해 4·13호헌조치가 발표된 이후 온국민의 분노는 광주를 넘어 서울·부산·전주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불처럼 타고르고 있다. 지난 5월 18일, 광주민중항쟁 7주년을 맞아 광주 망월동묘지에서는 1천여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추모제와 기념식이 있었으며, 이날 「4·13호헌조치반대 및 민주헌법쟁취 범도민 운동본부」(5월 29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전남본부」로 개칭)가 결성되었다. 고문에 윤기석 목사등 3명, 공동의장에 남재희 신부등 11명, 전남사회운동협의회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발족선언문·성명에서, 지금은 "반독재 투쟁세력이 공동으로 투쟁해 갈 때이고, 4·13호헌조치에 반대하여 싸운 각계의 힘을 모아 범도민 운동본부를 발족하였으며, "앞으로 도민과 함께 행동하고 모든 민주세력과 공동보조하여 4·13조

치를 물리치고 민주헌법을 쟁취할 때까지 존속 투쟁할것"을 선언하였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민통련, 개신교, 천주교, 통일민주당등 전국의 각계각층 민주인사 2천1백91명을 1차 발기인으로 하여 서울 향린교회에서 결성되었다. 「국민운동본부」는 "발기인 결의문"에서 ▲4·13호헌조치의 무효 및 호헌반대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국민적 행동의 조직·전개 ▲모든 악법의 민주적 개정과 무효화 범국민운동 실천 ▲광주사태·박종철군사건·

범양사건등 역사적 범죄의 진상규명운동전개 ▲민주인사에 대한 연금·구속·공민권 박탈 거부 및 석방·복권 범국민운동전개 ▲탄압정치와 공권력의 독가스탄발사와 폭력행정의 중단 ▲시청료거부 및 자유언론쟁취 국민운동전개 ▲공무원과 군의 자율적 명예회복운동 촉구 등을 결의하고 "민주화와 통일을 요구하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시대의 역사적 요청은 군사독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민간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실현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역사적 국민운동으로 기필코 성공시킬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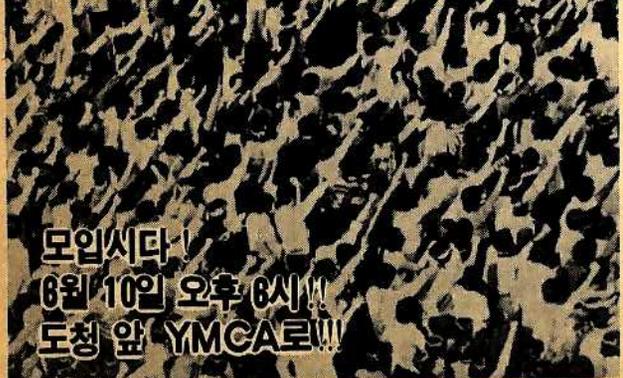
### 6·10규탄대회 국민행동요강 발표

- 전남은 이날 오후 6시 도청앞 YMCA에서 -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전남본부'는 전국에서 일제히 개최되는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전남에서는 6월 10일 오후 6시 도청앞 YMCA에서 갖기로 하였다.

발표된 대회진행요강을 보면,  
·하오 6시 국가하강식을 기하여 전 국민은 다같이 애국가를 부름으로서 고문살인 은폐조작을 규탄하고, 국민적 합의인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배신하는 호헌철폐와 민주헌법쟁취의 뜻을 새긴다.  
·전국의 자동차는 6시 애국가가 끝남과 동시에 경적을 울리고, 전국의 교회와 사찰은 타종을 함으로서, 또한 호각을 준비한 사람은 호각을 불어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적 의지를 표시한다.  
·모든 참석자는 태극기를 지참하고 대회장으로 나온다.

대회구호로는,  
●호헌반대 독재타도  
●4·13을 철폐하라!  
●더이상 못속겠다 거짓정권 물러나라!  
●민주헌법 쟁취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행동하는 국민속에 박종철은 부활한다!  
●국민합의 배신하는 호헌주장 철폐하라!  
등을 채택하고,  
국민대회는 이와같은 행동요강에 따라 철저히 평화적인 대회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국민운동 전남본부에서는 ▲단결하여 행동할것. ▲독가스탄(취부탄)에 대비하여 마스크나 손수건, 그리고 치약을 준비할것. ▲홀어졌다 다시 모이기, 함께 노래부르기·구호외치기, 향의의 표시로 호각불기 등을 추가했다.



모입시다!  
6월 10일 오후 6시!  
도청 앞 YMCA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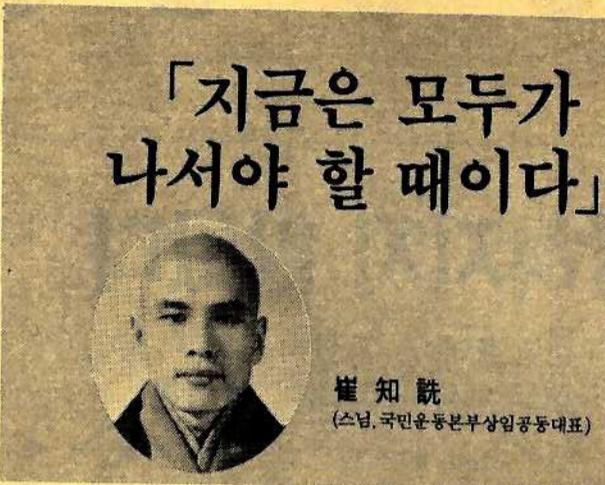
지금은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눈을 뜨고, 귀를 듣고, 입을 열고, 가슴을 활짝 제끼고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수군거림이 백주의 광장의 토론으로, 무딘 펜이 날카로운 펜으로, 탁상공론이 행동으로 변화되어야 할 때이다.

좋은 세상, 천가만인이 제모습대로 서로 어우러져 대동하는 아름다운 세상, 이런 세상에서는 모두가 자기 본분 사에만 충실함으로써도 싱싱하고 달콤하고 명랑한 사회가 유지된다. 그러나 현재의 이 살얼음판같은 암울한 현실에서의 사람들은, 그러한 현실에 의해 자신의 분명한 거취를 강요당하고 있다. 즉, 참여 아니면 순수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자신을 끼워 넣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삶이 고통스럽고 이러한 현실이 한탄스럽다고들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가 현실 속에서 그것과 무관한 삶이 아닌 상관관계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진정으로 순수하다면 참여가 아니될 수가 없으며, 참여는 순수함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때 그러한 이분법적 논리는 발붙일 근거가 없는 것이다. 아니 그러한 이분법적 논리는 나약함과 방관과 현실도피를 합리화하려는 약삭빠른 자기책에 불과한 것이다.

오늘날의 이 어둡고 춥고 아픈, 질곡의 세상은 우리 모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애써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단았던 까닭에 군부독재정권, 매관자본가, 외세 따위가 창궐한 것이다. 소가 닭을 보듯 무관심하게, 순수하고 고고한 척의 말과 처세로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한 까닭에 어두운 세력은 그들의 아성을 굳게 쌓은 것이다. 이 땅의 현실을 보자. 저 한줌도 못되는 살찐 도적들은,

농어민들의 피와 땀에는 저곡가와 농어촌의 황폐화를, 노동자들의 피와 땀에는 세계 최고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정의와 자유를 요구하는 이들에게는 살인적 폭력과 강간으로, 민족의 자주권과 통일을 부르짖는 이들에게는 좌경과 용공으로 입막음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피보라



를 일으킨 살육의 죄과로 점철된 저 군부독재정권은 이른바 「고녀의 찬 결단」이라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야만적 지배권력을 지속시키겠다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음모를 현실화해 가고 있다.

이 땅의 적박한 현실은 우리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밖에는 바로 잡을 길이 없다. 안락주의와 집단이기주의라는

씨앗은 비만의 살찐 도적놈들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이다.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거두는 법이다. 이제는 순종과 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올바른 역사 창조에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 군부독재정권의 타도와 민족민주주의, 민족통일의 성취라는 공동목표를 앞세우고 공동의 투쟁 대상에게 공동의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의 방관과 도피는 후대의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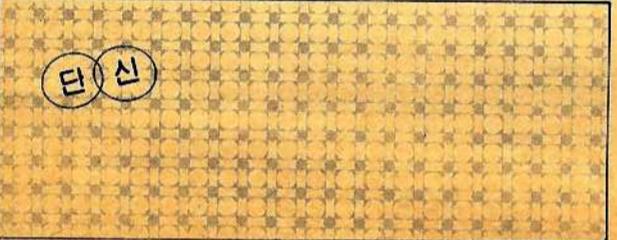
허공계가 다하고 미래가 다할 때까지 아니, 중생계가 다할 때까지 모든 민중을 구원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이를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보살도 정신으로 우리를 굳게 무장해야 한다. 그것이 배제된 민주화운동은 일시적 또는 충동에 의한 일회용, 그것도 자신의 어떤 욕망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대했던 성과가 없을 때는 쉽게 좌절하고 회의하는 패배주의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보살도 정신을 앞세운 우리가 추구하려는 소원은 가까이 있는 민주화·민족통일이지만, 결국에는 혁명이 필요없고, 민족주의가 필요없고, 나아가 종교마저도 필요없는 완전한 이상국토인 정토세계의 구현인 것이다.

서 있는 나무, 의연한 산이 되고 바람소리, 새소리가 되고 싶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저 기계돌리고 땅을 파는 노동자, 농민, 모든 면에서 소외된 전 민중의 끓어오르는 변혁의지를 보라.

나아가 말하라. 그리고 싸라. 실천하라.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의 그날까지 모두 투쟁하자 지금은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광주 기독교인·시민 3만여명, 금남로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 가져

지난 5월 24일 「광주 기독교 선교자유수호위원회」 주최로 “범교단 나라를 위한 연합예배”가 기독교인·시민 등 3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금남로 1·2가 노상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예배에서는 ▲4·13조치 반대 ▲언론자유와 긴급실천 ▲모든 양심수의 즉각 석방과 민중 생존권 보장 ▲단군신화 반대 등 6개항의 견해가 발표되었다. 또한 광주 기독교 14개 교단 17개 노회 대표들은 다음날인 25일 광주 중앙교회에 모여 「시국에 대한 견해」에서 밝힌 6개항에 대해 정부측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5백 34명의 서명 목회자가 순교를 각오하고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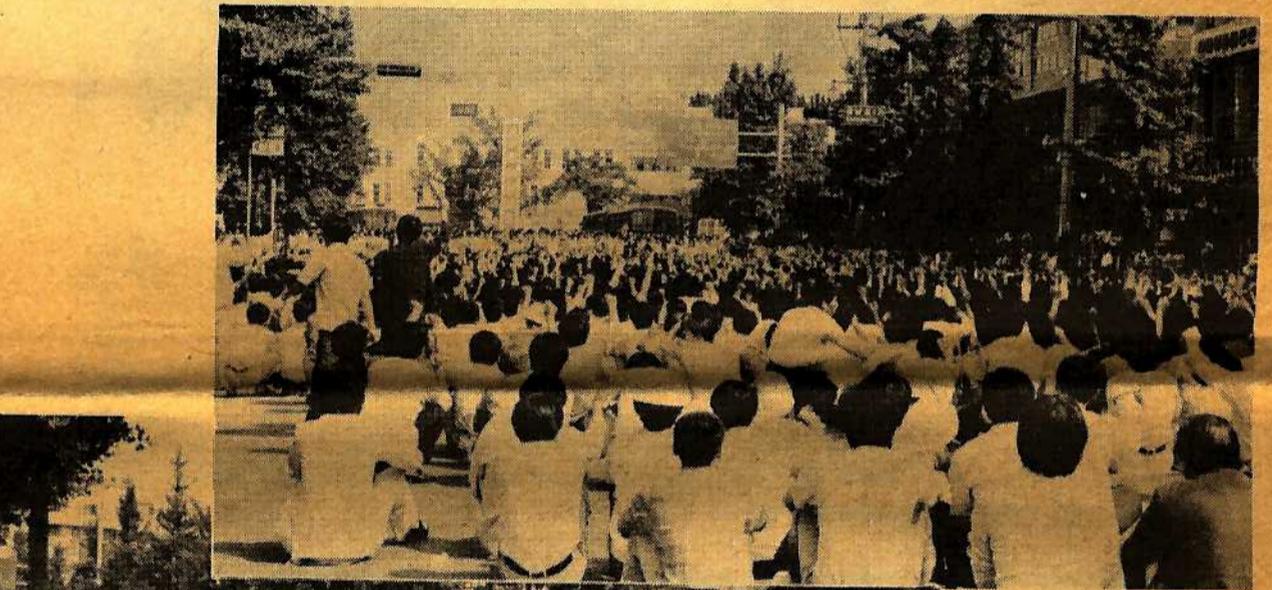
광주 불교신도·승려·시민 등 1만여명, 중앙로에서 「규탄 대법회」가져

지난 5월 27일 오전 11시부터 「광주 사암연합회」주최로 광주 원각사 앞 중앙로 노상에서 불교승려 150여명을 비롯한 불교도·시민 등 1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5·18 불교 탄압규탄대법회”가 열렸다. 이날 ‘규탄 대법회’에서는 전 불교도에게 드리는 글을 채택, ▲군사독재정권퇴진 ▲불교 탄압 중지 ▲불교 악법 철폐 ▲정법수호와 실천에 앞장설 것 등을 결의하였다.

한편, 이날 대법회가 끝난 후에도 5천여 시민들이 오후 3시경까지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중앙로 및 주변에서 끈질긴 시위를 벌였다.

전국에서 신부·목사·스님·교수·문인·노동자·청년 학생 등 각계 각층의 국민들 투쟁에 나서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신부 18명의 ‘직선제 개헌을 위한 단식기도’를 계기로 ‘4·13호헌조치 반대’ 및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12일간 계속되었던 전남 목회자 34명의 단식기도, 대한 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7백51명의 4·13철폐와 민주개헌 및 민주정부 수립 요구, 서울대 122명·전남대 60여명 등 전국 46개 대학에 걸



〈5월 24일, 금남로 나라를 위한 기도회〉



〈5월 27일, 중앙로 규탄대법회〉

쳐 1천 5백여 교수들의 4·13조치 철폐와 민주개헌 요구 서명운동, 소설가·시인·평론가 등 문학인 294명의 4·13 조치 반대성명, 전국 금융노조 및 광주 남해어망 등 민주노조의 4·13조치 반대성명 등 “4·13조치 반대와 민주개헌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투쟁이 갈수록 확산 되어가고 있다. 또한

이와같은 각계각층 대중의 광범한 투쟁은 이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의 결성과 함께 보다 조직적인 투쟁으로 발전 될 전망이다. 청년 학생·노동자·농민·운동권 만의 투쟁에서 이제 전 국민적 운동으로 확대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추진위원 가입안내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나라의 민주화를 염원하며, 국민의 힘으로 민주헌법을 확립, 참다운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고자 하는 분은
  - 1) 추진위원 가입서를 작성하고, 약정한 월회비를 내시면 됩니다.
  - 2) 가입서는 이미 추진위원으로 가입 승인된 사람의 추천을 받아 작성하시거나, 연락 사무실(505 광주시 북구 유동 107-5 YWCA 601호, 전화 56-5525)에 직접 오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3) 회비는 월 1천원 이상이며, 가입서 작성시 형편에 맞게 약정한 액수대로 매월 납부하시면 됩니다.
  - 4) 추진위원이 내는 월회비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본부」의 기본 재정으로 유용하게 쓰입니다.

# 진실이 밝혀지기 보다는 은폐되고 있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마태 10, 26-27)

우리는 우리 신앙의 양심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루가 22, 42)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난 5월18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조작은폐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과분하고도 충정어린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진실을 갈구하는 국민 내부의 열망과 언론의 몸부림이 하나되어 마침내 어둠 속에 갇혔던 진실의 일단이나마 밝혀질 수 있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5·18성명과 관계없이 그 이전부터 이미 검찰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조작은폐 사실을 알고, 철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검찰의 발표를 어떤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를 우리가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박종철군의 고문치사의 진상은 물론 조작과 은폐의 과정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요연하게 검찰에 의하여 조사, 발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5월29일의 발표는 전후좌우의 모순과 허점으로 점철되어 있어, 진실의 규명보다는 오히려 사건의 종결과 호도에만 급급한 인상의 그것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발표가 진실인 것으로 확인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한데도, 우리가 조사를 신뢰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정한 조사활동을 검찰이 오히려 봉쇄, 차단하고 있는 점에서 진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은폐, 조작되고 있다는 의구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표로 어떤 사람이 보복이나 불이익을 강요당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불찰이요 아픔일 수밖에 없는데,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가 몹시 공포에 떠는 모습으로 진술과 변호인 선임을 반복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은 검찰차원에서 밝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 자체가 이 사건의 조작과 은폐에 개입한 정황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검찰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으리라고는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종철군에 대한 고문치사와 사건 조작 은폐의 전(全)과정에 걸친 실제적 진실은 물론 이 나라 정치권력 자체의 양심의 마비상태, 즉 고문으로 한 젊은이를 죽게 하고, 그 사실마저 조작 은폐하는 그런 도덕적 기반 위에서 있는 정치권력의 의식세계와 그에서 비롯되는 공권력의 원초적 부도덕성과 부정직성이 밝혀지고 청산되어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권의 발동과 대한변협 조사활동의 자유가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확신을 거듭 내외에 천명하면서 이러한 조사활동이나 재판 절차를 통하여 마땅히 밝혀져야 할 문제점들을 다음에 제시하는 바입니다.

## 1. 고문치사 과정의 진실

가) 박종철군이 연행될 당시의 신분은 오직 박종운군에 대한 참고인자격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나) 연행시간과 연행된 장소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렌즈 소독기가 든 손가방과 학교 성적표가 없고, 전날 신고 나갔던 부츠와 하숙집 동료로부터 빌린 상아색 털목도리가 없는 점에 비추어 하숙집이 아닌 장소에서 발표와는 다른 시간에 연행되었다는 가족과 그 주변의 주장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다) 물고문 이외에도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박군의 몸에 얼룩진 반점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는 점과 연행시간 등의 의혹에 비추어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 5층 9호실이 아닌 장소(신문실)에서 제1차 고문이 선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체부검 사진의 공개와 함께 다른 고문의 의혹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라) 강진규 경사가 다른 반 반원으로서 박종철군 조사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역할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5월30일, 이상수 변호사가 접견했을 때 공포에 질린 표정과 언동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조·강 두 경관에 대한 신변의 안전이 지켜진 가운데 변협 조사단과의 자유로운 면담에 협조해 줄 것을 관제당국에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2. 경찰

가) 박종철군의 죽음이 고문치사로 밝혀진 뒤 당

시의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처음 상황보고를 정확히 하지 않은 사람을 감찰 조사하겠다”고 하였으나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았고, 신길동 치안본부 특수수사 2대에서 처음 조사할 때부터 “상부로부터 조한경 경위 등 2명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수사반의 진술 등에 비추어 조작·은폐사실을 치안본부장이 알고 있거나 지시 또는 그에 개입했음이 확실하다 할 것입니다.

나) 검찰은 박치원 치안감 등 경찰간부 3명을 범인도피혐의로 구속하면서 이들이 두 경찰관을 교도소로 찾아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 또는 관련자 5명을 모두 쫓아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의 협박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는 물론 납득할만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와같은 공갈과 협박이 교도소 안에서 계속되고 있으리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다) 우리는 보다 많은 사람의 형사처벌 등을 결코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 발생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 단장이었다가 직위 해제 끝에 4월8일 보직 발령된 전석린 경무관, 1월15일부터 18일까지 줄곧 박종철군의 가족을 동행, 감시하고 고문치사사건의 조작은폐를 위한 가족의 회유와 금품제공 등에 가담한 홍승상 경감, 그리고 1차 보고서를 작성하고 가족 면회 때마다 임회 감시한 이태훈, 여건주 경위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조치나 문책 또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라) 우리는 박치원 치안감이 서울신탁은행 이촌동 지점에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 명의로 예치한 개발신탁 장기예금 4개구좌 2억원의 정채와 행방,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수사비가 비록 정권유지 자금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같이 방만하게 쓰여져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한 사람의 치안감이 쓸 수 있는 재량권이 그렇듯 큰데 대해 국민이 느낄 수밖에 없는 배신감과 허탈감을 어떻게 위로하고 보상할 것인지 밝힐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 우리는 또한 사건 직후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조·강 두 경관 가족에게 준 각 3백만원과 2월24일 이영창 치안본부장이 준 각 1천만원 등의 출처와 자금의 성격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합니다. 경찰관이 결코 재벌이 아닐진대, 성금이라는 명목으로 치안본부와 서울시경 대공팀 소속 경찰관이 한 사람당 10만원, 경사 15만원, 경위와 경감 20만원, 경정 30만원, 총경 50만원, 경무관 이상 100만원씩 각출했다는 발표를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바) 우리는 추가 구속된 3명의 고문경관이 사건

후 같은 날, 전보발령된 점에 비추어 인사권자인 당시 치안본부장은 고문 조작·은폐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믿는데, 이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3. 검찰

가) 정구영 전(前)서울지검장은 5월21일의 발표에 이르기까지 그때마다 거짓발표와 기자와의 기만적 일문일답을 하여왔음이 5월29일의 검찰발표로도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서울지검 안상수 검사는 2월27일 조·강 두 경관으로부터 3명의 고문경관이 더 있다는 사실을 청취하고서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인지 잘 판단하라”면서 계속적인 은폐를 획책, 종용하고 이같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 2월28일 김성기 법무부 장관이 영등포교도소를 방문, 새로운 사실이 밖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단속을 지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경관에 대한 3월7일의 이감조치는 경찰로 하여금 두 경관에 대해 마음놓고 회유와 설득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합니다. 3월9일 가족면회 때, 조한경 경위는 동생에게 “검사에게 조작사실을 폭로한 뒤 경찰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을 당하고 있다. 빨리 변호사를 대라”고 한 사실에서도 분명한 것입니다. 이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2월27일 이후 검찰은 조·강 두 경관의 심경의 변화를 경찰에 알려 합동으로 조작사실을 은폐, 무마하려 했음이 확실합니다.

나) 조·강 두 구속경관에 대한 가족면회가 토요일 오후에 특별면회로만 허용된 점, 또 조한경 경위에게는 이태훈 경위가, 강진규 경사에게는 여건주 경위가 임회한 상태하에서만 면회가 이루어진 점, 3월말경부터 검사의 지시라며 3주간 면회가 금지된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은 2월27일 이전에 이미 조작은폐사실을 알고, 경찰과 교도소당국과 연계하여 합동으로 조작사실의 은폐를 공모, 혹은 적어도 묵인했음이 명백합니다.

다) 공정한 법 운용의 표상이 되고 공익의 대표여야 할 검찰이 이 사건에서 위와같이 수사지휘권을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하며, 나아가 은폐조작을 방조·묵인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경찰이 자체조사를 빙자하여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진상을 조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자체조사와 발표를 통하여 자신의 은폐조작 방조의 범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에 의한 제2의 은폐조작으로서 검찰권에 대한 신뢰와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것인 바, 검찰이 그 자신의 마치

막 남은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진실을 더 이상 감추지 말기를 진심으로 호소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 4. 법원

가) 공소제기 후 4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이 열리지 않았던 이래적인 상황을 재판부는 3,4,5월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간대를 피하려 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 사건 재판이 경찰의 차단과 봉쇄 속에 단 1회에 결심, 그 다음 기일에 선고하는 요식적 절차로 끝나리라는 근거있는 소문이 일반화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조작은폐를 방조하고 기다려준 것에 다름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나) 우리는 이 사건 재판의 결과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이미 1심에서는 10년 구형에 7년 선고, 2심에서는 7년 구형에 5년 선고, 그리고 3년정도 살면 나오게 된다는 각본이 짜여졌던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라는 재판장의 전력에 비추어 담합의 의혹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 재판은 공개되어야 하고, 또한 모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법정이 되어야 하며, 법원은 선입견이나 예단없이 이 사건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 재판장이 조한경 경위의 지휘책임의 법적 문제와 관련한 논평을 통하여 "서울 강남 서진 룸 살롱 폭력배 집단살해사건 재판에서 장진석 피고인도 지시만 하고 살인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사전에 예단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한 바, 이 재판부에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요 불안입니다.

#### 5. 용공조작과 고문

가) 언제부터인가 '남영동'으로 통칭되는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은 학생과 노동운동가를 비롯, 유신시대 이래 민주·민중·민족운동에 헌신해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포는 용공조작에 대한 것과, 그것을 위한 정신적·육체적 고문에 대한 것이며, 학생운동단체 및 재야 민주·민중운동단체의 용공조작사건의 대부분이 여기서 조사, 조작, 발표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 또한 지극히 도식적이어서 연행 또는 수배와 동시에 가택을 수색하여 이른바 문제서적이거나 유인물을 먼저 확보하고, 혐의사실로 용공조작하기 위하여는 김근태씨의 경우처럼 야만적 고문을 감행하고, 그것으로도 안되면 이미 확보한 책자나 유인물을 가

지고 용공좌경으로 채색, 발표하는 것입니다.

책자나 사상에 대한 감정은 처음부터 정체불명의 '내외문제연구소'라는 곳에 맡겨지는데, 대개의 경우 홍성문(홍지영이라는 이름과 함께 다섯가지 가명을 쓰고 있음)이라는 수석연구위원이 천편일률적으로 허위감정 혹은 법정에서 모략증언함으로써 재판을 통해 용공좌경의 너울을 띄우는 것을 하나의 확립된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대공수사단에 의하여 용공좌경으로 채색되어 재판을 통하여 처단되는 공정(工運)이 이러하거나 우리는 대공수사단이 민주화운동, 민중운동 관련자에 대해 용공좌경이라는 도식적 틀에 맞추는 수사를 함으로써 고문이 이루어지고, 또 국사범과 민주애국인사 사이에 혼돈이 일어나게 하는 오래된 관행을 안타까와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역시 정치권력의 요구와 비위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감행하다가 발생한 정치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터지자 용공조작을 요구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치권력이 그 책임을 오직 고문경찰관과 대공수사간부에게만 전가한 측면을 도의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공조작은 국민분열을 획책하는 민족자해행위로서 그에 대한 반대와 거부 of 뜻을 여러차례 밝혔거니와,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시국과 관련한 사건수사를 대공수사단이나 그 요원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우리의 간곡한 충고를 현정권 당국에 전하는 바입니다.

#### 6. 1월17일의 정부대책회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조작은 1월17일의 관계부처 장관과 유관기관 책임자가 참가한 정부대책회의에서 경찰 자체조사를 결정함으로써 비롯되어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보도에 의하면 내무부장관과 치안본부장의 로비에 의해 그와같은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들이 필사적으로 경찰자체조사를 관철한 뒷면에는 조작은폐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음 또한 자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사상식에 반하는 이런 주장이 관철되어 그와같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무부장관과 치안본부장은 조작은폐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사실을 알고 경찰 자체수사를 고집했을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당시의 언행(대공수사요원의 사기 운운)이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월17일의 정부대책회의의 소과정과 내용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책임도 규명되어야 마땅하다고 거듭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은 한 이 사건의 진실은 결코

밝혀졌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 7. 정치권력의 도덕성

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前법무부장관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의 조작은폐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8일의 임시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두 사람 이외와 다른 경찰관은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로서는 철저하고 면밀한 수사를 하여 그 진상을 그대로 규명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했으므로 재수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위증하였으며, 내무부장관은 5·26 개각 발표 후 조작은폐 사실이 밝혀진데 대한 화풀이로 언론에 화살을 돌림으로써 현정권의 도덕적 파탄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현정부의 경직되고 도식적인 지휘·명령체계에 비추어 볼 때 관계장관은 물론 국무총리, 나아가서는 대통령도 조작은폐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나)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후 가진 1월22일의 기자회견에서 ‘고문치사’란 말을 단 한마디도 쓰지 않으면서 ‘박종철군 사망사건’이라고만 썼습니다. 진상을 진상 그대로 보거나 표현하지 않으려 하는 가운데는 양심적 반성도, 도덕성의 회복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박종철군의 고문살인사건의 조작은폐사실이 밝혀졌을 때도 민정당은 오직 체육관선출 대통령 후보의 선출이라는 예정된 각본대로의 정치일정만을 우려했을 뿐, 진실한 반성이나 고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2·7추모집회, 3·3국민대행진 등 행사와 관련, 그때마다 여러차례 있었던 당정회의를 통하여 민정당의 노태우 대표위원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법무부장관 등으로부터 은폐조작사실을 보고받았을 개연성 또한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8.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반성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인책개편을 단행하면서도 대통령은 고문근절선언이나 국민에 대해 정중한 사과의 뜻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및 사건조작은폐의 진상규명과 고문근절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게 표명되지 않는 속에서는 진상이 있는 그대로 밝혀질 수 없고, 고문 또한 근절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지금도 고문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발생 후 구성된 정부

의 인권특별위원회에서는 의문의 변사사건에 대한 조사 고문, 성고문에 대한 진상규명보다는 법관의 영장없는 임의동행요구를 ‘법제화’ 할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현정부는 어떻게 하면 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탄압, 유린할 수 있는가만을 연구, 획책하고 있습니다.

다) 이한기 국무총리 서리는 5월30일의 담화를 통하여 “이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고 그에 따른 정치적, 법적 조치가 충분히 취해졌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진상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뿐 아니라 도의적, 행정적 책임이나 조치는 미흡하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읍니다. 무엇보다 6월10일의 “박종철군 고문살인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고문살인과 조작은폐의 당사자인 검찰과 검찰이 엄치없게도 원천봉쇄하고 다수의 민주애국 인사를 구속한 것은 이미 도덕성이 파탄난 공권력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현정권이 국민대회를 오히려 폭군적 압제의 빌미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사태에서 박종철군 고문치사와 조작은폐’를 거쳐 그 마지막 비극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다는 불안한 예감을 국민으로 하여금 갖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문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민주화된 나라에서 모든 이웃 형제와 ‘더불어 함께’,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나라의 민주화와 사회정의, 그리고 민족의 자존과 자주를 요구하는 것이 용공좌경일 수 없고, 그것으로 고문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처벌되고 처벌되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고문해 죽여놓고 징계 정도의 처벌을 예상하는 공권력의 의식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속을 각오하면서 발표한 ‘5·18성명’의 그 마지막 구절을 오늘 인용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의 기도외도 같은 호소를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 범인조작의 진실이 박종철군 고문살인 진상과 함께 명쾌하게 밝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과연 우리나라에서 공권력의 도덕성이 회복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결론이 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진실과 양심, 그리고 인간화와 민주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대한 관건이 이 사건에 걸려 있다.”

1987년 6월 22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